

(가칭)태권도 성전 건립추진위원회 창립총회



김운용 명예위원장의 축사

지난 12월 26일 올림픽파크텔 1층 올림픽파 홀에서 (가칭)태권도 성전 건립추진위원회 창립총회가 김운용 대한체육회 회장, 김 집 청소년연맹 총재, 최일홍 생체협 회장, 김성집 체육회 부회장, 최창신 문체부 차관보, 신용선 국민체육진흥공단 부이사장, 이종우 세계태권도연맹부총재, 임운규 국기원 부원장, 이상철 한국체대 총장, 이상균 태능선수총장, 박종용, 유중수, 황학수 국회의원, 연예인 이동준씨 등의 창립위원과 이필곤 대한태권도협회 회장, 이홍주 협회상임부회장을 비롯해 태권도계 원로와 각 시도지부 회장등 250여명의 관계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개최되었다.

이날 행사는 창립총회 행사와 96년도 정기 장학금 수여식, '98 아시안게임 종목체택 축하연, 그리고 송년오찬을 겸한 행사로서, 96년을 결산하면서 태권도인들의 초기의 관심사인 태권도 성전 건립을 비롯해 올 한 해를 의미있게 장식한 여러 가지 뜻깊은 일들을 자축하는 자리가 되었다.

먼저, KBS 박영웅 아나운서의 사회로 진행된 창립 총회에서는 개식통고와 국민헌례에 이어 이홍주 공동 준비위원장의 경과보고가 있는 후 최창신 공동준비위원장이 창립취지문을 낭독했다.

김 집 청소년연맹 총재가 임시의장으로 선출되어 정관(안) 승인과 임원선출 과정을 진행하여 명예위원장에는 김운용 대한체육회 회장, 위원장에는 이필곤 대한태권도협회 회장을 선출했고 여타 임원은 위원장에 위임할 것을 결의했다.

이어 이필곤 위원장은 피선 인사말을 통해, 일찍이 25년 전에 중주국의 중앙도장으로서 국기원 건립의 위업을 완성한 김운용 명예위원장과 태권도 원로들의 노고에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고 말하고 이제 태권도인 모두는 세계태권도인의 염원인 가칭 태권도 성전의 건립에 나서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 태권도 성전건립 사업은 새로운 스포츠문화의 창달을 통하여 인류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공헌하고자 하는 범세계적인 의미를 갖는 일인 동시에 21세기 통일된 7천만 한국민의 정신수련 도장을 건설하는 국가적 과업을 명심하여 난관을 극복하고 성전건립을 위해 태권도인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굳게 단합해나가자고 말했다.

이어 김운용 명예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중주국으로서의 면모를 태권도성전 건립을 통해 보여주게 된 것은 태권도의 발전을 위해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축사를 끝으로 (가칭) 태권도 성전 건립추진위원회 창립총회 행사는 마무리되었다.

태권도 성전 건립 의의

태권도는 2천년 시드니올림픽과 98년 방콕 아시안 게임에 정식종목으로 채택되었을뿐만 아니라 얼마전에는 우리 한국 문화를 대표하는 베스트 5에도 선정되었다.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답게 지금 세계에서는 140여개국에서 4천만명 이상이 태권도를 수련하고 있다. 대다수의 외국인들이 '한국' 하면 태권도를 연상할 정도로 한국을 태권도의 종주국으로 자타가 공인하고 있는 현상황에서 태권도의 정신을 실체화해서 온 국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차원에서 태권도 성전건립을 바라보아야 한다.

먼저 성전은 태권도를 통해 세계속의 한국의 이미지를 고양하는 상징적 시설물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두번째는 전세계 4천만 태권도 동호인이 종주국인 한국을 찾도록 정신적 요람을 건설하자는 뜻이다. 세번째는 21세기 남북통일 시대를 맞을 것에 대비하여 남과 북의 청소년이 한 자리에 모여 강인한 우리 민족정신을 수련하는 도장을 짓겠다는 뜻을 담고 있다고 하겠다.

북한의 「태권도 전당」

북한은 지난 1992년 8월에 평양의 청춘거리에 「태권도 전당」을 세웠다. 대지 6만 평방미터, 연건평 1만 8천 평방미터 규모인 평양의 「태권도 전당」은 2400식 규모의 관중석과 2000평방미터의 경기장을 포함하여 97개의 훈련장이 있는 규모다. 여기에는 수영장과 스포츠센터는 물론 호텔과 각종 편의시설 등이 포함되어 있다. 북한은 태권도 전당이 완공된 이후 1993년 9월에 세계태권도대회를 열기도 했다.

지금 북한에서는 우리의 체육대학과 비슷한 평양 체육학원을 중심으로 젊은 대학생들에게 태권도를 보급하고 인민군들에게도 태권도를 보급하고 있다.

※(가칭) 태권도 성전 건립추진위원회 창립 경과

- 96. 3. 20 대한태권도협회 이사회에서 가칭 '태권도 성전' 건립추진위원회 연내 구성 결의
- 96. 5. 25 태권도발전 종합계획 수립(태권도성전 ~6.10 건립 과제포함) 문화체육부 장관에게 보고
- 96. 9. 18 태권도발전 대 토론회에서 가칭 태권도 성전 건립방안을 논의, 여론 수렴
(설문조사 실시 : 98.9%가 건립 지지)
- 96. 11. 20 동 출병(안)에 대한 주요인사 의견 수렴
- 96. 12. 10 가칭 '태권도성전' 건립추진위원회 창립 공동준비위원장으로 네 명 위촉, 조찬회의 실시
—대한체육회 김성집 부회장, 국민체육진흥공단 신웅선 부이사장, 대한태권도협회 이홍주 삼임부회장, 문화체육부 최창신 차관보

태권도 성전의 시설

창립총회에 앞서 태권도 성전의 시설에 대해 여론조사를 한 결과, 91.4%가 경기장, 연수시설, 숙박시설, 회의장 시설 그리고 관광시설을 포함하는 복합시설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문제는 앞으로 건립추진위원회에서 세밀하게 검토해서 적절하고 효율적인 설계에 착수하게 될 것이다. 성전의 위치는 '찾아오는 국민이나 외국인들의 편의'를 생각하고 '주변의 환경과 잘 어울릴 수 있는 곳' 등의 조건을 고려하여 신중히 선택할 것이다.

지난 9월 태권도협회가 개최한 태권도발전 대토론회에서 토론회에 참석한 수련생, 관장, 심판 18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중 성전 건립에 관련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과제우선순위

□ 태권도 발전을 위한 가장 중요한 과제

- | | |
|----------------|-------|
| ① 성전의 건립 | 28.1% |
| ② 새롭세의 창작보급 | 26.5% |
| ③ 경기규칙 개정 | 16.2% |
| ④ 역사와 정신의 정립 | 13.5% |
| ⑤ 도장경영 개선 | 11.9% |
| ⑥ 외교 · 홍보활동 강화 | 3.8% |

성전 건립

□ 성전건립의 필요성 98.9%

□ 성전의 규모

- | | |
|-------------------------------------|-------|
| ① 경기장, 연수, 숙박, 회의 및 관광기능을 포함하는 복합시설 | 91.4% |
| ② 경기장 중심의 대규모 시설 신설 | 4.3% |
| ③ 기존 국가원 시설의 확충 | 4.3% |

□ 성전의 위치

- | | |
|-------------|-------|
| ① 서울근교 | 51.9% |
| ② 관광명소적 장소 | 17.3% |
| ③ 서울 시내 | 13.5% |
| ④ 지방 대도시 근교 | 8.6% |

□ 성전의 명칭

- | | |
|---------|-------|
| ① 태권도전당 | 10.3% |
| ② 태권도성전 | 8.1% |
| ③ 태권도회관 | 4.9% |
| ④ 국기원 | 4.9% |

□ 성전건립기금의 조성

- | | |
|---------------|-------|
| ① 정부·기업·태권도인 | 89.2% |
| ② 정부 재정지원 | 7.0% |
| ③ 국내외 태권도인 성금 | 2.2% |
| ④ 기업성금 | 1.6% |

□ 성전건립추진위원회의 구성

- | | |
|------------|-------|
| ① 법·국민적 규모 | 65.9% |
| ② 태권도인 중심 | 31.9% |

재원마련 방안

우선 추진위원회에서는 태권도인 중심, 다시 말해서 5천 2백여 일선 태권도장과 370만 유단자 회원의 성금 모금운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물론 성금 모금운동은 법률적인 승인절차를 밟을 것인데 다만 성전 건립이 단순히 태권도인의 재산이 아닌 국가적, 민족적 문화유산을 창조한다는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되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정부나 체육진흥기금에서도 지원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가칭)태권도 성전 건립추진위원회 창립총회 기자회견담

12월 26일 창립총회 행사에 앞서 오전 10시 올림픽 파크텔 골돌이룸에서 이홍주 협회 상임부회장 주재로 각 언론사 태권도 출입기자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담회가 있었다. 이홍주 상임부회장은 이 자리에서 체육회를 중심으로 국회, 정부, 관련단체, 기업, 태권도원로등 여러 분야와의 조율을 거쳐 오는 창립총회를 개최하게 되었다고 밝히고, 각 신문, 방송사 대표들을 끌고오 안내하여 위원 구성을 하려고 노력했다고 말했다.

또 사업계획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내년중에 부지선정이나 기금모금 방안, 설계와 명칭 제정에 관해 광범위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게 될 것이며 이는 실질적으로 활동하게 될 집행위원회가 구성된 후 구체적 복안을 잡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성전의 건립을 위한 예산총량과 성전의 구체적인 기능, 건립기간, 예상되는 외형, 부지선정 등에 관한 기자들의 질문에 이 부회장은 태권도 성전건립은 단순히 경기 시설물이 아니라 전통미를 살린 현대적 기능의 건물이어야 하기 때문에 부지선정이라든가 설계기간을 충분히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말하고 언론사와의 공조를 거쳐 국민적 관심을 유발하면서 명칭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우리나라에서는 한 경기단체가 주관하여 전용건물을 짓는 것은 이번이 처음 있는 일이며 이는 태권도가 국기라는 특수한 지위를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이 뜻깊고 의미있는 역사적 사업이 반드시 성공적으로 성사되리라 확실하다고 말했다. 적어도 자금성만

은 해야 하지 않느냐는 어느 기자의 말로 일동은 웃으며 간담회를 마무리했다.

명예위원장 김운옹씨, 위원장 이필곤씨 만장일치로 추대

김운옹 대한체육회 회장이 명예위원장으로, 이필곤 대한태권도협회 회장이 위원장으로, 김 집 한국청소년연맹 총재가 고문으로 추대되었다.

위원명단은 아래와 같다.

※(가칭) 태권도 성전 건립추진위원회 창립위원, 자문위원 명단

창립위원명단

대한태권도협회 회장	이필곤
대한체육회 부회장	김성집
국민체육진흥공단 부이사장	신용선
대한태권도협회 상임부회장	이흥주
문화체육부 차관보	최창신
세계태권도연맹 부총재	이종우
국기원 부원장	엄운규
국기원연수원 부원장	김봉식
한국체육대학교 총장	이상철
대한체육회 사무총장	배순학
한국여성스포츠협회 회장	조경자
체육진흥공단경륜사업단 사장	한기복
한국관광공사 사장	김태연
대한체육회 부회장	김상겸
대한체육회 태릉선수촌장	이상균
대한올림픽위원회 부위원장	장주호
대한올림픽위원회 사무총장	이강평
대한올림픽위원회 상임위원	박갑철
국회의원	박종웅
국회의원	박명환
국회의원	류종수
국회의원	신기남
국회의원	황학수
서울대 교수(인류학)	전경수
고려대 교수(서반어학)	민용태

세계태권도연맹 사무총장	이금홍
대한태권도협회 부회장	김순배
대한태권도협회 부회장	이승완
대한태권도협회 부회장	황춘성
노원구청장	김용채
태권도 원로	홍종수
태권도 원로	현종명
태권도 원로	김민식
태권도 원로	이교운
태권도 원로	이용우
태권도 원로	이영섭
태권도 원로	홍정표
대한태권도협회 전 임원	박해만
태권도신문 사장	강원식
세계태권도연맹 사무차장	김영태
경희대 체육과학대학 학장	손두옥
경원대 생활과학대학 학장	장정옥
진로스포츠단 사장	정학모
서울특별시협회 회장	송복섭
부산광역시협회 회장	홍인길
대구광역시협회 회장	이종호
인천광역시협회 회장	빈종구
광주광역시협회 회장	한길진
대전광역시협회 회장	한용석
강원도협회 회장	이수길
경기도협회 회장	황광철
충청북도협회 회장	전준운

충청남도협회 회장	이종승
전라북도협회 회장	유기대
전라남도협회 회장	임형연
경상북도협회 회장	강석호
경상남도협회 회장	이순달
제주도협회 회장	고우방
대학연맹 회장	전수신
중고연맹 회장	장준웅
초등연맹 회장	안해욱
연예인	이동준
택견협회 부회장	이용복
택견지도자	정경하

자문위원명단

한국신문협회장	장재국
한국방송협회장	홍두표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	박성달
국민생활체육협의회 회장	최일홍
스포츠서울 사장	손주환
스포츠조선 사장	신동호
일간스포츠 부사장	이상우
한국스포츠TV 사장	권용중
화가	장우성
서예가	배길기

'98 방콕 아시안 게임 종목채택



지난 12월 9일 방콕에서 43개 회원국 대표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15차 아시아 올림픽 평의회(OCA) 총회에서 태권도가 정식종목으로 채택되었다.

이로써 태권도는 히로시마 아시안게임에 이어 2회 연속 정식종목으로 채택됨으로써 2002년 부산 아시안게임을 포함하면 3회 연속 채택된 것으로, 이는 사실상 아시안게임 영구종목 채택의 의미를 갖는 태권도계의 큰 경사라 할 수 있다.

세부종목에 있어서도 86년 서울 아시안게임과 94년 히로시마 아시안게임에서는 남자 8체급만이 채택되었으나, 98년 방콕 아시안게임에서는 여자 8체급이 추가 채택됨으로써 태권도의 위상 제고는 물론 여성 태권도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게 되었다.

전국체전에서 여고부와 일반부가 분리되고 소체에서도 여중부가 신설되는 등 태권도에서 여성부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증가되고 있는 시점에서 국제대회에서도 여성부 체급이 추가되었다는 것은 세계속의 태권도의 위상을 고려할 때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라 하겠다.

12월 26일에 있었던 98 방콕 아시안 게임 종목채택 축하연에서는 김운용 세계연맹총재에게 이필곤 대한태권도협회 회장이 행운의 열쇠를 증정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태권**

※방콕 아시안게임 종목채택 외교활동 경과

- '96. 6월 협회 사절단, 방콕 조직위(BAGOC) 부위원장, 사무총장 기술위원장 면담.
- 8월 태국 주재 한국대사, BAGOC위원장 면담, ATU 회장 서한전달
태국 체육청(SAT) 시찰단 7명 태권도경기 참관 및 오찬
김운용 IOC 위원, 애틀란타 올림픽 기간중 OCA 회장 및 태국 IOC위원 회동
- 9월 태국 주재 한국대사, 삼성물산 방콕 지사장, 태국 태권도협회장 면담
KOC 및 ATU, OCA 및 BAGOC에 서한 발송
- 10.21~26 한국대표시범단 OCA 회장국 쿠웨이트에 파견. (단장 이규석 이사)
- 11.3 OCA 사무국장 및 스포츠위원장 방문 초청, 상임 부회장 만찬 실시(ATU 사무총장, KOC 사무차장 배석)
- 11.10 쿠웨이트 주재 한국대사, OCA 회장 면담
- 11.15~18 한국대표시범단 방콕파견 시범 2회 실시(단장 하정호 이사)
- 12.7~9 방콕 OCA 총회 지원단 파견

연구개발특별위원회 발족

96년 10월 31일 올림픽회관 중회의실에서 위원장과 8명의 위원, 16명의 연구원으로 구성된 연구개발특별위원회가 발족되었다.

태권도의 올림픽 영구 종목화, 생활체육화, 태권도 종주국으로서의 위상정립을 위한 구체적인 소프트웨어 개발을 목표로 한 연구개발특별위원회는 홍중수 위원장을 필두로 황춘성 협회 기술심의회 의장, 전재규 국기원 기술심의회 의장, 이규석 세계태권도연맹 기술위원장, 서성갑 문체부 지원육성과장, 배영상 계명대 학생처장, 고두현 전 서울신문 국장급 기자, 유명석 전 국민일보 체육부장, 정효심 협회 여성분과위원장 등 8인의 위원과 산하 4개팀 연구원 16명 등 24명의 인원으로 구성되었다.

경기규칙연구팀은 팀장 이규석(용인대) 교수와 진중의, 강성철, 윤상화, 류병관 연구원으로 구성되었다. 이 팀의 과제는 그동안 양적 팽창의 선봉 역할을 했던 경기화 과정에서의 제반 문제들을 철저히 조명하여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올림픽 종목에 걸맞게 경기의 구조적인 모순점들을 개선해 나가는 작업을 하는 것이다.

품새개발팀은 최영렬(경희대) 교수를 팀장으로 유병철, 이재용, 정근표 연구원이 활동하게 된다. 국민의 생활속에 녹아드는 태권도가 되기 위해 가장 시급히 개선되고 발전되어야 할 부분이 품새의 개발과 보급이라고 볼때 품새개발팀의 역할과 연구결과에 많은 기대가 모아지게 된다.

수련프로그램개발팀은 조근중(한양대) 교수를 팀장으로 강신철, 임인수, 서진교 연구원이 활동하게 되는데 전국 5,200여 도장과 각급 학교, 단체의 교육프로그램이 체계적으로 짜여져 있지 못한 현실에서 이들의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연구와 그 결과가 기대된다. 유치부와 초등부의 성장발달 및 체력의 특성에 따라 세부연령을 구분하여 기본동작, 품새, 겨루기, 체력훈련 등이 포함된 다양하고도 체계적인 태권도 교육수련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역사정신연구팀은 이승국(한체대) 교수가 팀장으로 문원재, 안용규, 정국현 연구원이 활동하게 된다. 이 팀의 연구과제명은 「태권도의 사적 변천과정과 태권도 정신」으로서 태권도 역사, 철학을 연구분야로 하여 4명의 공동연구원과 3명의 연구보조원이 공동연구의 형태로 작업을 진행하게 된다.

문헌을 통한 고대 태권도 발상의 근원탐색, 조선시대, 일제시대, 해방이후의 태권도 변천과정과 수련, 시대변천에 따른 태권도 정신의 도출, 현대의 태권도 정신과 태권도의 가치성 확립을 주제로 연구를 진행하게 된다.

연구방향 및 착안사항에 대한 1, 2차 검토를 거쳐 12월 13일 보고회를 가진 연구개발특위는 월 1회 정기 보고회를 갖고 연구 진척사항에 관해 보고하며 97년 1월중 워크샵을 가질 예정이다. 그리고 97년 1/4분기중 연구결과 중간 발표회를 개최하고 같은 해 상반기중 1차 연구결과에 대한 공청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태권**



'96 정기 장학금 수여식



장학생 명단

- 서울 : 김교식(배명중), 윤귀상(서울체고)
- 부산 : 유상재(백양중), 신근우(동천고)
- 대구 : 이영목(신암중), 피주열(경상공고)
- 인천 : 문호석(관교중), 김진수(선인고)
- 광주 : 김태현(문성중), 장부식(문성고)
- 대전 : 이원영(오정중), 박정순(새일고)
- 경기 : 김진복(구운중), 서영하(효원고)
- 강원 : 김일구(강원중), 균현하(강원체고)
- 충북 : 오명우(청주중), 박명숙(미원고)
- 충남 : 김용태(예산중), 한종이(대천수상고)
- 전북 : 서광진(군산동중), 김대현(전북체고)
- 전남 : 유범용(영광법성중), 김봉준(순천공고)
- 경북 : 최영훈(경산중), 지영선(영천여자상고)
- 경남 : 김현덕(창산중), 이민기(경남체고)
- 제주 : 김신정(남주중), 이명선(서귀농고)
- 중고연맹 : 양선희(역삼중), 한동훈(한성중), 이정민(쌍문중), 전남수(경수중), 최광철(배명중), 심혜영(리라공고), 오정현(단대부고), 정재은(한림여실고), 이승재(서울체고), 박동현(송곡고)
- 대학연맹 : 이동완(한국체대), 김병태(웅인대), 김보인(경희대), 이동주(동아대)
- 경희대 : 장희성(경희대), 서기호(경희대)
- 웅인대 : 차준만(웅인대), 이원호(웅인대)
- 계명대 : 김중형(계명대), 박영미(계명대)

12월 26일 있는 (가칭) 태권도 성전 건립추진위원회 창립총회 행사에서는 96년도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 50명에게 장학금을 수여하는 뜻깊은 행사가 있었다.

장학생 대표로 중등부 양선희(역삼중), 고등부 서영하(효원고), 대학부 이동완(한체대) 학생이 각각 50만원, 100만원, 200만원의 장학금을 받았다.

올림픽스포츠로서의 태권도의 위상을 반영하여 지난해 중, 고, 대학생 36명에게 980만원을 지급하던 것을 금년부터는 50명에게 총 5천만원을 지급함으로써 수혜대상자의 폭과 수혜금액을 대폭 늘리게 되었다.

또 95년까지는 각종 대회 상위 입상선수를 대상으로 선발하였으나, 96년부터는 전국 5천여 일선도장의 태권도 수련자중에서 품행이 바르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중심으로 선발함으로써 청소년의 전인교육을 지원한다는 방침 아래, 가정형편이 어려운 중에도 성실하고 근면한 자세로 학교생활에도 충실하며 태권도를 열심히 수련하는 학생을 장학생의 기준으로 하여 선발했다. **태권**

태권도 - 한국문화 상징 CI로 선정



태권도가 세계인들에게 한국문화의 특징을 상징적으로 보여줄 「한국문화 CI(통합이미지)」의 대상으로 선정됐다.

문화체육부는 96년 3월부터 관계전문가 자문회의, 청소년, 외국인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거쳐 지난 11월 29일 한국문화 CI 후보와 이를 소재로 디자인한 CI 모델을 발표했다. 태권도 외에도 한복, 한글, 김치-불고기, 불국사-석굴암이 베스트 5에 선정되었다. 태권도는 한국인의 심신단련 및 생활체육의 무도라는 점과 정신적, 육체적 수련이 중시되는 무술인 점이 감안되었으며 2000년 시드니올림픽의 주종목으로 지정되어 있어 앞으로의 이미지 메이킹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높이 평가되었다. 또한 실제로 세계에서 가장 많이 알려진 한국문화의 이미지라는 점도 고려되었다.

국가 이미지 제고를 위한 수단으로서의 한국문화 CI는 국가이미지를 구성하는 제반요소 중에서 한국문화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는 요소로서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CI대상의 선정기준은 외국 문화 이미지와는 구별되는 '독창성'이 있어야 한다.

또 재미있고 흥미를 느낄 수 있는 '흥미유발'의 성격이 있어야 하고, 긍정적이며 인종과 종교를 초월하여 호감을 주는 '좋은 이미지'를 가져야 한다. 그리고 이해하기 쉽고 홍보하기 쉬우며 생활화될 수 있는 대상이어야 한다.

이제 태권도 CI는 우리 문화의 수준을 시각적으로 알리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서 언어의 장벽을 넘어 신속한 이해전달력을 가지고 세계인들에게 다가가게 될 것이며 마크, 로고, 캐릭터 등의 디자인 작업을 통하여 표현되어 대외적으로 우리의 문화를 나타내거나 홍보하는 매개체에 적극 활용됨으로써 우리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자랑스러운 한국문화 홍보자로서의 역할을 다하게 될 것이다. **태권**

96년도 대한태권도협회 사업실적

98 방콕아시안게임 종목 채택

94년 히로시마에 이어 연속채택(2002년 부산까지 3회 연속), 금 16개.

- 협회 지원단 파견(6월 BAGOC 방문, 12월 OCA 총회)
- OCA 사무국장 및 스포츠위원장 방문 초청(11월)
- 국가대표 시범단 파견(11월 방콕 및 OCA 회장국 쿠웨이트)

태권도발전 종합계획의 실천

- ① 태권도발전 대토론회 개최(9월, 협회창립 35주년 기념)
 - 발표 및 토론 주제 : 태권도성전 건립추진방안, 경기규칙 개선방안
 - 설문조사(응답자 185명)
- ② 연구개발특별위원회 발족(10월)
 - 위원장 홍중수, 위원 8명
 - 4개 연구팀 : 경기규칙 연구팀, 품새개발팀, 수련프로그램 개발, 역사와 정신연구팀
- ③ (가칭)태권도성전 건립추진위원회 출범(12월)
 - 명예위원장 : 김운용 WTF 총재
 - 위 원 장 : 이필곤 KTA 회장
 - 부 위원장 : 김성집 KSC 부회장, 신용선 국민체육진흥공단 부이사장, 이홍주 KTA 삼일부회장, 최창신 문체부 차관보
- ④ 발전기금의 적립(413백만원)
 - 심사추천비 수입증 경기력향상지원금(220백만원)을 제외한 잔액

지방협회 및 연맹 지원

- 심사추천비 수입증 15개 시도 및 3개 연맹이 경기력향상비 각 10백만원씩 지원
- 3개 주요대회 개최시도(전국체전, 소년체전, 대통령기 전국단체대항) 및 종교연맹에 각 10백만원씩 지원

대표선수 강화훈련

- 주니어대표선수 하계훈련 32명(7~8월, 태릉, 30일간)
- 국가대표선수 동계훈련 18명(11~12월, 태릉, 56일간)
- 국가대표 1·2진 대회파견전 훈련(5~6월, 32명)

장학사업 확대

- 95년 36명, 980만원→50명, 50백만원
- 경기력우수자 14명, 가장형편 어려운 성적우수 수련생 36명(대학 10명, 고등 20명, 중등 20명)
- 인당 대학 200만원, 고등 100만원, 중등 50만원

여성태권도 활성화

- '98년 방콕 아시안게임 여자 8체급 종목 채택(94년 히로시마 남자 8체급→98년 방콕 남자 8, 여자 8체급)
- 전국체전 97년부터 여자부→여고부·여자일반부로 분리
- 소년체전 여중부 신설(97년 시범종목)
- 국가대표 강화훈련 여성코치 선임(11월)

처우개선·부담경감

- ① 기심회·심판 수당 상향조정
 - 1일 인당 95년 35,000~40,000원→50,000원
- ② 상해보험 가입(11월 우수선수발대대회부터)
 - 중앙협회 주관 각중대회 참가선수(년간 9,000명, 보험료 32백만원)
 - 사망후유장애 30백만원, 의료비 50만원
- ③ 대회참가비 폐지 결정(97년 적용)
 - 전국종별 선수권대회 및 전국여자 개인선수권대회 1인당 6,000원 대통령기 전국단체대항대회 팀당 30,000원(96년 총수입액 15백만원)

국제교류사업

- ① 사범 해외파견 및 초청
 - 사범 파견(6개국, 6명) : 체코, 터키, 루마니아, 카타르, 불가리아, 온두라스
 - 해외유공사범 초청(18개국, 18명)
 - 해외동포선수단 초청(4개국, 42명)
- ② 시범단 파견
 - 4회 6개국 : 미국(4월), 카메룬·모리셔스(2002월드컵축구 유치지인, FIFA집행위원장, 5월), 쿠웨이트(10월), 베트남(대통령수방곡)·태국(11월)

국제대회 참가

- ① 제12회 아시아선수권대회(대표 1진, 6월, 호주 멜버른)
 - 남자1위(금 6, 은 1), 여자 1위(금 6, 은 2)
- ② 월드컵대회(대표 2진, 5월, 브라질 리오데자네이로)
 - 남자 2위(금 3, 은 1), 여자 3위(금 1, 은 3)
- ③ 제1회 세계주니어선수권대회(6월, 스페인 바르셀로나)
 - 남자 1위(금 5, 은 2), 여자 1위(금 4)
- ④ 제5회 세계대학선수권대회(9월, 러시아 생트 페테르부르크)
 - 남자 1위(금 6, 은 1), 여자 1위(금 4, 동 2)
- ⑤ 하노이 국제주니어선수권대회(9월, 선수 4명, 임원 2명)
 - 금 3, 동 1

97년도 대한태권도협회 행사 일정표

1월	9(목)~10(금) 14(화) 23(목) 25(토)~27(월) 29(수)~2월 1일(토)	제1회 피라밋태권도대회 이사회 대의원 총회 상임심판원 교육 97년도 국가대표선발예선전	이집트, 카이로 호텔신라 중회의실 대회의실 국기원
2월	12(수)~14(금) 17(월)~18(화)	97년도 국가대표선발최종전 경기규칙강습회	국기원 대회의실
3월	3(월)~8(토) 6(목)~8(토) 11(화)~14(금)	97년도 전국중별선수권대회(고등부) 97년도 월드컵태권도선수권대회 97년도 전국중별선수권대회(중·일반·여자부)	올림픽체육관 이집트, 카이로 올림픽체육관
4월	3(목)~10(목) 8(화)~10(목) 23(수)~26(토) 28(월)~30(수)	제24회 한국중·고연맹회장기대회 제9회 이란국제태권도대회 제7회 용인대총장기전국남·녀고교대회 제24회 전국대학개인선수권대회	잠실체육관 이란, 테헤란 용인대체육관 국기원
5월	4(일)~5(월) 7(수)~10(토) 17(토)~18(일) 24(토)~27(화)	제18회 어린이태권왕뽑기 전국초등대회 대한태권도협회장기대회 동아시아경기대회 제26회 전국소년체육대회	국기원 국기원 부산상고체육관 춘천실내체육관
6월	2(월)~4(수) 17(화)~21(토)	제9회 경희대총장기전국남·녀고교대회 제32회 대통령기전국단체대항대회	경희대체육관
7월	26(토)~27(일)	제18회 문화체육부장관기전국초등대회	국기원
8월	12(화)~19(화) 25(월)~27(수) 29(금)~30(토) 30(토)	문체부장관기전국남·녀중고대회 제20회 회장기전국대학대항대회 제20회 연세대총장기전국남·녀고교대회 국제친선어린이대회	국기원 연세대체육관 국기원
9월	22(월)~27(토)	제6회 국방부장관기단체대항대회	상무체육관
10월	8(수)~14(화) 25(토)~26(일)	제79회 전국체육대회 제23회 초등연맹회장기대회	마산, 양덕여중 국기원
11월	5(수)~7(금) 17(월)~23(일) 21(금)~23(일)	97년도 전국남·녀우수선수선발대회 및 98년도 국가대표선발전 제13회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및 제6회 세계여자태권도선수권대회 97년도 태권도한마당	국기원 홍콩 올림픽 2체육관

서울특별시협회

'97정기 대의원총회

서울시 태권도협회 제9대 회장으로 송봉섭(56세·현 전무이사)씨가 선출됐다. 지난 12월 19일 서울시 체육회관 대회의실에서 25개구 대의원을 비롯 중앙 대의원 등 37명의 대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97서울시 태권도협회 정기 대의원총회가 열렸다. 이날 정기총회의 주요안건인 신집행부 구성에 있어 송봉섭씨가 회장으로 선출됐고, 감사를 제외한 임원은 신임회장에게 위임했다.

신임감사로는 박원식 현감사와 최재무씨가 선출됐다. 또 96년도 예산집행 결산 및 97년도 예산안을 의결 하였다. 97년도 사업계획으로 구지회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금(월 20만원) 지급, 여자 중등부 신설 등이 논의됐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 조재영(15세·전동중학교) 선수를 비롯 중·고·대 진학 선수 29명에게 735만원의 진학 장학금이 수여됐다.

부산광역시협회

부산태권도협회-호주태권도협회와 결연

협회는 지난 11월 4일 코모도 호텔 충무홀에서 호주태권도협회와 국제교류 자매결연 조인식을 가짐으로써 부산태권도의 국제화 시대의 문을 열었다.

이날 태권도 관계자와 선수들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조인식에서 이우현 부산 협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양국간의 태권도 기술과 전술개발에 서로 협력하고 상호교류를 통해 우호를 증진시켜 나가자고 강조했다.

특히 호주협회측의 정예멤버들은 6박7일간의 일정으로 동아대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한국의 기술을 배우기 위해 겨루기 등 실전위주의 훈련속에 비지땀을 흘렸다. 또 이들은 다가오는 2000년 시드니올림픽때 남자선수 중 헤비급의 데니얼 트랜튼 선수가 올림픽에서 금메달까지 기대하고 있는 유망주라고 자랑하며 해마다 상호교류 훈련을 실시하겠다고 의지를 표명했다.

제16회 시장기타기 개인 및 구별 대회

협회에서는 지난 11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구덕실내체육관에서 500여명의 선수가 참가한 가운데 제16회 시장기타기 개인 및 구별 대회를 부산시민의 열띤 환호속에 성대히 개최했다.

이우현 협회장은 대회사에서 올해로 열여섯번째 맞는 이 대회가 해를 거듭해 갈수록 성공적으로 개최되어 태권도 발전은 물론 지역간의 균형적인 발전을 촉진시키면서 선수들의 기량도 향상되어 향토 태권도발전에 기여하고 있어 더욱 뜻깊은 대회라고 말하고 선수들이 그간 각 도장에서 갈고 닦은 실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학교와 소속팀의 명예를 빛내주기를



당부했다.

대회 첫날 고등부 플라이급 8강전에서 최재영(부산체고, 동래구)은 정중주(동천고, 서구)를 맞아 돌려차기등 다양한 발기술로 격고 4강에 진출하여 김영석(동천고, 해운대구)과의 결승 진출을 다투게 되었으며, 중등부 라이트 웰터급에서는 지난 5월 전국중·고연맹전에서 1위를 차지한 김길태(백양중, 수영구)가 이재기(반여중, 해운대구)를 2:0으로 제압, 녹슬지 않은 기량을 보였다.

승품·단 심사대회 개최

협회에서는 지난 10월 27일 구덕실내체육관에서 3,043명의 응심자가 참가한 가운데 96년 제5회 승품·단 심사대회를 실시하여 1품 1,678명, 2품 766명, 3품 152명, 1단 224명, 2단 87명, 3단 71명, 4단 56명, 5단 9명의 합격자를 배출하고 부산태권도 발전에 기여한 우수도장에 표창과 제77회 전국체전에 출전해 부산의 명예를 높인 입상자에게 포상금을 전달했다.

▲ 우수도장 표창
임영길(천인지체육관)
최종돌(해룡체육관)
권용대(전무체육관)
고영범(조양체육관)
추재석(태웅체육관)
하정호(성운체육관)

▲ 전국체전입상자
· 금메달—김민우(미들급, 동아대)/문대성(헤비급, 동아대)
· 은메달—우순재(플라이급, 금정고교)/김종원(미들급, 부산체고)/김종훈(헤비급, 부산체고)
· 동메달—정성준(페더급, 부산체고)/조재영(페더급, 배정여상)

대구광역시협회

1996년도 최우수선수권대회

협회에서는 올해 마지막 대회인 최우수선수권대회 겸 대구광역시 장기타기대회를 11월 23일 대구체육관에서 성대히 거행했다. 경기에서 앞서 서종수 협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어린 초등부 선수로부터 일부분 선수들까지 열심히 뛰 어줄 선수들에게 일일이 격려하였고 대회 임원들과 심판진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1996년도 최우수 선수로 선발된 우승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 남자 고등부
핀급: 협성고 서유황
플라이급: 오성고 김효준
밴텀급: 협성고 김형제
페더급: 협성고 이태형
라이트급: 오성고 손영철
웰터급: 협성고 김현구

미들급: 오성고 김갑동
헤비급: 오성고 현재호
▲ 남자 일반부
핀급: (주)보성 이종훈
플라이급: 물맷돌체육관 박철주
밴텀급: (주)보성 김진일
페더급: 성광체육관 강진철
라이트급: (주)보성 손원기
웰터급: 성광체육관 우정훈
미들급: (주)보성 박종범
헤비급: (주)보성 이현석
▲ 여자부
핀급: 광장체육관 정현진
플라이급: 상서여상 김진애
밴텀급: 정명여고 지은경
페더급: 그린체육관 막미정
라이트급: 그린체육관 박미정
웰터급: 경일여상 신영애
미들급: 배영여고 민지영
▲ 대구광역시장기 고등부대회 단
체 우승은 오성고가, 준우승은 협
성고가 차지하였다.

승품·단 심사대회 개최

협회에서는 10월 27일 대구실내체육관에서 승품·단 심사대회를 개최해서 2,810명의 유품·단 심사자를 배출했다.

인천광역시협회

제5회 시 교육감기 대회

10월 25일~26일 이틀간 제5회 인천광역시 교육감기 대회가 실내체육관에서 777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입상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 남자 초등부
이기욱(백학), 장민국(도화), 임성목(구월시), 채찬호(관교), 정수영(부평남), 송화섭(삼산), 이대건(삼산), 박성기(삼산), 어천웅(관교), 정현철(주안남), 임채성(동막)
▲ 여자 초등부
백소라(서곶), 전윤미(삼산), 김희란(청천), 고은진(산곡남), 최상희(논현), 오정아(산곡남), 한상미(검단), 김경희(영화), 유미정(남부), 최은숙(구월), 이소림(서면)
▲ 남중부
고성범(구월), 김종원(효성), 모기형(산곡남), 문호석(관교), 윤상호(구월), 윤상호(구월), 김천호(산곡남), 최성호(부흥), 서세용(관교), 유정환(시보), 임철민(부흥), 김종호(효성)
▲ 여중부
정지영(부흥), 최은주(청천), 강석열(계산), 박혜숙(계산), 김효민(부흥), 김연희(부흥), 염혜원(계산), 원미영(제물포), 윤정미(만수), 홍자연(계산), 김선일(부흥)

승품·단 심사

- 제9차 승품 및 승단 심사대회가 10월 27일 실내체육관에서 있었다. 1,102명이 심사에 합격했다.
- 제10차 승품 및 승단 심사대회가 11월 23일 실내체육관에서 있었다. 1,078명이 합격했다.
- 제25회 고단자(4, 5) 승단 심사대회 겸 제11차 승품 및 승단 심사대회가 12월 7일 실내체육관에서 있었다. 1,628명이 합격했다.

광주광역시협회

제9회 시장기 타기 초·중·고 대항 대회

96년도 광주의 마지막 대회인 광주시장기 태권도대회가 350명의 초·중·고등부 선수가 참가한 가운데 9.21~22일까지 이틀간의 일정으로 구동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되었다.

특히 22일은 준결승시합에 이어 승품·단심사가 함께 펼쳐져 심사장을 찾은 수련생과 학부모들에게 태권도시합의 멋진 모습을 보여주게 되어 열기가 한층 고조되었다.

이번 시합의 각 체급별 우승자와 각 부별 입상팀은 다음과 같다.

▲ 각 체급별 우승자

▲ 초등부

핀급 : 김진석(봉주초교)
플라이급 : 장상민(산수초교)
밴텀급 : 장성현(하남동초교)
페더급 : 유창혁(두암초교)
라이트급 : 박상범(대자초교)
웰터급 : 정인영(금호초교)
미들급 : 임조화(광주남초교)
헤비급 : 임준성(문화초교)

▲ 중등부

핀급 : 오동길(상무중)
플라이급 : 서복열(문성중)
밴텀급 : 최원호(상무중)
페더급 : 김성근(북성중)
라이트급 : 조장오(체육중)
웰터급 : 최고봉(상무중)
미들급 : 윤덕근(문성중)
헤비급 : 김일구(체육중)

▲ 고등부

핀급 : 김성식(체육고)
플라이급 : 김진모(체육고)
밴텀급 : 김준모(체육고)
페더급 : 이주한(문성고)
라이트급 : 고덕빈(체육고)
웰터급 : 전효연(체육고)
미들급 : 정종배(문성고)
헤비급 : 홍광석(문성고)

▲ 각 부별 입상팀

초등부 1위 : 오치초등학교
중등부 1위 : 상무중학교
고등부 1위 : 광주체육고등학교

광주협회 96년도 대의원 총회

96년 사업 및 수지결산과 임원 선출, 97년 사업계획을 심의하기 위한 대의원 총회가 12월 6일 광주광역시 체육회실에서 26명의 대의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지한 토의를 가졌다. 유영인씨(한일체육관장)의 감사보고에 이어 96년사업 및 결산보고를 통과한 후, 현 집행부 임원들이 퇴장하고, 광주의 원로관장인 김정록대 의원이 임시의장을 맡아 광주태권도계를 이끌어갈 임원선출에 들어갔다.

지난 86년 광주·전남이 분리된 후 10여년간 광주태권도협회장을 맡았던 김주훈 회장이 사임을 표명한 후, 신임회장으로 한길진씨가 다수의 지지를 받아 선출되었다.

신임 한길진 회장은 그동안 광주협회 부회장직과 체육관협의회장을 다년간 맡아오면서 태권도계를 물심양면으로 지원하는 등 태권도발전에 일익을 담당하였다.

이어서 새로운 감사로 정종기



신임회장으로 선출된 한길진 회장이 취임수락 연설을 하고 있다.

관장(화랑체육관, 도장관리분과위원장)과 김삼근 관장(덕림체육관, 질서대책분과위원장)을 선임하였다. 이어서 후속인사로 부회장선임과 상임이사진, 이사선임문제는 신임 한길진회장에게 전격 일임하였다.

승품·단심사대회

96년 마지막 승품·단심사대회가 12월 8일 1,173명의 응심자가 참여한 가운데 구동실내체육관에서 실시되었다. 영하의 날씨속에서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발휘하는 심사장의 열기는 2,000년 시드니 올림픽을 향하고 있었다.

광주협회회는 응심자중 품새 및 겨루기부문 10명의 우수자를 선



품새 및 겨루기부문 우수자

발하여 상장과 트로피를 시상하여 격려하였다.

대전광역시협회

제8회 교육감기 대회

협회는 지난 11월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다목적 체육관에서 717명의 선수들이 참가한 가운데 제8회 교육감기 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이날 개회식에서 한용석 회장은 대회사를 통하여 태권도가 모든 스포츠의 중추적 역할이 되도록 모두 진력할 것과 때와 장소를 막론하고 주위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몸과 마음을 가다듬어 주기를 당부하였으며, 박경원 교육감은 2000년 시드니 올림픽에서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것은 우리 태권도가 거둔 외교적 승리인 동시에 한국인의 긍지를 세계에 심고 태권도의 우수성을 온 세계에 더 널리 알릴 수 있는 쾌거라고 축하를 하였다.

또한 이날 개회식에서 태권도 발전에 힘써온 서원초등학교 김기호 교장, 중촌초등학교 윤창선 교장은 감사패를, 무궁화체육관 오방균 관장은 우수심판원 공로패를, 세일고등학교 이창석 교사는 우수지도자 공로패를 각각 수상했다.

교육감기 대회에서 초등부는 와동초등학교가 뛰어난 실력을 발휘하며 3연패의 위업을 달성하였고 중등부는 남선중학교, 고등부는 서일고등학교가 각각 우승의 영광

을 차지하였다.

각 부별 우승자는 다음과 같다.

▲ 초등부

박상호(서원초등)/강혁준(와동초등)/김대식(서원초등)/김재영(용남초등)/강연길(와동초등)/홍영기(홍릉초등)/박형국(둔원초등)/장재민(삼천초등)/윤병문(가양초등)/문민규(정림초등)/한상운(삼천초등)

▲ 중등부

김대규(도마중)/빈석균(남선중)/김다일(한밭중)/박은영(동중)/김웅현(대성중)/노성태(남선중)/이희찬(탄방중)/정도영(월평중)/권혁조(보문중)/김형준(전민중)/여운택(대화중)

▲ 고등부

이진성(동아공고)/김직열(유성농고)/양희명(유성농고)/윤은환(신탄진고)/윤민수(대덕공고)/송용수(서대전고)/김정호(서일고)/한승찬(동대전고)

▲ 여자부

홍은영(탄방중)/박경애(둔산초등)/류시분(서대전공고)/조남순(청담여중)/조소라(용전중)/이윤진(전민중)/엄수현(가수원중)/염현주(중일고)

제3회 협회장기 축구대회

협회는 일선 체육관 지도자 간의 친목과 우의를 다지기 위한 협회장기 쟁탈 구대항 친선 축구대회를 11월 23일 충남대학교 운동장에서 개최했다.

이날 대회는 화기 애매한 가운데 지도자 상호간에 체육관 운영 방법, 지도 방법 등의 의견을 교환

하는 등 태권도의 밝은 전망을 예측할 수 있는 하루였으며 끝까지 선전한 유성구팀이 우승, 서구팀이 준우승, 대덕구팀이 3위를 하였다.

강원도협회

전국소년체육대회 1차 평가전

지난 11월 2일~3일(2일간) 춘천 천전초등학교에서 전국 소년체전 1차 평가전을 개최하였다.

우승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편급: 고승우(강릉중)
플라이급: 이찬희(춘천중)
밴텀급: 함동현(평원중)
페더급: 박민열(평원중)
라이트급: 이민규(춘천중)
라이트웰터급: 전태웅(평원중)
웰터급: 유지상(철원중)
라이트미들급: 김일구(강원중)
미들급: 강호웅(평원중)
라이트헤비급: 안순석(철원중)
헤비급: 김봉석(정선중)

9월 15일자 심사 실시

강원지역 제4차 승품(단) 심사가 9월 15일 동해시 동해체육관에서 있었다. 이번 심사에는 총 841명이 합격하였다.

10월 29일자 심사 실시

강원 지역 제5차 승품(단) 심사가 10월 29일 속초시 통일체육관에서 있었다. 이번 심사에는 총

태권도 소식

835명이 합격하였다.

강원도 태권도인의 밤 개최

12월 21일 강원도 태권도인의 밤이 춘천 베어스타운 소양홀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각 시군지부 회장, 부회장, 전무이사들이 참석해 강원도 태권도인의 친목을 다지는 의미있는 시간이 되었다.

원주시 지부 미국 버지니아주 로아노크시와 자매결연

원주시태권도협회(회장 김수기)는 지난 10월 12일 원주를 공식방문한 미국로아노크시 방문단을 초청, 태권도시범경기를 보여줘 참석자들로부터 갈채를 받았다.

이번 시범경기는 원주시태권도 협회가 원주시 자매도시인 미국 버지니아주 로아노크시 David A. Bower시장을 비롯한 15명의 원주시방문단을 초청해 이뤄졌으며 이날 오후 2시부터 약 1시간가량 진행되었다.

70여명의 원주시 태권도 단원들이 겨루기시범, 품세시범, 격파시범 등 다양한 시범을 선보여 태권도를 처음으로 접하는 로아노크

시 방문단의 감탄과 박수를 받았다. 특히 국민학교 어린이들의 벽돌과 기와장 격파시범에서 참석자 모두가 찬사와 기립 박수를 보내며 태권도의 우수성을 인정하는 모습이였다.

이날 시범경기에는 로아노크시 방문단 15명을 비롯하여 원주시 각 기관단체장과 협회관계자등 250여명이 참석하는등 원주지역의 높은 관심을 보여주기도 했다.

원주시 태권도협회는 지난 20일 제1회 원주시어린이 태권도대회를 성황리 개최하기도 했다.

충북협회

제23회 충청북도 교육감기대회

96년 10월 27일~28일 2일간 충북 보은농공고등학교 체육관에서 제23회 교육감기 대회가 열렸다.

체급별 우승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 남중부

핀급: 황창기(청중중)

플라이급: 반재희(청중중)

밴텀급: 최승명(청중중)

페더급: 조규학(주성중)

라이트급: 함근식(청원 내수)

웰터급: 김광운(청주 서원)

미들급: 서동원(청중중)

헤비급: 김승현(청중중)

▲ 남고부

핀급: 신화강(청주체육고)

플라이급: 서동우(청주체육고)

밴텀급: 신영대(청주체육고)

페더급: 오기탁(청주기계공고)

라이트급: 이완경(청주신흥고)

웰터급: 민병기(충북체육고)

미들급: 최학중(청주체육고)

헤비급: 신학규(청주체육고)

▲ 초등학교부

1위: 충주 성남초등학교

▲ 중학교부

1위: 청주중

▲ 고등학교부

1위: 충북체육고

96년 4/4분기 승단·승품심사대회 개최

96년 12월 1일(일) 오전 9시 30분부터 청주중학교 체육관에서 4/4분기 승단·품 심사가 본도 청주, 청원, 진천, 음성지역 응시자들을 대상으로 개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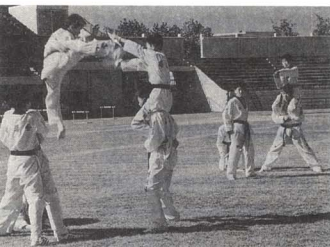
96 충북 태권도인의 밤

협회는 도내 태권도인은 물론 다른 경기단체 체육인들과도 친목과 우의를 다지고자 청주 후생사 연회장에서 '태권도인의 밤'을 개최하였다. 악천후에도 불구하고 각지에서 많은 태권도인이 참석하여 즐거운 한때를 보냈다.

특히 태권도 전 국가대표로 활약하고 현재 연예인으로 활동중인 이동준 씨가 참석하여 보다 성숙한 연예활동의 한 단면을 보여주어 더욱 뜻있는 행사가 되었다.

그리고 금년에 우수선수로 활동하거나 본도 태권도 발전에 공이 많았던 사람들에게 주는 장학금 및 공로패 수여식도 있었다. 명단은 다음과 같다.

▲ 공로패 수상자



정규포, 김경수, 이준영, 노상일, 박상규, 김상문, 송석중, 이충희, 김중은 친선협회장 등 10명

▲ 감사패 수상자

김기식 교장(청주중), 김원순(청주중 자모회장)

▲ 장학금 수혜자

어영일, 반재희, 우인평, 신영재, 이정태, 전성아, 강성일, 박동철, 양원철, 이정진, 신동선, 박호진 등 12명

중남협회

제48회 도민체육대회 개최

‘개도 100주년 새로운 출발, 함께 뛰는 충남’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도민의 화합을 다지는 제48회 충남 도민 체육대회가 10월 22일부터 24일 까지 개최되었다. 태권도 경기는 천안농고 체육관에서 치뤄졌는데 천안시가 종합우승을 차지하였고 공주시가 2위, 당진군이 3위를 차지하였다.

제5회 학생체육대회 서천군 우승

충남태권도 꿈나무들을 조기예발굴, 육성하기 위한 제5회 충남 학생체육대회가 지난 11월 1일부터 2일까지 천안농고 체육관에서 개최되었다. 1위 : 서천군 교육청, 2위 : 부여군 교육청, 3위 : 서산시 교육청

전북협회

협회는 제8회 도지사배타기 대회를 10월 28일~30일 3일간 전주실내체육관에서 개최했다.

700여명의 선수가 참가하여 열띤 경쟁을 벌인 이 대회에서 우승한 선수명단은 다음과 같다.

▲ 남자 초등부

핀급 : 김경수(대야초등)

플라이급 : 홍웅기(전주신서초등)

밴텀급 : 한득훈(전주남초등)

페더급 : 김은석(군산수송초등)

라이트급 : 김두한(전주북초등)

웰터급 : 강준석(삼천남초등)

미들급 : 김홍신(효문초등)

헤비급 : 김준환(전주북초등)

▲ 여자 초등부

핀급 : 황지은(전주남초등)

플라이급 : 최수연(인평 초등)

밴텀급 : 김주미(군산 문화초등)

페더급 : 고미진(장계남초등)

라이트급 : 홍희란(군산소룡초등)

웰터급 : 김은정(군산동초등)

미들급 : 김지수(장계남초등)

헤비급 : 박미정(신동초등)

▲ 남자 중등부

핀급 : 유재광(소성중)

플라이급 : 최봉만(군산중앙중)

밴텀급 : 김재욱(전주중)

페더급 : 박성철(전주양지중)

라이트급 : 신동기(전주중)

웰터급 : 전병철(합열중)

미들급 : 강재천(합열중)

헤비급 : 손정우(소성중)

▲ 여자 중등부

핀급 : 한보람(금산중)

플라이급 : 김성자(효정여중)

밴텀급 : 유미옥(정읍소성중)

페더급 : 강지나(공음중)

라이트급 : 장유리(고창여중)

웰터급 : 국현진(소양중)

미들급 : 정효정(고창여중)

헤비급 : 박금임(정읍소성중)

▲ 남자 고등부

핀급 : 김태현(만경고)

플라이급 : 황길재(전북체고)

밴텀급 : 최환호(만경고)

페더급 : 양수영(군산중앙고)

라이트급 : 김태정(만경고)

웰터급 : 이길도(배영고)

미들급 : 박종삼(전북체고)

헤비급 : 이우재(합열고)

▲ 여자 고등부

핀급 : 양미애(부안여상)

플라이급 : 전정화(고창여고)

밴텀급 : 김미송(고창여고)

페더급 : 박세신(정주고)

라이트급 : 기미선(고창여고)

웰터급 : 박선화(고창여고)

미들급 : 김숙영(고창여고)

헤비급 : 조양희(고창여고)

승단심사

협회는 지난 10월 27일 전주실내체육관에서 승품(단) 심사를 실시하여 1,808명의 유단자를 배출했다.

전남협회

제13회 협회장기대회 개최

협회는 10월 26일과 27일 전남 태권도훈련장에서 제13회 협회장기 대회를 개최했다.

대회는 총 245명이 출전한 가

태권도 소식

운동 성향리에 치루어졌는데 단체 우승은 여수 양지초등학교와 여수 중학교가 차지했다. 각 부별 우승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 초등부

양동국(목포동초), 유광식(광영초), 진해규(목포동초), 배재건(목포연산초), 김찬우(양지초), 김형진(동산초), 박종인(양지초), 차지열(양지초), 심영재(별량초), 민정기(양지초), 이재준(부영초)

▲ 중등부

김대명(여수중), 김일삼(여수중), 이현중(덕인중), 이성룡(여수중), 안명렬(남산중), 남윤해(별량중), 김광복(여수중), 최나현(연향중), 김태웅(남산중), 김종석(남산중), 박명재(노화중)

제17회 도지사기대회 개최

제17회 도지사기 시·군대학 전이 10월 26일과 27일 전남태권도훈련장에서 개최되었는데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많은 선수가 출전하여 기량을 겨루었다.

우승은 나주시, 준우승은 목포시가 차지했다.

제21회 전남학생종합체육대회 개최

금년 한해 동안의 전남체육을 마무리하는 제21회 전남학생종합체육대회 경기는 순천고등학교에서 개최되었다.

부별 우승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 초등부

배재현(여천북초), 양동국(목포동

초), 권훈(여천서초), 배재건(목포연산초), 김석(여수서초), 문나래(영광법성포초), 박종인(여수문수초), 오윤석(장흥안양동초), 박성배(순천연향초), 최연상(나주중앙초), 채순철(여천북초)

▲ 남중등부

김동근(순천연향중), 이길갑(영광법성중), 윤지운(여수중), 김종만(여천중), 이상민(목포유달중), 송회원(고흥과역중), 최연조(담양수북중), 임채실(여수중), 박해원(순천연향중), 김종석(순천남산중), 임동일(순천이수중)

▲ 남고부

김태균(목포상고), 박진영(광양고), 이홍석(목포상고), 이영언(목포상고), 정훈(광양고), 김광진(광양고), 이기선(광양고), 최인웅(압해중)

▲ 여고부

김태연(황산실고), 박은미(구례고), 전금희(구례고), 최영숙(구례고), 박정아(구례고)

승품(단)심사대회 개최

협회는 10월 26일 여수진남체육회관에서 심사대회를 개최하여 총 254명의 유품(단)자를 배출하였다.

11월 24일 협회는 응심자의 편의를 위해 전남태권도훈련장과 목포상고에서 승품(단)심사대회를 실시하고 총 825명의 합격자를 배출하였다.

품, 단별 합격자현황을 보면 1품 425명, 2품 162명, 3품 33명, 1단 89명, 2단 65명, 3단 29명, 4단 20명, 5단 2명이다.

경북협회

제33회 경북학도종합체육대회 포항시 종합우승

경북교육청은 10월 17일부터 19일까지 경북상주에서 학도종합체육대회를 개최하였다.

경북협회가 주관한 이 경기는 17일부터 18일까지 영천고등학교 체육관에서 중등부 116명, 고등부 73명 총 189명의 선수가 참가한 가운데 열려 포항시가 종합우승을 차지했고 영천시와 구미시가 각각 2위와 3위를 차지했다.

1996년도 경북우수선수선발대회

지난 11월 20일부터 21일까지 2일간 대구체육관에서 경북우수선수 선발대회가 열렸다.

초등부 162명, 중등부 145명, 일반부 89명, 여자부 27명 총 423명의 선수가 출전해 기량을 겨루었는데 부별 최우수선수상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초등부: 이성우(용성초등학교)

중등부: 조민호(형곡중학교)

일반부: 정지훈(경북체육고등학교)

여자부: 최미애(고령여자종합고등학교)

경남협회

제12회 교육감기 타기 시·군 교육청 대항 초·중등부 대회

개최

본회에서는 11월 5일과 6일 이틀간 마산 실내체육관에서 제12회 경상남도 교육감기 타기 시·군 교육청 대항 초·중등부 대회를 개최하였다. 시·군 대항으로 열린 이번 대회에서 초등부는 작년과 같이 금 5개, 은 1개, 동 2개로 울산시가 차지했고, 중등부는 금 3개, 은 3개, 동 2개로 마산시가 각각 종합우승을 차지했다.

부별 우승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 초등부

문영훈·김지원·김태환·이창환·서현국(울산시), 이희성·황성민(함안군), 하영주(창원시), 차제하(마산시), 김남민(거제시), 유창목(거창군)

▲ 중등부

박재형·강원철·정승권(마산시), 김병완·유창길·구은호(거제시), 박현호(창원시), 지성용(울산시), 서혜진(거창군), 허도식(진해시), 김차준(밀양시)

뒤이어 초등부에는 함안군이 금 2개, 은 1개, 동 2개로 종합 2위를 차지했고 창원시는 금 1개, 은 3개, 동 2개로 종합 3위를 차지했다.

또 중등부에서는 종합 2위로 거창군이 금 3개, 동 2개를 차지했고 창원시는 초등부와 마찬가지로 금 1개, 은 3개, 동 2개를 따서 종합 3위를 차지했다.

제129회 경남 승품·단 심사 대회 개최

본 협회에서는 12월 1일 심사

인원 5천 6백여명의 승품·단 심사를 개최했다. 이번 심사는 울산, 진주, 마산 등 3곳을 순회하면서 치러졌는데 품새와 겨루기 등의 심사를 통해 심사에 합격하고 승품·단을 획득한 사람은 모두 5,453명으로 1품 3,058명, 2품 1,509명, 3품 327명, 1단 284명, 2단 138명, 3단 94명, 4단 33명, 5단 12명이다.

한편, 12월 1일은 새벽에 경남에 첫눈이 내린 날이기도 해 심사장이 조금은 추웠지만 눈을 밝은 수많은 수련생은 마냥 즐거워하는 모습이였다.

1997년도 정기 대의원 총회 개최

협회는 지난 12월 7일(토) 11시에 개최한 1996년도 최종 이사회에 이어 1997년도 정기 대의원 총회를 오후 1시에 개최하였다.

총회의 내용은 96년 12월 31일을 만기로 임기를 마치는 이순달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들에게 심심한 감사를 표한다는 함안군 이영재 대의원의 발언을 시작으로, 태권도와 관련된 개선점이나 태권도인들이 갖추어야 할 자세에 대해 많은 대의원들이 발언을 했다.

이날 대의원총회에서 제일 중요한 안건이 되었던 것은 97년도 경남에서 개최되는 전국체전을 대비해야 하는 경남도민들의 자세와 행동들에 대한 것이었다.

경남태권도 발전과 이에 수반되는 사안들에 대해서 13년째 본회 회장직을 역임해 왔던 이순달 회장은 이날 많은 대의원들의 도움

과 배려로 96년도를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감사를 표하면서, 베트남과 자매결연을 맺어 한·베트남 수교에 국위를 선양해 정부측과 중앙협회로부터 공과에 대한 칭송을 들어온 김선규 전무이사의 공로를 높이 치하하면서 97년도를 경남협회가 더욱 도약하는 해로 만들자고 다짐을 했다.

또 21개 시·군을 대표하는 대의원들은 97년을 전국체전을 대비하는 중요한 해라고 보고 이순달 회장을 신임회장으로 연임했고 현집행부를 위임함과 동시에 총예산 364,224,099원을 원안대로 통과시킬 것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감사로는 밀양시 이병희 대의원과 사천시 정인하 대의원이 만장일치로 선출되었다.

제주도협회

제21회 전도 우수선수 선발대회

제21회 전도 우수선수 선발대회가 11월 22일부터 23일까지 서귀포 시민회관에서 협회(회장 고우방)와 서귀포시 태권도협회(회장 강동호) 공동 주최로 개최되었다. 이번 대회는 단체전 61개팀 개인전 2백67명이 출전하여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선보였다.

이번 최우수선수상은 한찬석(신천교), 손보라(삼양교), 임창룡(남주중), 고대효(제주대)가 수상했다. 지도상은 고수담(신촌교), 서배홍(남주중), 안영익(남주교), 허종환(금덕기업), 그리고 최우수

대권도 소식

심판장은 양정용씨가 받았다.

부별 단계성적 및 체급별 우승자는 다음과 같다.

▲ 단계성적

초등부 1위 : 신촌교, 2위 : 하귀교, 3위 : 효돈교

중등부 1위 : 남주중, 2위 : 오현중, 3위 : 서귀중

고등부 1위 : 남주고(단독)

일반(대학) 1위 : 금덕기업, 2위 : 제주대, 3위 : 오병철체육관

▲ 각 체급별 우승자

핀급 : 한찬식(신천교), 임창룡(남주중), 길상렬(금덕기업)

플라이급 : 이영광(도순교), 고진옥(태흥교), 함규환(남주중), 김현아(남원중), 이재우(남주고), 현희경(제주농교), 허영배(오병철체육관)

밴텀급 : 김민형(하귀교), 고성현(중문중), 김희섭(남주고), 이화진(금덕기업)

페더급 : 김형준(구업교), 서희정(삼양교), 모상현(오현중), 오민정(남원중), 양두한(남주고), 강동범(금덕기업), 권정선(한라전문대)

라이트급 : 김천권(신촌교), 박양배(남주고), 정재욱(남주고), 고대휴(제주대)

라이트웰터급 : 김문경(삼양교), 유남재(대정중)

웰터급 : 윤달호(하귀교), 임연규(서귀중앙교), 박병호(남주중), 이정아(제주여중), 정창근(남주고), 장성미(성산수교), 박진성(제주대)

라이트미들급 : 강산(제복교), 장두상(오현중)

미들급 : 김상수(신촌교), 진미화(화복교), 오광재(서귀중), 고미라

(세화중), 김수(금덕기업)

라이트헤비급 : 장명수(서귀중앙교), 김동업(서귀중)

헤비급 : 강태일(효돈교), 손보라(삼양교), 김환철(중문중), 부윤경(남원중), 현명수(남주고), 김순규(제주대)

국기원

국기원 새 정보시스템 가동

국기원 정보시스템의 가동식이 지난 11월 4일 국기원에서 김운용 원장을 비롯한 이흥주 대한태권도 협회 상임부회장, 국기원 및 태권도 관계자와 삼성측 관계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이번 새로운 전산시스템 구축에는 장비 및 프로그램 개발비용으로 약 3억 5천만원의 비용이 들었다. 이 시스템의 도입으로 국기원은 앞으로 업무능률에 향상이 예상된다. 새 시스템의 활용범위는 국내 및 해외유단자와 명예단의 효율적 관리, 중요 자료 등의 신속한 추적, 조회, 집계 및 통계 등이다.

재일본본부

척박한 일본 땅에서 태권도보급을 위해 힘써 온 재일본태권도협회가 96년 제8기 임원진을 새롭게 발족시켰다.

새롭게 발족된 제8기 재일본태권도협회 중앙본부 임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고문단 명예고문 홍성인,

상임고문 김진규,

고문 김영재, 고문 황철복,

고문 고상홍

회장 허명신

상임부회장 김천구(규슈본부장)

부회장 한유광(관서본부장)

부회장 이기백(관동본부장)

이사회 전무이사 이무문, 총무이사 이영우

사무국 국장 안달호, 부국장 김광

조, 부국장 야마시타히로유키

심사위원회 위원장 김천구(겸)

심판위원회 위원장 양신웅,

부위원장 이재원

운영위원회 위원장 오성호

교육본부위원회 위원장 강현순

기획실 실장 이기백(겸),

부실장 야마시타히로노부

홍보위원회 위원장 한동,

부위원장 강현순(겸)

감사 손민행

감사 심연환

재독일지부

협회는 지난 11월 9~10일 양일간 Krefeld 조성하 체육관에서 신인식, 표락선, 김영희 사범의 지도하에 겨루기와 시범 강습회를 성황리에 마치고 시범단원을 선발했다.

시범단 명단은 다음과 같다.

단장 : 김우선

총감독 : 최영복

사무총장 : 유병도

지도교사 : 표락선

지도교사 : 김영희

주장 : 최문규

단원 : 서필중, 광경진, 이기종, 송

영란, 송영심, 김영아, 이한중, 김추형, 김종서, 김찬형, 차현, 여민일

▲ 독일 교포신문 기사 인용

「재독대한태권도협회(회장 김우선사범)는 지난 11월 10일 크레펠트에 있는 조성하 체육관에서 재독태권도인의 15년 숙원사업이었던 『재독한인태권도시범단』의 창단식을 갖고 공식적인 출발을 선언했다.

대부분 교포 2세 유단자로 구성된 시범단은 이날 13명의 단원으로 출발했으나 앞으로 20명으로 보강하여 태권도시범을 통한 국위선양과 민족문화전통의 국제적 위상제고에 선봉장 역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앞으로 시범단은 연간 4회의 합숙훈련을 통해 기량을 닦는 한편 유럽 내에서 개최되는 체육행사는 물론 각종 문화행사에 적극 참여하여 태권도가 단순한 스포츠나 투기 종목의 호신술이 아니라 유구한 전통을 지녀온 한민족문화의 소중한 부분임을 세계가 인식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이날 창단식에는 이석인 재독한인연합회장을 비롯하여 이유향 재독대한체육회장 등 교민단체장과 태권도인들이 참석하여 시범단의 출범을 격려했으며, 독일청소년태권도 국가대표팀 감독인 신인식 사범의 특별초청 강연인 『겨루기 강의』가 있었다.

한편 2세 청년 최문규(4단)군이 주장을 맡는 태권도시범단은 전 국가대표 시범단원으로 활약한 바 있는 표락선 사범과 김영희 사

범이 교사진으로서 훈련과정을 맡게 되며 최영복 사범이 총감독으로 뒷바라지의 중책을 맡게 되었다.

재브라질지부

재브라질 대한태권도협회(회장이계준)에서는 연중행사의 하나로 제4회 여름방학을 기한 교포자녀태권도 무료강습회를 개최하고 있다. 강습기간은 96년 12월 9일부터 97년 1월말까지 2개월간이며

장소관계로 두개의 도장에서 60명씩 120명이 수련하게 된다.

수련기간동안 튼튼한 체력과 건전한 정신, 바른 예절을 가르치게 될 이 행사는 매년 교포사회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으며 본 협회에서도 한국의 열과 태권도정신을 고취한다는 자부심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96년도 태권도계의 주요 성과

- 문화체육부, 태권도를 21C 국가이미지 일류화를 위한 한국문화 CI대상 BEST 5로 선정(12월)
- 2000년 시드니올림픽 태권도 엔트리 확대(11월) : 선수 64명
→ 선수 100명, 임원 33명
- 97년 제8회 카투만두 남아시아게임 정식종목채택(11월)
- 대학교 태권도학과 증설 : 96학년도 3개 대학, 185명
→ 97학년도 5개 대학 275명
- 한체대(야간 50명), 경원대(야간 20명) 신설
- 용인대(야간 20명) 증원
- 실업팀 창단
- 보성주택(3월), 진로종합식품(6월), 대한통운(6월)
- 창단진행 : 한국가스공사, 삼성물산(97년 1월 창단)
- 국기원, 신 정보관리시스템 개통(11월)
- 단종 출력시간 1/4로 단축(1000건 8시간 → 2시간)
- DATA 용량 1000만명까지 확대
- WTF, INTERNET 홈페이지 개설(11월)
- 태권도전문 월간지 「WORLD TAEKWONDO」 창간(12월, 스포츠문화)

태권도 한마당, 그 화려한 태권도인들의 축제



지난 11월 29일 KBS 88 체육관. 3000여 관중석이 가득 찬 가운데 이필곤 대한태권도협회 회장의 대회사로 시작으로 태권도 가족의 가장 큰 축제인 태권도 한마당이 성대히 그 막을 올렸다.

500만 태권도가족의 큰 잔치인 태권도 한마당 대회는 한국뿐만 아니라 전세계에서 온 태권도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 경연을 보며 격려하고 환호하면서 태권도의 무도정신을 맞보는 축제의 한마당.

이필곤 협회 회장은 개회식 인사말을 통해 태권도 한마당은 세계 4천만명의 사랑을 받는 무도 스포츠로 성장한 태권도가 국민의 생활체육화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라고 설명하고 태권도한마당을 통해 선보이는 품새와 격파의 다양한 기술이야말로 태권도의 생활체육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해외유공 사범들과 선배 태권도인의 노고를 치하하면서 사흘간의 경연기간 동안 관중과 선수가 하나되는 즐거운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운용 세계태권도연맹 총재도 축사를 통해 보다 다양한 계층이 태권도를 일상속에서 접하고 수련할 수 있게끔 하여 한마당 행사가 국민의 축제로 승화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태권도한마당?

올해로 5회째를 맞는 이 행사는 태권도 유단품자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는 태권도인들의 큰 잔치로서 태권도가 무도로서의 본 모습을 되찾는 한편 남녀노소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생활스포츠로의 발전을 꾀하기 위해 92년 창설되었다.

품새의 절도있는 아름다움과 격파의 불가사의한 위력을 보여주며 태권도인뿐 아니라 많은 관람객에게 태권도의 진면목을 보여주고 있는 태권도 한마당 대회는 94년 한국방문의 해를 맞아 그 규모를 국제적인 행사로 확대함으로써 한국의 고유한 문화인 태권도를 관광자원으로 개발하는 초석을 마련했다. 또 해외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범들과 문화생을 초청하여 경연에 함께 참가함으로써 중주국 태권도인들과의 우애를 돈독히 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92년 총 392개팀, 1,346명이 참가하여 올림픽공원 펜싱경기장에서 첫대회를 개최한 이래 93년 88체육관에서 2회 대회가 열렸고 3회 대회는 '94 한국방문의 해를 기념하여 대한태권도협회와 한국관광공

사가 공동으로 주최하여 국내 1,408명, 해외 12개국에서 168명 등 총 1,576명이 참가한 가운데 잠실학생체육관에서 성대히 개최된 바 있다.

동시에 태권도 문화행사로 제1회 태권도 사진전시회를 열어 보다 많은 태권도인들의 동참을 유발하고 국민들 사이에 생활체육으로서의 태권도의 가치를 부각시키고자 하였다. 또 95년도 태권도 한마당은 8월 26일부터 3일간 KBS 88체육관에서 국내 1,410명, 해외 161명 총 1,571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고 부대행사로 태권도 발전을 위한 학술행사로 태권도 학술세미나(8월 25일)를 개최하기도 했다.

올해로 5회째를 맞는 태권도 한마당은 국내에서 총 1,897명, 해외 31개국 200명이 참가하여 행사규모나 참가자 면에서 태권도 동호인들 사이에서 가장 비중있는 행사로 자리매김되고 있다. 태권도계는 올해 초 새로운 집행부가 들어서면서 새로운 의욕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태권도 경기규칙 개정방안과 태권도센터 건립이라는 태권도인들이 해결해야 할 두가지 큰 과제를 놓고 「대한태권도협회 창립 35주년 기념 대토론회」를 열기도 했다.

'96 한마당은?

국내외 2천 백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치러진 이번 한마당 대회의 개최식은 김운용 세계태권도연맹 총재, 최창신 문화체육부 차관보, 최일홍 생체협회장, 신기남 국회의원 등의 외빈과 협회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되었다. 대회는 품새 및 격파 부문 경연에서 1, 2차전을 통해 입상자를 선정했고 결승진출자중에서 최고득점자를 품새왕, 묘기왕, 손격파왕, 발격파왕으로 선발했다.

손날격파, 주먹격파 결승진출자 10명이 2.5cm의 화강석 8매 격파에 도전하는 손격파왕, 송판 6매를 앞, 옆, 뒤차기로 가격하는 발격파왕, 창작품새부문 부별 최종전 참가자가 출전하여 최고득점팀을 선발하는 올해의 품새왕, 종합격파부문 부별 최종전 참가자가 출전하여 최고득점 1팀을 선발하는 묘기격파왕 등의 4개 부문에서 각 부문별 우승자에게는 해외왕복항공권이 수여되었다.

품새왕은 전남 순천 서면체육관의 임병영 외 4명, 묘기왕은 종합격파에 참가한 김선교(세계태권도선교



화강석 7매를 완파하는 놀라운 위력



멀리뛰어차기에 참가한 선수의 허공을 가르는 발길이 매섭다



공중에 정지한듯 한 공중격파 자세



필리핀에서 날아온 태권소년의 멋진 공중격파 숨씨



경품으로 삼성 냉장고를 타는 행운을 얻은 참가학생



경품추첨을 진행한 텔런트 이종준씨



이종준 상임부회장으로부터 트로피를 받고 있는 입상자들

금 태권도의 생활체육화를 피루로 느낄 수 있게 했다. 여성부 일반품세에 진출한 도산체육관 소속의 30, 40대 주부들 역시 바쁜 가사시간을 쪼개서 자기 수양에 힘쓰고 있는 태권도 가족들로서 귀감을 보여 주고 있다.

또 7형제가 태권도의 한길을 걸어가고 있는 김희공씨 형제들중에서 네명이 이번 한마당대회에 출전해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7형제 모두가 태권도 유단자이고 이 중에서 5명이 4단이상의 고단자, 도장을 운영

회), 이현준(경희대), 손격과 왕은 정재훈(장원종합체육관), 발격과는 박재천(북아현체육관)이 선발되었다. (입상자 명단: 행사기록란)

전년도에 비해 참가자가 400여명이나 증가한 이번 대회는 70세 이상의 고령자 뿐만 아니라 유치원생 선수도 있어서 참가계층의 다양성을 실감할 수 있었다. 참가 선수를 대표하여 선수선서를 한 사람들은 젊은 학생들이 아니라 69세의 이대용씨와 73세의 김갑중 할머니. 인천 노인대학에서 태권체조부문에 참가하게 되는 40여분의 할머니들은 모두 60~70세 이상의 고령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젊은이 못지않은 열정을 가지고 태권도 수련에 임함으로써 보는 이들로 하여

하는 관장이 4명이다. 만형인 김희공씨, 둘째인 김희도씨, 셋째인 김희삼씨, 여섯째인 김희관씨가 이번 한마당 대회에 출전했는데 이들중 김희도씨와 김희삼씨는 92, 93년에 격파우수자로 선발되기도 했다. '96 한마당에서는 김희도씨가 종합격파우수자로, 김희삼씨가 주먹격파 우수자로 선정되었다.

창작품새 부문에서는 7명의 중고등학생들이 '탈춤 체조'라는 특이하고도 민속적인 품새를 선보여 큰 박수를 받기도 했는데 이들은 의상도 탈춤 의상으로 맞추어 더욱 인상적이었다. 또 '트위스트킹' 음악에 맞춰 신나는 태권체조 시범을 보인 경희대 학생들은 큰 인기를 모았다.

주먹격과 부문에 참가한 김기용씨(49세)는 92년 첫 대회서부터 올해 대회에 이르기까지 5년 연속 대회에 참가해서 4년 연속 입상하는 진기록을 연출했다. 그러나 격파왕 도전에는 실패해서 아쉬움을 남겼는데 이번 대회에서도 아깝게 탈락해 내년을 기약하기도 했다. 격파 부문에 참가한 김경연씨(태권도 4단)는 36년생이다. 태권도 한마당 행사에서 환갑의 나이와 관계없이 늙슬지 않은 태권도 격파 기술을 과시한 김경연씨는 태권도 수련에 있어서는 남녀노소가 차별이 없다는 것을 입증했다.

그밖에도 외국인부에서 BENJAMIN LAU XI-ZHE라는 6살된 캐나다 어린이가 종합격파와 부문에 참가해서 태권도인의 강한 도전의식은 국적을 가리지 않는다는 것을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통해 보여주며 관중의 큰 박수를 받았다.

태권도 한마당 '96행사. 태권도 가족이 하나되는 화합과 우정의 대잔치는 97년 더욱 풍성하고 다채로운 행사를 기약하며 그 막을 내렸다.

신문과 방송을 통해 본 태권도 한마당

한마당 대회는 연례적으로 치러지는 태권도계의 가장 큰 행사인 만큼 언론의 높은 주목을 받았다. 대회 3주전 일간스포츠에 한마당 공지광고가 나간 후 일간지에서 태권도 한마당 소개와 경연취재 기사에 많은 지면을 할애했다.

또 대회 마지막날인 12월 1일에는 KBS 2-TV 스포츠뉴스 시간에 낮 2시 30분부터 3시 30분까지 1시간동안 결승전 상황이 실황중계되었다. **태권**

해외유공사범 및 동포선수단 초청

태권도한마당 '96 행사는 참가자들의 다양한 양상도 흥미로운 부분이지만 대한태권도협회가 관광공사와 함께 준비한 여러 국제 교류행사도 그 의미가 깊다.

협회는 문화체육부의 지원을 받아 11월 27일부터 12월 6일까지 10일간 20개국에서 해외유공사범을 초청하여 태권도한마당 행사 참관, 각종 체육, 문화시설을 둘러보는 행사를 가졌다.

중국, 러시아, 사할린,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동포 선수단 42명을 대상으로 한마당행사 참가, 각종 체육·문화시설 견학의 일정을 진행한 중·소 동포 태권도 선수단 초청행사도 빼놓을 수 없는 프로그램.

12월 2일 저녁 6시, 웨라톤 위커힐 호텔에서 해외유공사범 20명과 재외동포선수단, 이홍주 상임부회장과 실행이사, 최창신 문제부 차관보, 송등근 체육교류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해외유공사범 및 동포선수단 초청행사가 열렸다.

태국, 홍콩, 호주 등의 아시아 지역과 독일, 스페인, 노르웨이 등의 유럽지역, 이집트, 남아공, 탄자니아 등의 아프리카 지역, 캐나다, 멕시코, 브라질 등의 미주지역에서 태권도 보급을 위해서 뛰고 있는 사범들과 동포선수단 선수들은 1부 만찬회 해외사범 소감 발표 시간에 중·소 동포 태권도의 발전상을 확인하는 자리를 마련해준 협회측에 감사를 표했고 2부에 마련된 민속공연을 관람하면서 그간의 무용담을 나누는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태권도가 국가 CI 대상으로 선정됨에 따라 해외사범들과의 지속적인 유대를 강화하여



'97 '문화유산의 해' 홍보요원으로서 활동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행사에 참석한 해외유공사범과 동포선수단 명단은 다음과 같다.

* 해외유공사범

김상천(37. 아랍에미레이트) : 1995년 파견, '79 제4회 세계선수권대회 금메달리스트 전 모로코 주재 사범역임

송기영(57. 태국) : 1972년 파견, 전 태국협회 기술위원장 대표코치 역임, 태국 최초 태권도 보급

문명곤(40. 홍콩) : 1987년 파견, 홍콩 태권도협회 기술부위원장, 재홍콩 한인태권도협회 사무국장

김정년(46. 호주) : 1980년 파견, 호주캔버라주협회장, 호주육해공사 지도사범



한마당 관련 해외유공사범 초청 만찬. 첫줄 왼쪽부터 송동근 문체부 체육교류과장, 아르헨티나 김한창 사범, 파라과이 명덕선 사범, 김철오 전무이사, 김순배 협회 부회장, 최창신 문체부 차관보, 이흥주 상임부회장, 이승원 부회장, 이규석 이사, 중국 임원, 중국 임원, 중국 김중삼 사범, 뒷줄 왼쪽부터 카자흐 김명렬 사범, 베트남 강병권 사범, 독일 김우선 사범, 남아공 이은우 사범, 페루 이기형 사범, 태국 송기영 사범, 노르웨이 조운섭 사범, 멕시코 문대원 사범, 캐나다 윤오장 사범, 홍콩 문명곤 사범, 이집트 임한수 사범, 중국 임원(통역)

오일남(36. 인도네시아) : 1987년 파견, 제 3, 4, 5회
아시아선수권대회 금메달리스트(정부파견사범)
김우선(45. 독일) : 1979년 제독 대한태권도협회장
(현), 제독 대한체육회 사무총장 역임
조명원(52. 스페인) : 1974년 파견, 바르셀로나 교민
회장역임, 스페인태권도 한인사범협회회장 역임
조운섭(44. 노르웨이) : 1976년 파견, 노르웨이대표
팀 코치, 기술위원장
황대진(54. 핀란드) : 1978년 파견, 핀란드태권도유
니언 부회장겸 기술위원장, 핀란드 한인회장
임봉덕(32. 튀니지) : 1994년 파견, 튀니지 대표팀
코치(정부파견 사범)
임한수(39. 이집트) : 1986년 파견, 이집트 대표코치
역임(정부파견사범), 이집트경찰대학교 사범
이은우(49. 남아프리카공화국) : 1982년 파견, 전 스
와질랜드 주재사범 역임, 남아프리카 태권도연맹
기술위원, 남아공협회 기술위원장/남아공 대표감독
박인덕(44. 탄자니아) : 1990년 파견, 전 케냐 주재
정부파견사범, 현 주재국 정부파견사범, 탄자니아
경찰대학 근무
윤오장(54. 캐나다) : 1969년 파견, 재캐나다 대한태
권도협회장
문대원(53. 멕시코) : 1969년 파견, 전 멕시코 한인

회장역임, 멕시코 최초 태권도보급
이계준(46. 브라질) : 1975년 파견, 전 재브라질 대
한태권도협회장, 재브라질 대한체육회 이사
김한창(57. 아르헨티나) : 1967년 파견, 아르헨티나
태권도 최초 보급, 아르헨티나협회 기술부위원장
이기형(46. 페루) : 1980년 파견, 페루대표팀 코치,
협회부회장, 제1회 세계대회 및 아시아대회 금메
달리스트
명덕선(57. 파라과이) : 1964년 파견, 남미 최초 사
범, 파라과이태권도 최초 보급
강병권(39. 베트남) : 1988년 파견, 전 수단주재사범
(정부파견사범), 베트남협회 기술위원장
(무순)

* 해외동포선수단

중국 : 12명(김중삼, 45세, 1992년 중국파견, 현 중
국 길림체육학원 사범)
카자흐스탄 : 10명(김명렬, 34세, 1995년 파견, 카자
흐스탄 대표팀 코치)
사할린 : 10명(민태출, 40세, 사할린태권도 협회장/
임판개, 72세, 사할린태권도협회 고문)
우즈베크스탄 : 10명(백알렉, 35세, 우즈베크스탄 태권도
협회 부회장겸 사무총장) **태권**

태권도 한마당에서 확인한 父傳女傳의 숨겨

—강신철 사범 딸 강윤진 어린이—

태권도한마당 '96행사 일반품새 부문에 참가한 초등학교 1학년 어린이.

작고 앙증맞은 고사리손과 다리를 쭉 쭉 뻗으며 얹! 얹! 기합을 넣는 유난히도 눈에 띄는 여자 어린이를 보면서 관중들은 '누구네집 딸이길래 저렇게 귀엽고 씩씩하대?' 하며 한마디씩을 한다. 윤진이는 태권도 교수회 회장이며 수원에서 태권도장을 운영하고 있는 강신철 사범의 장녀다.

4살때부터 자연스럽게 아빠를 따라 도장에 다니며 태권도 수련을 한지가 벌써 햇수로 5년째. 복잡한 품새를 하나도 틀리지 않고 씩씩하게 해낼 수 있던 것도 어려서부터의 수련이 몸에 배어 있기 때문이란단.

윤진이는 이란에서 태어났다. 아버지가 이란에서 해외파견



사범으로 있을때 낳기 때문이다. 강신철 사범은 이란에서만 12년간 태권도를 지도했고 이란 태권도협회 기술위원장도 맡았었다. 그런 아빠가 윤진이는 무섭다고 한다. 평소에는 인자하고 잘 알아주시는 데 수련할때는 아주 무서워지기 때문이라나? 태권도를 배워서 좋은 게 뭐냐고 물었더니 동생 형준(5세)이를 괴롭히는 나쁜 애들을 혼내줄 수 있어서 좋단다. 태권도는 누구와 싸우기 위한 운동이 아니라는 것도 잘 알고 있는 똑똑한 아이인 윤진이는 앞으로 멋진 화가가 되고 싶다고 한다. 한마당에 참가한 또래들에게 무슨 말을 해주고 싶느냐는 질문에 인터뷰 내내 수줍어하던 윤진이는 '우리 태권도 열심히 하자!' 고 외치며 깔깔깔 웃었다.

태권도 수련에 나이가 무슨 상관?

—인천 부평노인대학 할머니들—



태권도한마당 '96행사의 개막식에서 관중들은 흰 도복을 입고 위풍도 당당하게 체육관에 들어서서 자랑스런 얼굴로 관중들에게 인사하던 40여분의 할머니들을 볼 수 있었다. 그중에는 과거에 병원에서 입원하라는 권유를 받을

정도로 가동이 불편하던 할머니도 있었고 손자뻘되는 아이들의 경연장에 왜 나가느냐고 생각하던 할머니도 있었다.

흥겨운 음악에 맞춰 할머니들이 태권체조를 선보이자 장내에서는 박수와 환호가 터져나왔고 할머니들의 얼굴에는 자부심의 미소가 번졌다. 70~80세의 고령에도 불구하고 동작에 흐트러짐이 없는 모습에서 오랫동안 꾸준히 수련에

임한 이분들의 노력을 읽을 수 있었다. 할머니들을 지도한 윤여호 관장(사진 원내)은 어려서부터 태권도를 수련해온 태권도인이고 현재 도장을 운영하고 있는 관장이다. 부평노인대학에 출강하면서 나이드신 분들의 신체에 맞는 창작품새가 스트레칭에 높은 효과를 가져온다는 믿음을 가지고 태권도를 지도하게 되었다고 한다.

윤관장은 또 할머니들이 단순한 체조에서 벗어나 도복을 입고 수련을 하게 되면서 신체의 건강뿐 아니라 태권도를 배운다는 데 대한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다고 말하고 손자, 손녀들과 태권도 수련에 대해서 함께 얘기를 나누기도 하는 등 아이들과의 대화거리도 늘어나 일거 양득의 효과를 얻고 있다고 말했다.

96년 7월에는 제주도에서 1,740명의 노인대학 학생들이 창작품새 경연대회를 갖기도 했다고 한다. 할머니의 발차기는 무서우니 제발 하지 마시라고 애원했다는 손자얘기를 하며 서로 웃는 할머니들. 이분들에게는 인생은 70부터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호주에서 온 푸른 눈의 고단자

—Robert lacconi와 친구들—

Robert lacconi는 멀리 호주 시드니에서 날아온 태권도 4단의 수련자다. 시드니에서 약 200여명의 관원들에게 태권도를 지도하고 있다고 한다. 5살된 어린이서부터 60세 가까이 된 할머니에 이르기까지 시드니에서의 태권도 열기는 굉장하다고 한다. 많은 관원들이 중주국인 한국에서 열리는 태권도한마당 대회에 참가하고 싶어 했지만 사정상 소수 정예를 선발하여 참가하게 되었다고 한다.

5명이 한 팀으로 일반품세에 참가했고 그는 주먹격과 부문에도 참가했다고. 넓은 경기장과 관중들의 환호가 매우 인상적이라고 소감을



Robert lacconi(왼쪽)와 그의 동료 David Matheson

밝혔다.

주먹격과때 다쳤는지 손마디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는데, 아프지 않냐고 물었더니 '영광의 상처'로 생각하겠다는 호주로 돌아갈때까지 씻지도 않겠다는 우스개소리를 했다.

13년간 태권도를 수련했다는 그는 태권도가 몸과 마음을 함께 닦는 운동이기 때문에 매력을 느낀다며, 여성에게 있어 태권도수련은 육체의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을 더 튼튼(?)하게 하기 때문에 유익한 운동이라고 생각한다.

도복이 외국인들에게도 무척 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

제주도에서 온 태권도 화랑들

일반품세 부문에 참가해서 입상한 화랑체육관 이민철(제주 남초등 6학년), 강수학(신제주초등 6학년), 양경필(노영초등 5학년) 학생. 그리고 이들을 지도한 이동희 관장과 고정식 코치. 한마당 행사에 참가하기 위해 멀리 제주도에서 비행기를 타고 날아온 이들은 절도있는 자세와 일상불란한 동작으로 심사위원들의 높은 점수를 받았다.

멀리서 온만큼 멋지게 해내겠다는 각오와 의지가 대단했기에 최고점수를 받지 못했다는 데 대한 실망도 커서 점수를 확인하고서는 모두 침몰한 얼굴이었고 누구(?)는 울기도 했다고.

하지만 어린이들의 동심이란게 그런걸까? 기운없이 축 처진 어깨로 앉아있다가 행운권에 당첨되었다니까 언제 그랬냐는듯 밝은 얼굴로 경품을 받으러 가는 아이들을 보니 웃음이 나올 지경이었다.

제주도에 있는 70여개의 체육관중에서 화랑체육관은 96년 우수도장으로 선정되어 상을 받기도 했다. 17년간 도장을 운영해온 이관장은 27년동안 태권도를 수련해온 태권

도인이다.

이기고 지는 것보다는 태권도 수련의 과정을 통해 배우고 깨닫게 되는 것들이 더 중요한 것임을 아이들이 태권도 한마당대회를 통해 배웠으리라 생각이 든다. **태권**



한마당에서 펼쳐진 여성들의 아름다운 품새

‘어머니 태권도 교실’

이름부터가 신선한 충격 일 정도로 호감이 간다. 초보자 주부부터 태권도 4단(김앵란, 본지94호) 주부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주부들이 자아발전을 위하여 땀을 흘리는 곳이 있다.

‘성남 푸른솔 태권도 체육관’ (관장 박진교, 6단)

푸른솔 체육관은 역사가 3년밖에 안되지만 유치부 40여명, 초등부 140명, 그리고 34명의 주부 태권도인이 엄격하고 체계적인 지도를 받고 있다.

박진교 관장은 93년, 94년, 96년 태권도 한마당의

창작품새 부문에서 우수자로 선정되었고 94년에는 태권도 2000년 시드니 올림픽 정식종목 채택 기념행사로 ‘길거리 태권도 시범’을 성남에서 4회 공연(공연자: 대한민국 태권도 지킴이 시범단)함으로써 태권도인과 시민들의 호응을 불러 일으켰던 장본인.

그가 특히 자랑스러워하는 것은 “푸른솔 어머니 태권도 교실”이다. 푸른솔 어머니 태권도 교실은 학교 그리고 관공서의 체육대회 행사에 초청을 받아 태권도 시범을 선보이고 있으며 봄과 가을은 스케줄이 밀릴 정도라고.

그리고 금번 ‘96 태권도 한마당에서는 유일하게 여성부의 창작품새(제목: 나비)로 출전하여 우수상을 수상하였다. 출전자는 9명으로 97년도 5월에 승단심사를 준비하는 태권도 3급의 실력자만 한마당에 출전을 시켰다.



자랑스런 푸른솔 어머니교실 출전자들의 얼굴. 두명은 잠시 어디(?)를 가느라...

운동시간은 매일 2시간씩이며 연령층은 27세에서 38세로 대부분 갓난아기가 있어 한마당 출전 연습에 애로사항이 많았단다. 애기를 들쳐업고 일찍와 미리 참깨우는 어머니, 하도 울어대 도복걸에 포대기를 감싸 업으며 연습에 열중하는 어머니, 운동중에 모유를 먹이며 시선은 연습에 신경쓰는 어머니.

특히, 임진하씨(27세)는 애기가 유별나게 울어 갈이 올면서도 끝까지 참여한 의지의 미씨족이다. 그렇게 어렵사리 훈련에 임한 이들.

박관장의 한마당 참전기를 잠시 들여다 보자.

「드디어 한마당 대회 2일째. 밤 사이에 전국적으로 대설이 내렸다. 어머니들의 출발 집합시간은 오전 7시. 도로가 미끄럽고 막혀 도저히 차량으로는 갈 수가 없어 전철을 이용하여 출발했다.

대회장 도착시간은 오전 10시50분. 너무 늦었다. 여성부의 창작품새 부문이 끝난 후였다.

출전자 주부들은 눈물을 글썽이며 어떡하면 좋냐고 울먹였다. 대회장으로 뛰어가 사정 이야기를 한 후 아슬아슬하게 겨우 출전의 허락을 받았다.

어머니들은 소식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쉬지 않고 체육관 한 모퉁이에서 연습을 하고 있었다.

방송으로 출전 소식을 접한 어머니들은 환호하며 기뻐했다. 여성부 창작품새에 임하는 어머니들의 모습이 아름다워 보였다. 각고의 노력을 알아 주는 듯 결승에까지 진출하였다.

대회 마지막 날인 3일째.

모든 결승 진출자들이 다 모여 들었다.

순서가 길게 잡히자 박관장이 말하지 않더라도 어머니들은 그 추운 야외테니스장에서 연습을 하고 있었다.

살을 에이는 듯한 강풍은 매서운 눈빛의 어머니들에게는 오히려 시원한 남풍의 비람이었다.

푸른솔 어머니들의 순서가 시작됐다. 유일하게 여성부 창작품새에 출전을 해서인지 관중석 사방에서 화이팅을 연호하는 등 타 체육관들의 응원을 많이 받았다.

진행자의 시작소리와 함께 푸른솔 어머니들은 일사불란한 동작으로 움직이며 1분 47초에 최선을 다했다.

약 1분여초 안에 태권도의 모든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어머니들이 얼마나 많은 연습을 거듭하였던가?

어머니들의 경연이 끝나자 심사위원들까지 박수를 쳤고 관중들은 뜨거운 갈채를 보냈다.

경연이 끝난 어머니들은 너무나 긴장을 했던 탓인지 대부분 화장실(?)로 향했다.

결과는 우수상 수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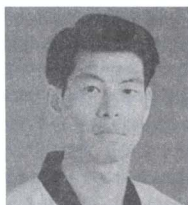
어머니들은 너무나 기뻐했다.

처음 출전하여 이렇게 큰 상을 받을 줄이야! 경기 후에 있는 파티에서 어머니들은 그동안의 고생했던



이야기와 에피소드를 나누면서 피로를 씻었고 약진의 97년도 새해를 위하여 건배를 했다.

그동안 아낌없는 노력을 해주신 어머니 교실의 전 회원, 그리고 뒤에서 응원을 보내 주신 남편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한 지도에 도움을 준 한국 태권도 교수회(강신철 회장)와 대한민국 태권도 지킴이 시범단(이강윤, 권재용)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태권**



박진교 성남 푸른솔 태권도 체육관장

태권도 한마당 '96을 통해 본 생활체육으로서의 태권도

이평엽/스포츠서울 기자



지난 94년 9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103차 IOC 총회에서 태권도가 2000년 시드니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뒤 태권도의 국제적 위상은 크게 향상됐다. 8개의 금메달이 걸린 올림픽 정식종목의 위력은 곧 세계 각국의 관심으로 표출됐고 세계태권도 연맹(WTF) 가입신청이 줄을 이었다.

그러면 세계화를 이룬 태권도는 종주국 국민들의 생활속에 얼마나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일까.

지난 11월 29일부터 3일간 KBS 88체육관에서는 96태권도한마당이 열렸다. 고사리손의 유치원생부터 80살이 넘는 노인들까지 2천여명이 참가, 성황리에 진행됐다.

첫날부터 체육관 스탠드는 가득 찼다. 인천 노인대학 소속 할머니들의 태권체조 시범, 성남 푸른솔체육관에서 나온 주부들의 창작품새 경연, 10살 안팎의 초등학생들이 카랑카랑한 기합소리로 체육관을 울리며 연출한 태권체조, 세계태권도선교회 여성부 선수들의 호신술 시범... 남녀노소가 어우러져 태권도가 생활체육으로서 뿌리내릴 수 있는 가능성을 함축적으로 보여준 축제의 한마당이였다.

그러나 생활체육으로서 태권도의 현주소를 태권도 한마당에 나타난 열기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 국내에서 3백70만 유단자가 있다고 하지만 태권도대회가 열리는 체육관엔 텅관제자와 학부모 외의 순수 관중은 거의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태권도는 속칭 '비인기종목'의 하나다. 올림픽 정식종목으로 채택된 뒤 스포츠로서의 국제적인 위상은 높아졌지만 국민적 생활스포츠로 자리매김하는 것은 아직 남아있는 과제다.

스포츠가 생활체육으로 자리잡는 데는 몇가지 요소가 필요하다.

우선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게임의 요소가 있어야 한다.

치열한 승부근성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지만 승자와 패자가 갈리고 일정한 경쟁심이 유발될 때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 있다.

테니스, 볼링, 배드민턴, 탁구 등 생활체육으로 어느 정도 제자리를 찾은 스포츠의 공통점은 승부를 겨루는 종목이라는 점이다.

승부에 대한 집착이 아니더라도 승부를 즐기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다. 그러나 생활체육으로서의 태권도는 게임의 요소가 별로 없다.

누구와 겨뤄 이기고 그것에 재미를 느껴 태권도를 배우는 경우는 많지 않다. 설사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크게 권장할 일은 못된다.

태권도의 생활체육화가 겨루기에 집중된 스포츠로서의 태권도의 별개의 문제로 다뤄져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반면 태권도는 신체, 정신수양적 요소를 듬뿍 담고 있다. 전신운동인 태권도는 청소년들의 고른 신체발

달을 유도하고 장, 노년층에선 건강유지에 더할나위 없이 좋은 운동이다. 유소년기 아이들에게 태권도수련은 두뇌발달을 촉진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온 적도 있다.

정신수양적 요소는 다른 생활체육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것이다. 기술전수외에 이른바 '태권정신'을 심어주며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갖춰야 할 인격과 예의를 가르치고 자기수양에 힘쓰도록 하는 교육적 측면은 태권도가 생활체육으로 성장할 수 있는 든든한 토대가 된다.

태권도는 또한 누구나 쉽게 배우고 즐길 수 있는 운동이다. 맨손운동으로 특별한 도구가 필요하지 않고 일정한 기간동안의 교육을 받고 나면 혼자서도 수련이 가능하다.

특정공간에서 특정인들이 하는 운동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즐길 수 있기 때문에 성장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 우수가 중국국민들의 생활속에 녹아든 것은 좋은 예다.

스포츠로서의 국제적 위상정립에만 힘써온 태권도는 이제 생활체육화 쪽으로도 눈길을 돌려야 한다. 태권도가 갖고 있는 건강스포츠로서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고 단점을 보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일부에서는 아직까지도 태권도를 격투기로 인식하고 있다. 획일화된 품새와 딱딱한 기본 동작을 완화하여 남녀노소 누구나 배우기 쉽도록 보완해야 한다. 태권도한마당 96에서 선보인 '부드러움'과 '강인함'이 조화를 이룬 창작품새와 태권체조는 기술적 측면에서 태권도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일선도장의 지도자들도 연령과 성에 따라 차별화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개발, 대중의 관심을 끌어야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태권**

아르헨티나 김한창 사범

—남미에 뿌리내린 태권도의 혼—

1967년 4월 8일, 부산 항구. 멀어지는 조국의 모습을 눈속에 새기며 긴 뱃길을 떠났던 20대 후반의 한 청년이 6월 22일 아르헨티나에 도착했다.

1인당 해의로 가지고 나갈 수 있는 한도액이 200불이었던 어려웠던

그 시절, 혈혈단신으로 이국땅에 발을 디딘 김한창 사범이 가진 것이라고는 젊다는 것에 대한 믿음과 모험심뿐이었다.

그리고 30여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 그는 50대 후반의 초로의 모습으로 국민소득 1만불 시대로 접어든 고국을 찾았다.

외국어대학교 서반어학과를 졸업하고 미지의 세계를 찾아 떠났던 젊은 시절, 낯선 곳에서 어렵사리 삶의 터전을 일구며 고국에 대한 향수로 가슴절였던 지난 시절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면서, 지난 81년 세계연맹의 초청으로 15년만에 고국땅을 밟았을 때의 감격이 되살아나는 것을 느꼈다.

그때는 공항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한국인이라는 사실이 그렇게 이상스럽고 놀라웠다고 한다. 그저 검은 머리카락만 보면 뛰어가 무조건 열싸안고 울고 싶을 정도로 한국사람에 대한 그리움이 컸었다고.

대한태권도협회의 초청으로 태권도한마당 대회를 참관하러 온 이번 방문길에서 그는 급변한 고국의 모습을 보며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한다. 지난 40여년을 만리타향에서 태권도 보급을 위해 몸바쳐 온 그



로서는 KBS 88체육관에서 3000여 관중의 환호속에 치러지는 태권도 한마당 '96 행사를 바라보는 감회가 남다를 수 밖에 없었다.

작은 고사리 주먹을 내지르는 어린아이에서부터 백발에 흰 도복이 무척이나 잘 어울

리던 할머니들, 멀리 인도, 파키스탄, 호주에서까지 날아와 자랑스런 얼굴로 경연에 참가하는 외국인 등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여 진행되는 행사를 지켜보며 종주국으로서의 자부심과 뿌듯함을 느꼈음은 물론이다.

아르헨티나에 태권도를 보급하며

그는 만주에서 나서 경상도 문경에서 자랐다. 고등학교 시절 서울에서 하숙을 함께 하던 친구들과 안국동의 청도관에서 태권도를 배우기 시작한 것이 태권도와의 40여년 인연의 시작이었다.

부산중학교 시절 야구선수도 했었던 그는 고등학교, 대학교때까지 도장에 다니며 태권도를 수련했었다. 1966년, 3단 자격증을 가진 김한창 사범은 미지의 세계로 떠나야겠다는 마음을 먹었고 이를 실천에 옮겨 남미대륙에서 삶의 터전을 닦아나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친구의 권유로 장사를 시작했다가 실패하고 나서 태권도로 승부를 걸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다.

태권도와 만난 사람들

그때까지만해도 태권도는 커녕 태극기도 알려지지 않았던 그 곳에서 그가 시작한 것은 유도도장 사범이었다. 1년간 고생하다가 가라데시합에 나가 태권도를 보여줄 기회를 갖게 되었고 그때 이후로 근방에서 가장 큰 일본 도장들에서 인터뷰 요청이 빗발치기 시작했다.

68년 2월 드디어 두 개의 도장에서 사범 한 명과 정식으로 태권도를 가르치게 되었다. 먼저 들어와 있던 가라데와 유도계의 무인들과 반목하지 않고 서로의 영역을 존중하며 무도정신을 공유했기 때문에 오히려 태권도의 입지를 굳게 하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그는 회상한다. 온화한 그의 성격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그 전 해인 67년에는 연방경찰국의 소개를 받아 경찰들에게 태권도를 가르쳤다. 처음에는 반응이 시큰둥했으나 한시간동안 장교들 앞에서 위력적인 발격파를 선보였더니 모두들 놀라워하면서 태권도를 다시 보게 되었다고 한다.

이후로 8년간을 공무원을 지도했다.

가족들

총각의 몸으로 미국땅에 건너간 그는 학교 은사의 주선으로 한국어성을 소개받아 1년간 편지를 나누었다. 그리고는 사진으로밖에 본적이 없는 여성과 1970년 아르헨티나 땅에서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다.

얼마후 부인의 친정식구들이 모두 그곳으로 이민을 왔으니 망정이지 항수병때문에 견뎌내지 못했을 거라

고. 김사범의 국위선양 공로뒤에는 부인의 많은 희생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힘든 이민생활중에도 그는 아들과 딸을 훌륭히 성장시켰다. 모두 아버지를 닮아서인지 모험심과 독립심이 강하다고 한다.

올해 26세인 그의 아들 Alejandro 김은 미대출신인데 5년간 보디빌딩으로 다져진 탄탄하고 멋진 몸매로 수도권 육체미대회에서 1위를 차지했다. 딸은

더 큰 세상을 찾고싶다며 뉴욕으로 나가 그곳에서 일하고 있다.

고국 하늘을 그리며

그는 현재 교포사회의 대부로 칭송되고 있다.

태권도계의 원로로서 상징적인 위치에 있기 때문에 거동이 더욱 조심스러울 정도다.

무예를 수련하고 지도하는 태권도사범들은 고고해보이는 자리에 있지만 그만큼 생활은 힘들수 밖에 없다. 이민자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다른 무엇도 아닌 고국에 대한 그리움이라고 한다.

김한창 사범은 이민후 15년이 지나 처음 고국을 찾았을때의 그 감격을 평생 잊을 수 없을 거라면서, 해외에서 온갖 역경과 유혹에도 굽히지 않고 민간의 교관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태권도 지도의 한 길을 가고 있는 사범들에게 보다 넓고 깊은 물심양면의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변했다. 세계속에 태권도 종주국으로서의 뿌리를 심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젊고 사명감있는 사범들에 대한 지원과 공로자들에 대한 예우가 뒤따라야 하겠다는 것이다.

또 자기수양을 위한 수련의 시간을 확보하여 사라져가는 무도정신을 되살려 경기의 재미도 살리면서 무도정신을 지켜갈 수 있는 방안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종주국이라고 기대하며 찾아왔던 외국인들이 무도와 예가 없는 것 같으며 실망하는 경우를 종종 볼때마다 안타까움을 느낀다는 것이다.

그는 다시 돌아갔지만...

자! 한 번 생각해 보자. 김한창 사범은 맨 손으로 바다를 건너 태권도 불모지였던 아르헨티나 땅에 수십만명의 태권도 유단자가 수련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었다.

여기에 평생을 바쳤다.

이제 우리 태권도 후배들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품새개발, 경기규칙 개정, 수련프로그램 개발, 역사정신 정립, 그리고 태권도 성전 건립...

태권도인들에게 도전적으로 다가오는 역사적 과제들. 태권도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은 몇몇의 힘이 아니라 태권도인들 자신임을 자각해야 할 때다. **태권**



김사범의 아들 Alejandro Kim

드라마 임궏정 주인공 정홍채

—태권도로 심신 다듬은 20세기 임궏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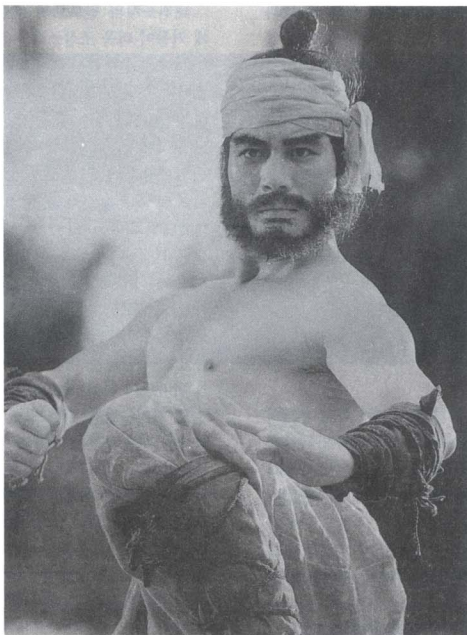
드라마를 구성하는 여러 가지 요소중에서 시청자의 관심을 끄는 중요한 요소의 하나가 극의 주인공 즉 간판스타라고 볼 때, 우리들이 눈여겨 볼 수 밖에 없는 사람이 있다.

바로 SBS가 창사특집극으로 마련한 36부작 대하드라마 「임궏정」의 주인공 정홍채. 그는 선균은 외모와 훗날한 키, 강렬한 눈빛을 가진 10년 경력의 연극배우다.

키 180cm, 가슴둘레가 120cm인 거구의 이 연기자는 임궏정을 연기하기 위해 몸무게를 20kg 더 늘릴 정도로 맡은 역에 몰입하는 성격이다.

조금의 과장을 섞어 표현하자면, 그는 임궏정을 연기하기 위해 태어난 배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완벽하게 이미지를 재현하고 있다.

임궏정.



스타 정홍채의 멋진 태권도 동작

조선 명종 때 백정의 아들로 태어나 큰 세력을 떨쳤던 당대의 풍운아.

2년간의 제작기간과 드라마 사상 최대 연기자 출연, 완전 사전제작, 방대한 스케일 등으로 그 규모만큼이나 많은 화제를 불러일으키며 인기리에 방영되고 있는 이 작품의 주인공 정홍채는 TV에서

는 신인이지만 10년여 동안 연극의 한 길을 걸어온 연극인이다.

이제, 32세의 미혼인 그가 시청자중에서도 특히 태권도 가족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이유를 밝힐 순서다.

그 역시 초등학교때부터 태권도로 몸과 마음을 다련해 온 태권도인이라는 것이 그 이유다.

하긴 대한민국 사나이치고 어린시절에 태권도 기합소리 한 번 내지르지 않고 자란 사람이 어디있을까

태권도와 만난 사람들

만은 그는 영암에서 나서 어린시절을 지나면서 태권도의 매력에 남보다 깊이 흠뻑 젖어버린 듯 하다.

TV에 나오는 마루치 아라치를 보면서 태권소년의 꿈을 키워갔다는 그. 처음에는 친구나 선배들보다 강해지고 싶어서 시작했는데 수련과정에서 예와 의를 숭상하는 무도정신을 배우면서 성격도 많이 차분해지고 의협심을 기르게 되었다고 한다.

중고등학교때 운동을 너무나 좋아해서 육상선수를 하기도 했었는데 태권도를 할때는 다리의 위력이 워낙 강해서 친구들이 자기와 대련하기를 꺼려했다며 잠시 웃는다.

가슴둘레나 다리둘레가 거의 남들의 배가 됐기 때문에 주변에선 그가 필시 운동선수가 될 것이라고들 했다고. 그런 그가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연기자 길로 들어선데는 분명 남다른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그는 이 대목에서 자라나는 어린이들을 위해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고 했다. 바로 '꿈을 잃지 말라는 것'.

그 자신이 어릴적부터 연기자 길을 꿈꾸었고 이후로 계속되는 많은 어려움앞에서도 그 꿈 한자락을 놓지 않았기에 현재의 자신이 있을 수 있었다는 얘기다.

그는 또 꿈만 있고 노력이 따르지 않는 몽상가가 아니었기에 누구보다 열심히 자기의 길을 닦았다. 그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싶은 현대무용을 8년간 쉬지 않고 배워온 것이나 태권도, 택견, 검도, 봉산탈춤 등으로 꾸준히 자신을 갈고 닦은 수련의 과정 등등, 그가 남보다 몇배나 노력하는 연기자임을 짐작할 수 있게 하는 대목은 많다.

본인이 스스로 연구하고 개발하는 자세로 말은 배역을 소화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알기에 연출자들은 그를 믿고 존중한다. '드라마 임궏정'에서도 마찬가지. 임궏정이 등장하는 장면에도 절도있는 무술의 동작이 삽입되어 시청자들에게 보여지는 것도 그러한 노력의 소산물이다.

배역과 분위기를 파악하기 위해 촬영에 들어가기 전에 원작의 관련된 부분을 서너번은 읽는다고 한다. 소탈한 웃음속에서도 번득이는 프로페셔널의 눈빛이 보인다.

드라마의 인기와 비례하여 그에게 쏟아지는 스포트라이트에 그는 의외로 담담하다. 언제나 처음 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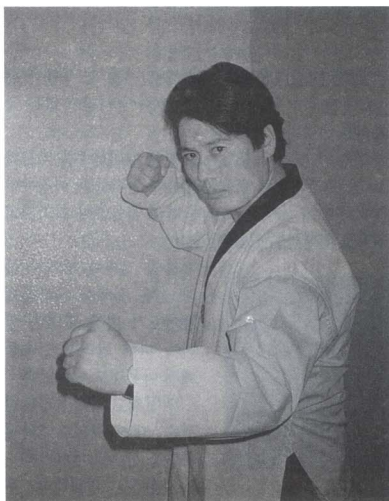
하는 자세여야 한다는 그의 겸손함 때문이다. 많은 일간지와 여성지가 그를 만났으나 이로 인해 그가 방향을 잃고 들뜨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다.

흰색이 가지는 여백의 가능성이 좋아서 흰색과 검은색의 의상을 즐기는 그를 보면 도박이 어울리는 이유를 짐작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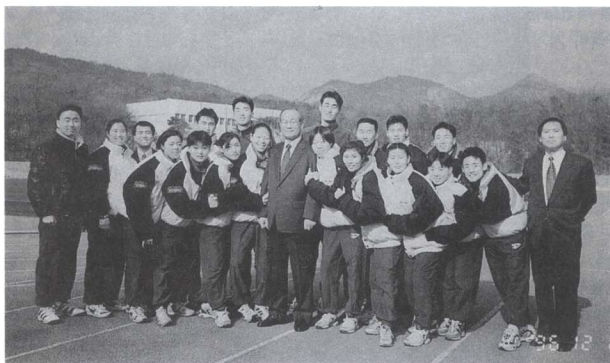
10년을 넘게 사귀어온 그의 연극 친구 김광인 씨는 아직도 그의 주장을 알지 못한다. 분위기에 휩쓸려 자신을 잃게 되는 것을 철저히 경계하는 그의 성격 때문이다. 그러한 자신의 성격과 태도는 태권도를 수련하면서 얻게 된 것이라고 그는 설명한다.

아이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느냐는 질문에, 7남매중 넷째로 자란 그는 어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은 아이들이 가진 꿈에 자신감을 실어주는 것이라고 말한다. 많은 것을 보고 느끼고 생각할 수 있게 꿈 그들만의 세계를 보호하고 존중해줘야 한다는 얘기다. 아이들을 좋아하는 그는 분명 좋은 아빠도 될 수 있을 것 같다.

지금도 그렇고 미래에도 정홍채다운 모습을 만들어가기 위한 그의 정중동(靜中動)의 움직임을 계속 지켜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태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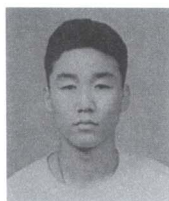
'96 하반기 강화훈련 참가 선수들을 만나다



훈련중인 대표선수 격려를 위해 선수촌을 방문한 이홍주 상임부회장과 함께 한 선수들

96년 11월 3일부터 12월 28일까지 약 두달간 태능선수촌에서 '96 하반기 강화훈련에 여념이 없는 국가대표 선수들을 만났다.

전정우, 방경애 코치가 16명의 남녀선수를 지도하고 있는 강화훈련 프로그램에서 선수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꼭 짜여진 일정에 따라 끊임없이 자기와의 싸움을 진행하고 있었다.



강남원 선수

추운 날씨에 땀겨진 볼과 손은 정해진 시간내에 들어오기 위해 젖먹던 힘까지 다해 달리는 선수들 예전 아무것도 아니었다.

인천제고 3학년 강남원 선수, 대전 새일고 3학년 우연정 선수도 마찬가지.

강선수는 경희대에, 우



우연정 선수

선수는 고려대에 진학할 예정이라고 했다. 다른고 3 수험생들은 합격여부를 놓고 가슴줄이고 있을 시기에 진학할 대학이 결정되어 좋겠다고 했더니 태권도 하길 잘했다며 웃는다. 폐터급인 강남원 선수는 용인대 총장기, 중고연맹 대회에서 체급 1위를

했고, 우선수는 경희대총장기, 전국체전, 최우수선수 선발전에서 미들급 1위를 차지했다. 우연정 선수는 초등학교때 태권도를 너무 좋아해서 아빠가 농담으로 '너, 대회에서 메달 한번만 따면 태권도 선수가 되게 해주마' 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됐으면서 아빠의 농담 한마디가 현재의 자신을 있게 했다고 느스

래를 떨었다.

강남원 선수는 얼마전 훈련도중 발목이 빠져서 잠시 쉬었다가 인터뷰하는 당일 다시 훈련을 시작했다고. 달리기 훈련이 가장 힘든데 한 선수라도 시간내 들어오지 못하면 전원이 다시 뛰어야 하기 때문.

서로 나이가 같아서인지 편하게 얘기를 주고 받으며 장난을 치는 두 선수를 보니 두달간 많이 친숙해진 듯 했다. 선수촌에서 훈련하고 있는 다른 경기단체 선수들과도 이제는 낮이 익는다고 한다.

유명한 선배를 이겼을 때가 선수생활중 가장 기억에 남는다는 강남원 선수는 가장 어려웠던 때가 언제나 물음에 체중조절을 심하게 할 때라고 대답했다. 시합을 뛰면서 판정이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때 가장 회의를 느끼게 되는데 근래는 이런 것이 많이 없어진 것 같다고.

불링을 취미로 즐기고 정국현 선배를 가장 존경한다는 강선수와는 달리 우연정 선수는 텔런트 이혼을 이상형이라고 밝혔다. 잘생기지는 않았어도 씩씩하고 귀엽다는 것이 그 이유. 대학에 가면 컴퓨터도 배우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싶다는 성실한 예비 대학생이다. 강선수도 없는 시간이라도 내서 친구도 많이 사귀고 열심히 대학생활을 하겠다고 각오가 대단하다.

코치들이 보는 선수들은 어떨까? 방경애 코치가 보는 우연성 선수는 기본기를 보완할 수 있는 머리를 가진 노력하는 선수다. 또 강남원 선수는 센스가 있고 열심히 하려는 모습이 보기 좋은 선수라고.

또 선수들이 보는 방경애 코치는 화통한 성격으로 선수들의 어려움을 들어주고 해결해주려고 하지만 엄할때는 아주 엄한 분이라고 하는데 어릴적 국가대

표시범단의 시범을 보고 감동해서 태권도를 시작하게 되었다고 한다. 전국체전에서 여고와 일반부가 분리되고 소체에도 여중부가 신설되는 등 자신이 선수생활을 할때보다 여자선수들이 경기를 뛸 수 있는 환경이 많이 좋아져 때로



전정우 코치

는 후배들이 부럽다고.

전정우 코치는 4살바가 아이의 교육에 많은 신경을 쓰는 자상한 아버지이자 선수들에게는 엄격한 코치다. 대표선발전 한 번만으로 기망있는 선수들이 탈락되는 경우도 있다면서 기망중심으로 선수를 선발할 수 있는 과정을 개발하

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화훈련을 통해서 향상된 기량으로 분발할 선수들의 활약을 기대해본다. **태권**

〈선수 명단〉

코치(남) 전정우

코치(여) 방경애

선수(남)	핀 급	김병태(용인대)
	플라이	유영택(용인대)
	밴 텀	정대영(한체대)
	페 더	강남원(인천체고)
	라이트	심기선(경희대)
	웰 터	김경훈(한체대)
	미 들	윤귀상(서울체고)
	헤 비	문대성(동아대)
(여)	핀 급	장정은(경희대)
	플라이	김보인(경희대)
	밴 텀	이선영(한체대)
	페 더	주혜원(효원고)
	라이트	이선희(고양중고)
	웰 터	김수현(리라공고)
	미 들	우연정(새일고)
	헤 비	신경현(인천시청)



방경애 코치

영재들의 태권도 수련

—충남 한일고등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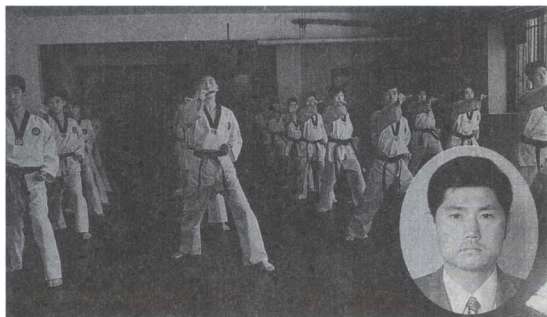
조 남 전 지역에서 서울대 최다 합격생 배출 순위 1, 2위를 다투고 있는 한일 고등학교는 지난해 216명 졸업에 서울대 합격 29명과 연·고대 60명에 이어 금년에도 서울대, 연·고대 등에 150명을 목표로 운영하고 있는 신흥 명문 학교이다. 특히 이번 수능시험에 217명 정원에 150명 이상이 280점 이상을 받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충청남도에도 있는 한일고등학교가 이렇게 신흥학교임에도 불구하고 급부상하는 까닭은 무엇일까? 분명 다른 학교와 다른 점이 있다.

그것은 전교생 기숙사 생활, 최상의 환경과 최고의 교육 시설, 자율적인 생활과 시간을 쪼개어 쓰는 밀도 높은 학습 그리고 학교가 가장 큰 중점을 두고 있는 태권도 수련을 포함한 전인교육을 들 수 있다.

전교생 기숙사 생활

기숙사는 단순히 주거만을 제공하는 곳이 아니라 자신의 생활과 학습을 관리할 수 있는 자율과 책임을 강조하고 또 체득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어 학교생활에 대한 기본적인 적응 시기인 2~3개



영재들의 진지한 태권도 수련현장(원내는 지도교사 조성담)

월이 지나면서부터는 스스로 관리하는 학습, 원해서 하는 학습이 되어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차령 산맥에서 뚫어 내린 정기가 금동산, 국수봉으로 흘러 구작골에 머물렀으니 산 좋고 물 좋고 공기까지 신선하다. 어느 누가 보아도 천혜의 요람이 아닐 수 없다. 거기애다가 면적이 10만여 평이나 되는 대지에 마치 대학 캠퍼스나 최첨단소재를 개발하는 연구소 같은 건물들이 들어섰다.

전국적인 지원율

한일고 특성 중에는 충남에 위

치하고 있으면서도 정작 충남의 학생들보다는 타 시도의 학생들이 더 많다는 사실이다. 금년도의 예를 살펴보다라도 신입생 225명 정원에 충남은 19명으로 최소의 인원임에 비하여 서울, 부산, 경기, 경남, 대전, 청주 등의 순서로 학생 수가 많으며 강원도나 제주도까지도 지원자가 없는 지역이 없을 만큼 전국적인 지역 분포를 이루고 있다.

특별 활동

차칫 집단 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획일화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활 교육을 강화하고 있

다. 주중 계속 실시되는 상설 운영 제도와 실질적인 활동을 위해 지도가 가능한 부서만을 편성하여 1 씨를 당 씨를 하나씩을 제공하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개발하여 1인 1기를 갖도록 하고 있다.

특히 1년 동안의 특별활동 내용을 발표하는 종합 예술제 성격의 10월 축제는 특별활동 내용이 형식적으로 흐르지 못하게 하는데 나름대로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 때 금녀의 집인 기숙사(현재관)에 여자 친구들을 초대하는 오픈 하우스를 비롯하여 대학 축제를 방불케하는 큰 잔치가 벌어지게 된다.

전인교육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한일고의 교장 서인경(65세) 선생은 한일고를 공부만 하고 진학만을 위해 노력하는 학교로 치부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한다.

국내 최초로 일본 수학여행을 연례 행사화함은 물론 견학을 통해 학술적, 문화적 교류를 실시해 국외로의 시각을 확대시켜 주고 있고 각종 연극, 뮤지컬, 마당놀이, 탈춤 및 사회 저명인사를 초청하여 듣는 명사 특강과 산업 시설 견학, 유적지 탐방 등을 실시한다.

또 하계 방학과 동계 방학에는 수영 및 스키캠프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정·의가 고르게 성장되어 어떤 환경이나 사회 적응은 물론 국제화, 세계화 시대에 국가의 장래를 이끌어 갈 인재로의 성장을 돕고 있다는 것이다.



학교 전경(원내는 서인경 교장)

전교생이 태권도 유단자

한일고는 공부만이 아니라 태권도도 잘하는 학교이다. 올해로 8회 졸업을 맞은 한일고는 매년 220명 정도의 졸업 인원을 감안할 때 총인원 1,660여 명의 유단자를 배출하여 대입 명문 못지 않은 태권도의 명문이기도 하다. 태권도를 교기로 체육 시간과는 별도로 주당 2시간씩 지도하고 있어 1학년이 끝나는 시기가 되면 대부분이 초단 정도를 취득하게 되며, 졸업시까지의 상당수의 학생이 2단 또는 그 이상까지 승단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는 입시와 싸우며 학습에만 전념해야 하는 일반 고등학교나 학생들과는 좋은 대조가 되고 있다.

태권도를 맡고 있는 체육 교사 조성담(38세) 선생은 국기로서의 태권도를 정신 수양과 기상의 배양만이 아니라 고교 과정의 특성상 지구력과 체력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학습지원 프로그램으로도

중시하고 있으며 실제 바람직한 성장과 진학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기타 및 단소 연주

태권도와 더불어 모든 학생들은 1학년 때는 기타 연주를, 2학년 때는 단소를 각각 배우게 하여 최소한 자기 노래에 대한 반주와 몇 곡 정도의 연주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다.

한일고의 교육은 입시 중심의 교육, 인간성을 도외시한 교육으로 몰아 세우는 우리의 교육 현실 속에서 청람체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최초의 전일제형 인문계 기숙사 학교로 유럽형 선진 교육의 개척자요 지·정·의 3요소의 균형적인 성장과 학습 효율의 밀도를 높여 가는 학교이다. **태권**

(충남 한일고등학교 홍보실장 최홍희)

20대 후반부터 50대 관장까지 참여

—광주 성인태권도 시범단—

96년 한해를 결산하는 제8회 광주광역시 생활체육대회가 지난 10월 26일부터 구동실 내체육관을 비롯하여 광주 일원의 경기장에서 3일간의 일정으로 거행되었다.

개회식을 마친 후 식후공개행사로 건강체조시범과 행사대미를 장식하는 태권도시범이 열릴 박수속에 멋진 기량을 보이며 펼쳐졌다.

광주 태권도관장의 모임단체인 체육관협의회(회장 김정록 관장, 생활체육대회 태권도경기회장)는 태권도 수련생들의 추세가 갈수록 소령화 되어가는 현실에 직면하면서 일반 청·장년과 여성들에게 태권도문화를 홍보하는 차원에서 관장들이 직접 도복을 입고 태권도시범을 보이기로 의견을 모았다.

김민철 관장(8단, 한국체육관장, 생활체육대회 태권도경기 사무국장)을 시범단장으로 정하고, 20대후반부터 50대 관장까지 다양한 연령층으로 구성된 30명의 시범단은 비록 5일간의 짧은 일정이었지만 오전시간을 이용하여 기본동작 및 품새, 약속겨루기, 격파 등 짜임새있는 훈련을 해 나갔다.

이번 시범의 첫 순서로 기본적인 방어 및 공격동작을 연결하여 품새형식으로 진행하여 일상불란한 태권도의 동작을 보여주고, 두

번째로는 선비정신을 표현한 고려 품새를 경연하였고, 다음 순서로 서로 마주서서 호신술형식으로 약속겨루기를 실시하여 관중들에게 열띤 박수를 받았다.

마지막으로 시범의 하이라이트 격파가 펼쳐졌다.

10명 연속돌려차기 격파에서는 회오리바람처럼 돌면서 송판 조각이 튀어 올랐고, 이어서 여성관장인 정문자씨(청도체육관장)와 50세의 김삼곤 관장(덕림체육관장)의 양방 손날이 연달아 송판을 격파하였으며, 유석근 관장(봉선체육관장)이 앞차기와 옆차기에 이어 몸돌려차기로 삼방격파를 하여 왕년의 솜씨를 유감없이 발휘하였다.

그 외에도 김태현 관장의 5방양격파, 장예물 이단옆차기, 가위차기 등 각종 태권도 묘기가 펼쳐져 보는 관중들로 하여금 탄성과 박수를 자아냈다.

마지막 격파는 10명 연속 격파격파였는데 격파의 발걸이 파도처럼 이어지던

서 행사의 대미를 장식하였다.

특히 이번 시범에서 3명의 여성관장인 정문자(청도체육관장), 김동희(청무체육관 시범), 고향순(원도체육관장) 씨가 모두 참여하여 호신술 및 격파시범을 보여주어 여성관중의 큰 관심을 끌기도 했다.

이번 행사를 통해 김정록 협의회장은 "일선 관장들이 바쁜 체육관 운영중에도 시간을 내어 서로 협력하고, 많은 시민들에게 태권도의 멋진 모습과 좋은 인상을 심어 주어 얼마나 뿌듯한지 모르겠다"며 앞으로의 행사때도 체육관장들을 중심으로 이러한 시범을 계속 이어가겠다고 심경을 피력하였다. **태권**

(광주협회 편집위원 이병도)



도내 대회 휩쓸며 명문 부상

—제주 신춘체육관—

제 주하면 관광도시로 이름나 있다. 제주시에서 약 20분 거리에 작은 포구에 관광재주보다 태권제주를 목표로 땀 흘리는 수련생들의 기합소리가 울려 퍼지는 곳이 있다.

바로 북제주군 조천읍 신촌리에 위치한 신춘체육관.

현재 이곳에는 초등부 70명, 중고등부 30명 등 100여명의 수련생들이 있는데 교육목표를 '인내와 사랑으로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함'으로 정하고 열심히 수련하고 있다. 1989년에 개관하여 7년 밖에 안된 기간이지만 각종 대회에서 뛰어난 성적을 올려 주위에 화제가 되고 있다.

91년부터 95년까지 북제주군 일반부 코치로 전념하다 95년 한라전문대학 생활체육과에 뒤늦게 진학한 김광장은 일반부 선수층의 열악함과 전국과의 실력차이를 실감하여 그 시기부터 초등부 선수 발굴육성에 주력하기 시작했다. 95년 5월에 개최된 제2회 전도초등학교대회 준우승을 시작으로 그 해 제20회 전도우수선수선발대회 종합우승의 기쁨을 맛보았고, 96년에는 제3회 전도초등학교대회에서 11체급중 6체급을 석권하며 종합우승을 차지하였으며 페더급의 김천권 선수가 최우수선수상을

받았다. 이어 열린 제12회 회장배 타기대회 종합우승, 올해 마지막 대회인 제21회 전도우수선수선발대회마저 이 대회 최우수선수상을 받은 한찬석 선수의 우승에 힘입어 종합우승을 차지하며 대회 2연패라는 금자탑을 세웠다.

그리고 올해 치러출전한 전국대회인 제22회 연맹회장기 전국초등학교 대회에서 라이트헤비급 김명언 선수가 금메달을 획득하였고 은메달 2개로 종합3위에 성과를 올려 주위를 놀라게 하였다.

이처럼 좋은 성과를 올리게 된 것은 1년전에 구성된 학부모 후원회(회장 고수담)의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 그리고 선수배의 조인과

격려가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

내일의 주역이 될 어린 선수들에게 승부에서 이기고 지는 것보다 최선을 다하며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사람으로 성장하라고 가르치고 싶다는 미소짓는 얼굴에서 몇년후 제주관광보다 태권제주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설 자신감이 보이는 듯 했다. **태권**

(제주도협회 편집위원 공철국)

김광범 관장



95 10 21

전교생을 태권도 유단자로

—부산 성도고등학교—

백 양산 기슭에 위치한 성도고등학교(교장 이병희)는 1978년 3월 7일 개교한 이래 16회 졸업생을 배출했고, 김운곤 재단이사장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 나날이 발전하는 학교이다.

현재 36학급인 본교는王道라는 교훈 아래 교육목표로 첫째 “예절 바른 사람”, 둘째 “학문을 사랑하고 개척정신을 가진 사람”, 셋째 “조국과 민족을 위해 봉사하는 사람”을 정하고 이병희 교장을 비롯한 전교직원들이 굳은 의지로 혼연 일체가 되어 교육에 힘쓰고 있다.

1980년대에는 축구부를 창단, 제28회 청룡기 쟁탈 전국고교축구대회에서 우승한 전적이 있으나 신설 인문고등학교로서 축구부 운영에 어려움이 많아 해체하였다. 학급당 40명에 가까운 합격자가 4년제 대학에 진학했고 이중 20여 명이 서울대에 진학했으며, 부산대 전체 수석(의예과)이 나오기도 했다.

또한 올해도 3학년 이민열군이 대입 수능고사에서 부산지역 인문계열에 전체 수석을 차지하기도 하였다. 본교는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소질과 적성, 능력에



원내는 성도고등학교 이병희 교장

맞는 진학지도에 정성을 다할 계획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태권도를 통한 체력단련에 주력하고자 96년 3월부터 본교생이면 누구나 태권도 수련을 통해 유단자가 되어 졸업하도록 했다. 이 지역에서 오랫동안 태권도 도장을 운영해 온 윤성노 사범(구포체육관장)에게 지도를 요청, 금년에는 1학년(600명)부터 태권도를 수련케 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2학년까지 확대 실시하여 강인한 체력과 인

내심, 그리고 집중력과 단결력을 배양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윤관장은 지도에 앞서 학생들에게 태권도가 우리 고유무예임을 가르치고 주인의식과 강인한 정신력, 밝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시키는데 그 역점을 두고 제자를 위해 봉사와 희생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한다. 전교생이 태권도 수련을 통한 강인한 체력을 바탕으로 훌륭한 인재로 성장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태권**

(부산 성도고등학교 홍보담당)

미래 한국을 대표할 꿈나무가 자란다

—천안 무궁화체육관—

조 효와 교육의 도시 천안시 구성동에 위치한 무궁화 체육관(관장 김봉환, 사범 홍순석) 선수단.

이들은 도내 대회 및 각종 전국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며 미래 한국을 짊어질 꿈나무들로 자라고 있다.

화제의 주인공들은 이중광(구성초등6년), 이민호() 선수들로 이중광 선수는 충남 대회(충남소년체전, 학생체전, 교육감기, 협회장기, 도지사기등, 8회 우승) 모두를 석권하였고 이민호 선수 역시 도내 대회 10회 우승을 차지하며 최우수 선수로 선발되었다.

또한 96 교보생명배 전국 어린이 태권왕 대회에서 이중광, 이민호 선수가 각각 결승에 진출, 이중광 선수가 페더급 1위, 이민호 선



도교육감대회 종합우승을 차지한 무궁화체육관 선수단과 김봉환 관장, 홍순석 사범

수가 페더급에서 2위를 차지하여 금 1, 은 1개로 종합순위에서 장려상을 수상하였으며, 제22회 전국연맹회장기대회에서 이민호, 주영환 선수가 각각 1, 2위를 차지하는 쾌거를 이룩하였다.

이들을 지도하고 있는 김봉환 관장(6단)은 인천체대를 졸업하고

현재 천안시 협회 심판이사와 충남 심판 협의회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오랜 선수활동과 뛰어난 지도력을 바탕으로 홍순석 사범과 함께 우수선수 발굴 육성에 혼신의 힘을 쏟고 있다.

또한 홍순석 사범(5단)도 충남협회 상임심판으로 우수지도자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꾸준히 연구하고 노력하는 지도자로 열과 성을 다해 선수들을 지도하고 있다.

머지 않아 무궁화 체육관 선수들이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고 환호할 그날을 기대해 본다. **태권**

(충남 김봉환 편집위원)



남아공화국의 파란 하늘 아래에서 펼쳐진 태권도 묘기



케이프타운 워터프론트에서 시범을 마치고 이은우 사범(뒷줄 왼쪽에서 네번째)과 함께 한 필자 전국수 교장(뒷줄 왼쪽에서 여덟번째)

부산 배정초등학교 태권도 시범단

나는 지금도 남아공화국 케이프타운 워터 프론트(Capetown Water Front)의 푸른 잔디밭 공연장에서 우리 학교 어린이 태권도 시범단의 묘기가 펼쳐질 때마다 터지는 관중들의 환호성과 박수갈채 속에서 가슴벅차게 느꼈던 감개무량함을 잊을 수 없다.

그 전날의 공연 때는 비 때문에 잔디밭 공연장을 이용 못하고 좁은 야외 무대에서 인원을 많이 줄

인 부자연스런 공연을 했었는데 그때와는 달리 맑게 갠 파란 하늘 아래에서 무대의 마루 바닥이 아닌 푸른 잔디밭에서 하얀 태권도복을 입고 연출하는 태권도의 묘기는 자연과 어우러진 그야말로 예술이었기에 그렇게도 관중들이 열광하게 되었던 것이다.

먼 나라 남아프리카 공화국

우리 학교 어린이선수 25명과 고시식 사범, 서울의 대한태권도협회 고국환 지도위원 그리고 나

이렇게 조직된 우리 어린이 태권도 시범단이 아프리카의 남아공화국과 스와질랜드의 순회 시범을 위해 한국을 떠난 것은 1996년 8월 2일이었다. 도중 홍콩을 경유하여 홍콩 공항을 출발한후 약 13시간 가량의 지루한 비행 끝에 남아프리카의 제일 큰 상업도시 요하네스버그 공항에 도착한 것은 현지 시각으로 8월 3일 5시 35분이었다. 이 시각은 홍콩보다는 1시간, 우리나라보다는 7시간이 늦은 시각였기 때문에 우리 나라 시각으로는 8월 3일 낮 12시 35분



인 셈이다.

비행기에서 7시간이나 더 늘어나는 밤을 보냈기 때문인지 예상 보다는 별로 피로한 느낌도 없이 요하네스버그 공항에 내려 한시간 이상이나 걸린 출국 수속을 마치고 나가니 우리를 초청해 준 이은우 관장(남아프리카 공화국 국가대표팀 감독 겸 전 아프리카 태권도 연맹 기술 위원장)을 비롯하여 정동명 회장, 그리고 요한넬 국장(남아프리카 공화국 태권도 협회 사무국장) 등 여러분들이 마중나와 있어서 반가운 악수를 나누고 아프리카에 온 것을 실감하면서 기념 촬영도 했다.

공항 출구를 빠져나오니 듣던 대로 우리 나라 초겨울 날씨 정도의 차가운 기온이 어제까지의 우리 나라 한여름과 비교되어 신기하게 느껴졌다.

T.W.R 대학 기숙사

준비된 여러대의 차량에 분승하여 한참을 달리는 동안 차창 밖으로 우리 나라 황토색깔과 비슷한 색의 언덕들이 이어지는 풍경을 보면서, 차를 손수 운전하는 정동명회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으니, 아프리카는 우리가 한국에서 짐작하고 머리속에 그리는 것과는 크게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대체로 우리가 알고 있는 아프리카는 열대의 우거진 밀림에 맹

수가 우글거리고 미개한 흑인들이 살고 있는 정도로 짐작하는데, 인구 약 400만인 요하네스버그는 그 인상부터 문화도시이며 도시의 지하는 무진장한 금광이고, 또 남아공화국 전체로 볼 때 전국토가 광활한 평원으로 이루어져 있어 무한한 발전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었다.

한참 얘기를 나누다 보니 어느덧 우리가 머무를 T.W.R 대학 기숙사에 도착했다. 규모는 크지 않았으나 잔디밭이 있고 아담한 기숙사 건물이 있었다. 대학 관계자의 안내를 받아 각자의 방을 정하고 난 후 기숙사 식당으로 가서 처음으로 그곳 음식으로 아침 식사를 했는데, 단원들 모두가 아무런 거부감 없이 잘 먹기에 정말 다행으로 여겼다.

오후 1시까지 각자의 방에서 짐을 정리하고 휴식을 취한 뒤 점심 식사를 하고 나서는 T.W.R 대학에서 약 20km 거리에 있는 라이온 파크(Lion park) 관람에 나섰다.

넓은 초원에 자리잡은 라이온 파크는 타조를 비롯하여 산양, 얼룩말 등을 방목하고 있었고, 1캠프에서 4캠프까지의 사자 캠프에는 백수의 왕도 할 일 없이 먹고 자고 소일하면 그렇게 되는 듯 웅맹 없고 느린 사자들을 구경할 수 있었다.

비오는 날 골드리프 시티에서

의 태권도 시범

8월 4일(일). 아침 6시에 전원 기상시켜 몸풀기를 하려 했으나 건기인 이곳 기후로 보아서는 정말 귀한 비가 내리고 있어 계획대로 하지 못했다.

오늘 시범공연을 하게 될 장소는 미국의 디즈니랜드에 비유될 골드리프 시티(Gold Reef City)인데 과연 비오는 날 관중이 얼마나 모일지 걱정되었다.

9시 조금 넘어 이은우 관장이 도착하여 비바람속을 헤치고 골드리프 시티로 향했다.

원래 계획은 노천에서 왕래하는 수많은 관중들을 대상으로 시범을 보이려 했으나 계속 내리는 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천막극장 안에서 공연을 하기로 하고 준비물을 챙긴 뒤 몸풀기와 시범 준비를 했다.

12시와 오후 2시 두 번에 걸쳐 시범 공연을 했는데, 날씨 관계로 기대했던만큼 관중수가 많지는 않았지만 TV방송국에서 나와 환영도 했고, 교민들도 열심히 박수를 보내주어 시범단원들은 아프리카에 태권도를 홍보하고 보급하겠다는 일념으로 모두가 거의 실수 없이 열심히 잘 해냈다.

공연이 끝난 후에는 이곳 지하의 금광 관광에 나섰다.

지하 1000m라는 안내판을 보면서 600m지점까지 내려가 안내원의 안내와 설명을 들으면서 난



생 처음으로 금광 내부를 둘러보았다. 정말 신기한 느낌으로 금 채굴에 대한 실감나는 견학을 했다.

저녁에는 이은우 관장 내외가 배푸는 만찬에서 생전 처음 먹어보는 포르투갈식 음식을 단원 모두가 푸짐하게 먹었다.

순박한 스와질랜드 사람들의 인정

8월 6일(화). 가랑비가 내리는 데도 요하네스버그를 출발하여 스와질랜드 국경을 넘어 저녁 어두운 무렵에야 숙소로 정한 스와질랜드 국립 대학 기숙사에 도착했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보니 비는 개이고 정말 구름 한점 없는 푸르디 푸르고 아름다운 하늘을 보게 되었다. 스와질랜드의 하늘은 우리나라의 가을 하늘보다 더 아름답고 하얗더니, 뭇바의 비만 아니어도 요하네스버그의 하늘도 스와질랜드와 똑같이 아름답다고 했다.

전날 저녁은 스와질랜드 태권도 협회 간부 여러분들의 호의로 중국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는데, 오늘 아침은 그러저러 10시가 되어서야 아침을 먹게 되어 우리 시범단 아이들이 배고픈 게 어떤 것인지 약간은 경험한 것 같았다.

아침 식사후 저녁에 시범 공연할 체육관(청소년 센터)에 가보니 규모는 2000석 정도의 큰 건물이었지만 매우 낡은 시설이었고 마

이크 장치도 없어 별도로 준비한다고 하기에 인구 약 100만의 왕국인 이 나라 형편을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체육관을 나와 사탕수수밭과 설탕 제조 공장을 견학하기로 하고 차를 달렸다. 상당히 오랜 시간 달리다 보니 잠목으로 이어진 야산이 끝나고 광활한 녹색 사탕수수밭 들판이 나왔다. 이 나라의 국토는 우리 나라 경상북도만 하고 산업은 주로 설탕, 옥수수, 필프, 석면 등이라고 한다.

저녁 6시로 예정된 시간에 맞추어 체육관으로 돌아와 보니 어찌된 영문인지 주최측에서 준비하는 흔적을 볼 수 없어 영문을 물어보니 이곳 사람들의 시간 관념이 대체로 그렇다고 하면서 아무래도 7시나 되어야 시작하게 될 것이라고 해 약간 실망스러웠다.

결국 저녁 7시 15분이 되어서야 공연을 시작하게 되었다. 그러나 사람들은 매우 순박한 편이어서 우리가 따로 준비한 사물놀이 에 열광하며 아낌없는 박수와 환호를 보내주었다. 또 이곳 태권도 협회 매뉴엘 피어슨 고문을 비롯한 여러분들의 친절하고도 호의적인 주선에 의해 시간은 늦었지만 정말 즐거운 저녁 식사를 했다.

8월 7일(수). 요하네스버그로 돌아가는 도중에 우리 나라 국내 TV방송이나 잡지에 한국의 시바이치로 소개된 안효정(安孝政) 박사택에서 아침 식사를 하기로 연

락이 되어 있어 스와질랜드의 수도 엘바반의 변두리 산허리에 위치한 안박사택을 찾았다.

박사택에 도착해서 안박사님 부인이 준비한 밥과 김치를 비롯하여 배추잎 찜까지 곁들인 한국 음식을 모두 즐겁게 먹었다. 때마침 돌아온 박사와 반가운 인사를 나누고 차에 올랐다.

먼 곳 케이프타운

8월 8일(목). 새벽 3시 30분경 모두 일어나 출발 준비를 서둘렀다. 4시 정각 3대의 승합차로 쌀쌀한 새벽 공기를 가르며 남으로 남으로 달렸다. 끝없이 펼쳐진 평원 위에 직선으로 시원하게 뚫린 고속도로라 시속 130~140km 속도로 계속 달렸다.

요하네스버그를 출발한 지 14시간이 지나 팔시에 도착했다.

팔시에는 우리가 케이프타운에서 공연하는 동안 머무르게 되는 카마라(J.P. Camara) 사범과 그의 체육관이 있는 곳인데, 약속한 장소에서 조금 기다리니 카마라 사범이 와서 반갑게 인사를 나누었다. 카마라 사범의 안내를 받아 그의 체육관에 도착하니 그의 약혼녀를 비롯한 관원들이 똑바로 정렬해서 우리 일행을 기다리고 있었다. 서로 인사를 나누고 미리 준비된 간단한 다과도 들었다.

잠시 여장을 풀고 어린이 단원들과 함께 약 40분 거리인 케이프

타운 시로 향했다.

이날 이후 정복진 사장의 친절 한 안내에 따라 그 이튿날 희망봉 관광을 하고, 케이프타운 라이온 산에서 이 나라의 현대통령 넬슨 만델라가 수난 시절 갇혔던 감옥 이 있는 섬을 내려다보기도 했다.

앞서 적은 바와 같이 케이프타운 워터프론트에서 2회에 걸쳐 시범 공연을 하는 동안 우리는 카마라가(Camara家)에 머물면서 신세를 많이 졌다.

8월 12일(월). 케이프타운에서의 모든 행사를 다 마치고 카마라 사범의 모든 가족들과 아쉬운 이별의 인사를 나누고, 케이프 타운 공항까지 나와 준 정복진 사장과 카마라 사범의 전송을 받으며 우리 일행은 오후 3시 정각 다시 요하네스버그로 향했다.

프레토리아에서의 마지막 시범

8월 13일(화). 저녁 6시에 남아공화국에서의 마지막 순회 시범 공연이 이 나라 행정 수도인 프레토리아에서 열리게 되어, 우리 시범단 일행은 오후 4시경 케냐에서 온 유목 관장과 함께 프레토리아로 향했다. 예약된 체육관에 도착해 보니 지금까지와는 달리 시설이 훌륭했다. 어린 단원들도 시설이 좋으니 신이 나는 모양으로 몸 움직임이 매우 가벼워 보였다.

예정된 저녁 6시가 되어가자 주 남아공화국 김영선 대사 일행과



프레토리아에서 시범을 마치고 교민회 분들과 김영선 대사 등과 함께 한 일행

노은우 교민회 회장의 도착과 함께 많은 관중들이 모여 들었다.

6시가 조금 지나 시범 행사가 시작되었는데 관중이 많고 환호성과 박수 소리가 크게 울리니 어린 선수들 모두가 신바람이 나서 거의 실수없이 훌륭한 기량들을 발휘했다. 김대사와 얘기를 나누면서 아프리카 남아공화국에서의 마지막 시범이 매우 성공적이라는 느낌에서 감회가 깊었다.

시범이 끝나고 감사패와 기념품 증정 순서도 모두 끝난 뒤 참석한 여러분들과 기념촬영을 했다.

시범 장소를 정리한 후 김영선 대사가 배운 만찬에서 한국 음식을 푸짐하게 먹으면서 여러 교민들과 함께 환담을 나누었다. 고국을 멀리 떠나와 있어 그런 점도 있겠지만 교민 모두가 우리 어린이들에게 너무나 친절하고 정다운

말을 건네주어 참으로 고마운 느낌이 들었다.

이 글을 끝맺으면서 우리 학교 어린이가 태권도 시범단의 남아공화국 순회 시범을 위하여 처음부터 끝까지 한시도 쉬지 않고 수고하여 주신 이은우 관장내외분을 비롯하여 정동명 회장내외분, 요한넬 사무국장님, 스와질랜드 태권도 협회의 여러분, 안효정 박사내외분, J.P. Camara 사범과 그의 가족 여러분, 정복진 사장내외분, 김영선 대사님과 대사관의 여러분, 노은우 회장님, 윌리 스미스 T.W.R. 체육대학장님, 김혜심 박사님을 비롯한 원불교 여러분, 그 밖에 우리 시범단 일행을 위해 헌신적으로 수고하여 주신 여러분께 이 지면을 빌어 다시금 깊이 감사드립니다. **태권** (부산 배정초등학교 교장 전국수)

제8과

태권도의 극치 <겨루기 Ⅲ>

겨루기 경기를 위한 기본 요령과 응용법

김영선/대한태권도협회 국제본부 부위원장

여러분이 품띠가 되면 다른 체육관 소속의 수련자나 어린이 각 지역 내의 체육관 대항 등의 시합에 출전할 경우도 많이 생깁니다. 겨루기 시합에 나가게 되면 갖가지 공방법 등 기술 뿐 아니라 차이 속도와 체력과 승부 근성 등 정신력까지 두루 필요로 하게 됩니다.

전국 규모급 겨루기 대회에 정기적으로 참가하는 학교 팀에 소속된 선수는 매일 3-4 시간 동안 전문적 훈련을 받습니다. 어린이 여러분 같은 일반 수련자들은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적 겨루기 실력을 갖추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글을 통해서 겨루기 단계를 올려 보도록 해 봅시다. 앞부분에는 겨루기 기본 요령과 이어서 비교적 높은 단계의 겨루기 법을 소개합니다.

◎ 겨루기의 기본 요령

겨루기를 할 때 기본적인 사항도 잘 모르고 무작정 하는 어린이가 많습니다. 심지어 품띠를 두른 상급 수련자가 겨루기를 할 때 눈을 감고 차는 등 아무렇게나 하는 경우도 종종 보입니다. 어느 분야나 마찬가지로 태권도 겨루기 역시 기본 원칙을 지켜야만 실력 향상을 꾀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을 행할 때, 서둘러서 못하는 경우는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지만 근본적으로 잘못된 문제는 다시 뜯어고치지 않으면 안됩니다. 이 장에서는 겨루기를 할 때 흔히 나오는 실수들을 지적하고 그 기본 원칙과 함께 실전에서의 응용 단계까지를 살펴보기로 합니다.

실력 향상과 안전이 겨루기의 목표

태권도의 겨루기는 차기와 지르기 등 공격기와 피하기,

막기 등의 방어기를 사용하여 상대와 직접 격투하는 것입니다. 물론 겨루기 규칙을 반드시 지켜야 하겠죠. 공격과 방어의 기본기를 바탕으로 다양한 상황에서 여러 가지 응용 기술을 펼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차이 실력을 심분 발휘하고 상대의 공격을 피하고 그 허점을 노려 역습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상대의 갖가지 공격에 대응하는 다양한 기술을 익혀야 한층 나은 실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겨루기를 할 때는 머리, 몸통, 살보대 등 보호대를 착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만일 자기 보다 실력이 훨씬 낮은 상대와 붙는다면 느린 속도로 공격하거나 끊어서 찬다든지 하여 약한 상대에게 부상을 입히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자기와 상대 모두가 부상을 당하지 않고 겨루기의 공방 기술을 맘껏 펼침으로써 실력 향상을 꾀하는 것이 겨루기를 하는 주된 이유입니다.

겨루기 규칙을 명시한다.

도장에서든 시합에 나가서든 겨루기를 하면 의당 정해진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태권도 겨루기는 규칙에 따라 최대한 안전한 상태에서 하는 격투기이며 이 과정을 통해 심신을 수양하는 방법입니다. 무엇보다도 겨루기 규칙을 이해하고 따르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어떤 기술이 득점하는 올바른 기술인지 그 반대로 경고나 감점을 받는 반칙 행위가 무엇인지를 잘 알아두어야 합니다. 얼굴을 주먹으로 치거나 허리 아래(남성)를 찬다든지 또는 머리 뒤통수나 등과 같은 몸의 뒷면을 공격하거나 넘어진 상대를 발로 찬다든지 하는 반칙은 겨루기 규칙에 의해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든지 겨루기를 하면 당연히 규칙을 따르는 정정당당한 대결이 되어야 합니다. 만일 겨루기에서 반칙을 저질

러 상대를 다치게 했다면 여간 낭패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적당한 기술이 아닌 반칙으로 상대에게 상처를 입혔다면 그야말로 큰 실수를 저지른 것입니다. 고의든 아니든 간에 반칙 행위가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겨루기 규칙을 잘 알고 익혀서 몸에 배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득·감점 내용을 정확히 익힌다.

보통 도장에서 하는 겨루기는 승패에는 상관없이 수련하지만, 겨루기를 하는 이상 승패를 염두에 두는 것이 실력 향상을 꾀할 수 있습니다. 사실 승패 그 자체의 의미보다는 득·감점 내용을 이해하고 신중한 기술 선택을 하다 보면 겨루기 실력이 부쩍 늘기 때문입니다. 어떤 공격 기술이 어떻게 적중하여 점수를 올렸고 또 어떤 경우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지를 겨루기를 하는 그 당시에 알고 익혀야 합니다. 성공적인 기술(득점 기술)은 계속 살려 나가고 좋지 못한 시도는(감점 요인) 즉각 교정하는 시행 착오를 거쳐가야 합니다. 득감점 내용에 대해 자신이 잘 판단할 수 없을 때는 사범님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공격은 좋았던 반면 어떤 때는 실수했는지를 정확히 판단하고 이해하는 길이 실력을 늘리는 지름길입니다.

경쾌한 타격 소리가 들리게 찬다.

보통 도장에서 하는 겨루기라도 득감점과 승패의 판정은 겨루기 경기에 준해서 실시합니다. 따라서 득점하는 방법도 겨루기 경기와 동일합니다. 배(복부)나 옆구리, 얼굴 등의 득점부위를 정확하고 충분한 힘으로 쳤을 때 득점으로 인정됩니다. 득점이 되고 안되고는 차는 힘이 상대의 몸에 충분히 작용했는지 아닌지를 놓고 판단합니다. 득점 여부는 상대방의 보호대를 치는 강도로 판단합니다. 득점 여부는 상대방의 보호대를 치는 강도로 판단합니다. 특히 몸통 부위의 타격 강도는 보호대를 치는 소리의 크기로 판단합니다(하지만 이 점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보호대 끝부분만 치는 소리로 충분한 타격을 가했다고 볼 수 없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즉 상대의 보호대를 칠 때 “파!” 하는 경쾌한 소리가 날 정도면 누가 봐도 득점으로 인정됩니다. 자기 공격을 할 때 보다 큰 강도를 얻기 위해서는 무릎을 접었다 펴면서 차야 합니다. 또 어떤 공격이든 체중이 실려야 더 큰 힘이 작용하는 데 차는 순간 허리를 틀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발동, 주먹 등 신체 사용 부위의 단련도 파괴력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등쪽 보다는 배(복부)쪽을 노려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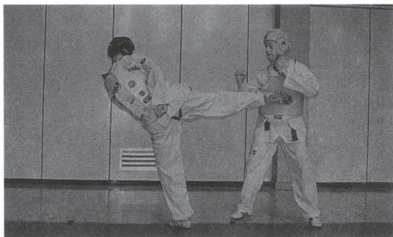
겨루기 규칙상 공격 부위로는 발로는 얼굴이나 몸통(가슴, 배, 옆구리 등)을, 주먹으로는 몸통만을 지르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공격 부위(득점부위)들은 몸의 앞쪽에 몰려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몸의 앞쪽(배쪽)에 몸통과 얼굴의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어 주된 공격 목표로 삼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상대가 겨름새를 취하면 어떤 발을 앞으로 내밀든지 배쪽이 어느 한쪽으로 가게 되므로 공격 목표를 그 방향으로 잡아 주어야 합니다. 물론 등쪽 방향쪽 옆구리나 얼굴이라고 해서 공격을 하지 못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단지 넓은 면적의 공격 부위면서 방어하기가 힘든 부위를 공격하면 그만큼 적중률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상대방이 배쪽 방향의 공격을 예상하고 받아차기를 노리고 있을 때는 상대의 함정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배쪽 부위를 주로 겨냥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등쪽 부위도 공략해야 합니다.

몸통과 얼굴 공격을 다양하게

어떤 어린이는 겨루기에서 상대의 얼굴만을 공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얼굴 공격은 상대에게 위협적이긴 하지만 자기의 발이 잘 올라간다고 무턱대고 상대의 얼굴만을 차서는 명중시키기 어렵습니다. 얼굴은 몸통보다 높은 위치에 있기에 맞추기 어렵고 또 재빨리 고개를 젖혀 피해 버리기 때문에 실력이 모자라는 상대라도 성공시키기 쉽지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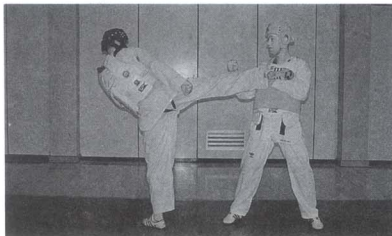
몸통의 득점부위의 배쪽과 등쪽의 비교: 몸통보호대 위에 색칠된 부분이 득점 부위(목표 부위)입니다. 그런데 사진의 자세를 비교해 보면 배쪽 부분이 훨씬 넓어 보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끔적인 몸통과 얼굴의 배쪽(앞쪽) 방향을 택해 공격하는 것이 성공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습니다.

따라서 얼굴보다는 몸통을 차는 것이 여러 면에서 유리합니다. 그 이유는 우선 성공률이 높고 상대방으로부터 역습을 당할 부담도 줄일 수 있고 또 힘도 덜 들기 때문입니다. 또 현행 겨루기 규칙에는 몸통이든 얼굴이든 공격이 성공했을 때 같은 1점을 얻기 때문에 자연히 몸통 공격이 갖게 됩니다. 그렇다고 얼굴 공격을 포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몸통 공격을 하다가 느닷없이 얼굴을 차면 상대방이 미처 예상치 못하여 공격을 성공시킬 수 있습니다. 또 상대가 공격해 들어오는 순간을 노려 내려차기로 얼굴을 차거나 또 상대의 수비가 느슨해진 틈을 타서 얼굴 공격을 시도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몸통과 얼굴 공격의 비율이 적절히 조절 되면 보다 큰 공격력을 얻습니다. 그 비율이 꼭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만 10번을 공격한다면 7번 정도는 몸통에, 3번 정도는 얼굴을 공격하는 것이 적당한 듯 합니다.

정확한 높이로 목표 부위를 차라.

차기의 기본이기도 한 이 원칙은 겨루기에서 흔히 무시되기가 쉽습니다. 공격을 할 때 얼굴 부위와 몸통 부위를 구별하여 정확한 높이로 차야 합니다. 차는 높이를 생각하지도 않고 무조건 공격하는 어린이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어중간한 높이로 차게 되면 상대방의 가슴 부위를 막고 있는 팔이나 어깨를 맞게 되고 그러한 차기 공격은 아무런 소용없는 에너지의 낭비일 뿐입니다. 또 차기가 너무 낮아서 엉덩이나 사타구니를 차는 것은 실력의 미숙함을 잘 나타내는 것입니다. 평상시 상대의 목표 부위를 겨냥하여 정확한 높이로 차는 감각을 길러야 합니다. 겨루기에서 맞서



높이 조절이 잘못된 돌려차기: 차기의 높이를 맞추지 못하면 상대의 팔 위 즉 지키고 있는 팔 위를 차게 되어 공격이 무위로 끝나게 됩니다. 얼굴까지 더 높이 차든지 아니면 몸통 부위라면 배부위나 엉구리 부분을 겨냥해야 합니다.

는 상대의 키에 따라 당연히 차는 높이도 조절해야겠죠.

무의미한 연속 공격을 피하라.

공격하는 횟수가 많다고 꼭 좋은 것은 아닙니다. 어떤 타격이든 정확성은 물론 위력이 실려 있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에너지의 낭비가 되고 맙니다. 빠르고 연속적인 공격이라도 유효타(점수를 올릴 만큼 정확하고 충분한 타격력)가 되지 않는다면 별 소득이 없습니다. 공격이 성공하려면 찬스나 적절한 타이밍을 노려야 합니다. 타이밍을 생각하지 않고 무작정 남발하는 연속 공격은 부정확하여 무위로 끝나기 쉽습니다. 한 번이라도 기회를 노려 제대로 차는 것이 낫습니다. 계속적인 연발 공격보다 안정성이 높은 상태에서 정확하고 위력 있는 단일 공격이 성공률이 높은 이유가 이 때문입니다.

공격 중에는 상대 반격에 유의한다.

태권도 겨루기에서 먼저 공격하는 것보다(선제공격)보다 상대가 공격하기를 기다렸다가 받아차기 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공격자가 공격에 신경을 집중하다 보면 허점을 노출시키는 때문입니다. 또 차기를 한 후 몸의 균형을 잡는 순간에 반격을 당할 여지가 늘 존재합니다. 따라서 공격 중에도 상대의 반격에 대비해야 합니다. 앞발을 내딛는 예비동작을 취하거나 느린 차기 동작은 상대에게 반격의 기회를 주게 됩니다. 또 얼굴 방어를 소홀히 하거나 팔을 벌리고 몸통 부위를 노출시키는 것은 허점투성이 됩니다. 게다가 공격을 한 후 수비 동작 또는 연결 기술로 전환이 늦어지는 것은 상대에게 반격의 기회를 제공하게 되므로 반드시 고쳐져야 합니다.

몰러딘기와 도망치는 것과는 다르다.

몸을 뒤로 움직여 몰러딘기를 하는 것과 '도망치는 것'과는 크게 다릅니다. 몰러딘기는 상대의 공격에 대해 받아차기를 할 목적으로 상대 공격을 피하고 뒤이어 반격 기회를 노리는 작전입니다. 이와는 달리 무조건 몸을 피하는 식의 뒷걸음질은 도망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상대의 실력이 월등하여 공격을 해 오면 겁먹고 발다란 대책 없이 뒤로 물러난다면 도망치는 경우가 됩니다. 상대가 공격에 지레 겁먹고 몸을 뒤로 피하고 보자는 의도를 나타낸 도망은 아무런 저항도 대응도 취하지 못하는 나약한 상태를 나타냅니다.

다 (겨루기 경기에서 등을 보이고 피하거나 경계선 밖을 나가는 행위는 경고 감점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면 상대는 이쪽의 약한 면을 간파하여 물러나는 것을 계산하고 연결차기 공격으로 몰아치게 되면 더욱 곤경에 빠질 위험이 커집니다. 한걸음 두걸음까지는 '작전상 후퇴'로 볼 수는 있지만 세 걸음 이상 뒤로 물러난다면 싸움 의사를 잃고 패배를 자인하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평소 연습에서 물러당기에 이은 받아차기 기술을 익혀 두면 큰 도움이 됩니다.

앞다리를 들고 뒷걸음질치지 않는다.

겨루기를 할 때 앞다리를 들어서 방어하면서 뒷걸음치는 모습도 종종 보입니다. 상대가 위협적인 공격을 펼치면 별 대책 없이 이 자세를 취하는 것은 그다지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실력이 부족한 사람이 궁지에 몰릴 때 이 엉거주춤한 자세를 취하여 위기를 모면하려는 의도로 실력 향상에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고 잘못된 습관으로 굳어지기 쉽습니다.

상대방의 공격에 대해 무릎으로 몸통을 막고 별 위력도 없는 앞발 공격을 하는 것은 소극적인 저항에 불과한데다 상대와 부딪쳐 부상을 유발할 소지가 큼니다.

실력 좋은 상대가 공격을 해 오더라도 뒤로 빠졌다가 뒷발 받아차기로 응수하고 만일 자신이 불리한 상태에 있다



앞무릎을 들고 뒷걸음질치는 동작: 상대방의 연이은 공세에 당황한 나머지 이 자세를 취해 뒷걸음질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상대가 공격할 때 위력적인 뒷발로 받아 차는 등 보다 적극적인 반격을 피야 합니다.

면 상대에게 바짝 엉겨 붙어 거리를 좁혀서 공격 기회를 주지 않도록 합니다.

앞발 보다는 뒷발을 사용하라.

앞부분의 설명과 비슷한 내용이지만 앞발을 자주 쓰는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겨루기에서 앞발을 들고 뒷걸음질치며 앞발로만 차려고 하는 맥빠진 행위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엉덩이를 뒤로 빼고 앞다리로 상대를 차 보아야 그다지 위력도 없이 득점을 얻어내기가 어렵습니다. 어설픈 앞발 공격보다는 체중을 실은 위력적인 뒷발로 차야 공격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앞발을 전혀 쓰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빠른 한걸음 나가면서 앞발돌려차기 공격이라든가 상대가 공격을 할 때를 노려 앞발로 돌려차기나 내려차기로 역습하는 고급 기술도 있습니다.

몸의 균형을 유지하라.

태권도 겨루기는 발을 주공격 수단으로 하기 때문에 몸의 균형과도 밀접한 관계를 갖습니다. 발은 공격에 사용되기도 하지만 자기 몸의 중심을 지탱하는 주요한 역할도 합니다.

겨루기를 하다가 종종 넘어지는 것도 다리가 틀린 상태에서 균형을 잃기 때문입니다. 특히 서로가 자기 공격을 교환하는 집전에서 균형을 잃은 쪽이 수세에 몰리기 쉽습니다. 차기 후 균형을 잡는 순간이 길면 길수록 상대에게 더 많은 공격 기회를 노출합니다. 그래서 차기를 할 때 무릎을



경기에서 양 선수가 겨루새를 취하고 있는 장면: 양쪽 선수는 상당히 안정된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마치 금방이라도 한판 승부를 내려서 듯이 팽팽한 태세를 갖추고 상대의 허점을 탐색하고 있는 순간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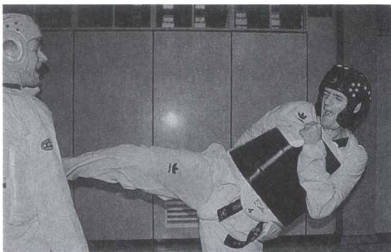
접었다가 펴면서 차고 다시 접으면서 재빨리 균형을 잡는 식으로 행합니다.

또 뛰어차기처럼 동작이 큰 기술이 균형 잡기가 그만큼 늦어지기 때문에 겨루기에서 잘 쓰이지 않는 이유가 이 때문입니다. 몸을 앞뒤로 옮길 때라든지 상대와 공방을 벌일 때에도 양발에 체중을 똑같이 나누어 딛는 거름새 자세를 유지해야 합니다. 균형을 유지한다는 말은 안정된 자세를 취함으로써 상대에게 허점을 주지 않을 뿐 아니라 기회가 생기면 언제라도 공격할 수 있는 최상의 태세를 갖춘다는 뜻입니다.

기합이 없으면 바람 빠진 공과 같다.

태권도에서 기합(氣合)은 힘의 집중, 자신감의 증대, 심리 전술 등 여러 가지 목적으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겨루기에서도 수련자가 차기를 할 때 더 정확히 말하면, 자기 발이 상대의 몸과 닿는 순간에 기합을 지르도록 훈련받습니다. 그런데도 기합도 없이 겨루기를 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겨루기에 몰두하여 아무 소리를 내지 않거나 기합 지르는 습관이 몸에 배지 않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달 수 있습니다. 어쨌든 기합이 없는 겨루기는 뭔가 중요한 것이 빠진 듯한 느낌을 줍니다. 기합은 심신을 조임으로써 물리적 위력을 한층 높여 줍니다. 뿐만 아니라 상대를 차는 순간의 기합은 타격력이 약간 모자람에도 불구하고 유효 기술(득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전술상의 이점이 뒤따릅니다.



겨루기에서 기합을 질러야 제격 : 겨루기에서 “팡!” 하고 마치 풍선이 터지는 듯이 기합을 질러야 합니다. 기합은 힘의 집중력을 높여 주고 심리적으로도 자신감을 향상시킵니다. 또한 타격순간에 지르는 기합은 위력이 약간 못 미치는 기술이라도 유효(득점)로 인정받는 전술상의 이득을 가져옵니다.

시선은 항상 목표물에 둬

겨루기가 시작되면 시종일관 상대방을 쳐다보아야 합니다. 상대의 조그만 움직임이라도 잡아내고 그에 대해 대응책을 강구합니다. 상대방의 자세와 발동작, 몸움직임을 보면 상대가 언제 어떤 기술로 공격하고 반격할지를 어느 정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눈을 감거나 땅바닥에 시선을 떨구고 겨루기를 하는 어린이가 있습니다. 상대를 보지도 않고 무작정 차는 것은 위험 천만입니다. 눈을 깜짝하는 사이에도 상대의 발이 얼굴 앞에 와 있는 상황도 겪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항상 목표물을 주시해야 공격과 수비를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시선은 어깨선 높이로 두되 상대의 표정과 몸의 움직임은 물론 상대의 발 부위까지 시야를 넓혀 보아야 합니다. 몸이 뒤로 돌게 되는 뒤차기나 뒤후려차기, 돌개차기를 할 때에도 목표물에서 눈을 떼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겨루기는 최대한 안전하게

겨루기의 목적은 가능한 안전하게 상대와 승부를 겨루고 실력 향상을 꾀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몸을 튼튼히 하고 씩씩하고 활달한 마음을 기르는 것입니다. 아울러 규칙을 따르는 정정당당한 대결을 스포츠맨십을 길러 건전한 민주시민 의식의 기초를 닦는 과정입니다. 겨루기는 지속적인 훈련을 해야 하기 때문에 서로가 다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합니다.

겨루기는 신체의 직접적인 부딪침이 일어나기 때문에 타박상 같은 부상이 생기기 쉽습니다. 공격으로 인한 직접적인 상해 뿐 아니라 상대와 충돌로 인한 발, 다리, 무릎 부위를 다치는 일도 있습니다. 또한 급격한 차기를 하다가 다리 근육이 손상되거나 뒤로 밀리면서 벽에 부딪치는 간접 부상도 생길 수 있습니다. 어느 격투 스포츠이건 부상의 위험성이 늘 있기 때문에 항상 안전에 유의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상해를 너무 두려워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심리적으로 위축되면 오히려 조그마한 접촉에도 쉽게 다치는 사례가 발생합니다. 겨루기를 하는 이상 어느 정도 신체 손상을 각오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겨루기 과정에서 생기는 다소의 신체적 장애를 극복해야만 더욱 강한 몸과 정신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굳센 마음가짐을 가지되 가능한 한 부상이 생기지 않도록 최대한 주의합니다. 겨루기를 할 때에 각종 보호대를 필히 착용해야 하고 태권도 전용 신발도 신으면 부상을 한층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반드시 사법법규

지시와 통제에 따라 겨루기를 해야만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겨루기 전에 발과 다리의 신체 사용 부위를 충분히 풀어 주는 것도 부상을 예방하는 방법의 하나입니다. 만일 겨루기 중에 신체 손상이 생기게 되면 지체없이 사범님께 얘기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해야 합니다.

감정이 아닌 의지력으로 겨룸

겨루기는 상대와의 경쟁이지만 사실은 '자신과의 싸움'이나 다름없습니다. 기술과 정신력, 체력을 총 동원하여 땀 흘리며 애쓰는 모습이 정말 힘에 겨울 때도 많습니다. 실력이 모자라서 스스로 실망한다든지, 상대의 공격에 자신감을 잃어버리거나 자포자기한다든지 아니면 그 반대로 상대에게 맞았다고 해서 제 성질을 못 이겨 싸움처럼 감정적으로 겨루기를 하는 것은 자기와의 싸움에서 패배한 경우입니다. 겨루기는 '상대와 대결하는 격투 방식을 통해 자기 자신을 수양하는 방법'입니다. 겨루기는 무분별한 폭력이 아니라 잘 조절된 기술이며 인간의 고결한 정신을 담고 있습니다. 금방이라도 바뀔 수 있는 일시적인 감정이 아니라 굳은 의지력과 침착성을 지닌 분투 정신으로 임해야 합니다.

◎ 겨루기 응용법

겨루기 감각을 살리는 것이 최우선

태권도 겨루기는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판단력을 요구합니다. 대다수 어린이들이 겨루기에서 공방에 급급하다 보면 아무렇게나 차고 치고 하는 식으로 하는 예가 흔합니다. 상대가 차면 자기도 별 생각 없이 차고 그것도 매번 돌려차기만 반복하는 식으로는 실력을 늘릴 수 없습니다.

겨루기에서 취하는 모든 동작이 공격과 방어에 도움이 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자기에게 유리한 기술 동작만을 취하고 아울러 불리하게 되는 일을 줄여야 합니다. 겨루기에서 서기, 몸의 각도와 방향, 팔의 위치 등의 안정된 자세를 바탕으로 하여 밀기, 거짓공격동작 등을 사용하며 빠른 몸놀림으로 상대방을 공략해야 합니다. 또한 상대의 자세와 몸동작, 발놀림, 심지어 표정까지도 읽어서 어떤 기술로 공격해 올 지를 판단합니다. 그러면서 언제든지 상대의 공격에 대응하는 만반의 태세를 갖추어야 합니다. 겨루기 중에도 어떤 공격법이 효과적이었는지 그리고 상대에게 반격을 당했다면 왜 그랬고 또 그 때에는 어떻게 맞서야 하는지 등등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이전에 저지른 허점이 실수를 고치고 자신의 장점을 살려 가는 보완하는 등 시행 착오를 거치면서 실력이 부쩍 늘게 되는 것입니다.

나비처럼 날아 벌처럼 쏘라.

권투계의 전 세계 해비급 챔피언이었던 「무하마드 알리」는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쏘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이 말은 복싱 이외에도 어떤 격투기에도 통용될 수 훌륭한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뜻은 “상대와 겨룰 때 항상 부드러운 몸동작의 리듬을 유지하면서 기회가 생기면 빠르고 날카로운 공격을 퍼라.”라고 해석됩니다. 태권도 겨루기 역시 경쾌하고 리듬을 타는 듯한 발놀림과 몸동작을 바탕으로 찬스를 포착하면 예리한 공격을 퍼붓는 식의 동일한 공방 원리를 갖기 때문입니다. 이 명언에 나오는 곤충인 ‘나비’와 ‘벌’은 태권도 겨루기에도 그대로 비유가 되는 상징적 의미를 갖습니다. 너울너울 날아다니는 나비는 움직임이 느리지만 그치지 힘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나비가 나는 방향은 종잡기가 어렵습니다. 벌은 몸집은 작지만 날쌔고 위협적인 공격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일단 공격 기회를 잡으면 날카로운 침을 쏘아 대는 벌은 큰 제구의 동물들도 두려워하는 대상입니다. 나비의 움직임과 벌의 공격법은 태권도 겨루기 공방법에 응용될 만한 훌륭한 내용입니다.

방어 기술로 수비를 든든하게

태권도 겨루기는 상대 공격에 대해 방어를 하기 보다 역공격하는 기술을 많이 쓰지만 순수한 방어를 목적으로 하는 기술도 많습니다. 방어 기술을 사용하는 이유는 주로 역습 기회를 놓쳤든지 상대가 예기치 못한 공격을 가해 올 때 라든지 상대 공격을 일단 피하고 나서 공격하는 전술로 대응할 때라든지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방어 기술을 세분하면 막기, 지키기, 피하기 등 세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막기’는 말 그대로 상대 공격을 막는 것입니다. ‘지키기’는 막기의 범위에 포함되지만 막기와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막기는 팔을 움직이거나 하여 적극적인 동작을 취하여 상대 공격을 저지하는 기술이지만 겨루기에서는 웬만한 위협 상황이 아니고는 잘 쓰이지 않습니다. 반면 지키기(가드, 카버)는 공격당하기 쉬운 가슴이나 배부분에 손 부위를 미리 대고 있으므로써 상대 공격을 무력화시키는 방어법입니다. 다시 말해 지키기는 자신의 급소 부위에 손을 대고 유지하고 있으면서 막기 동작에 드는 시간



공격 중에 허점을 노출하여 상대방의 돌려차기를 맞는 장면 :
청 선수가 뛰면서 내려차기로 공격해 들어가는 순간 홍 선수가 기다렸다는듯이 뒤발 돌려차기로 응수하여 적중시키고 있습니다. 공격 중에라도 항상 상대의 반격에 유의해야 하며 공격타이밍이 상대가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혼란시켜야 합니다.

파 에너지를 절약하여 받아차기를 시도할 수 있는 장점을 살릴 수 있습니다. 상대가 몸통돌려차기로 공격해 올 때 팔로 몸통 지키기를 하면서 돌려차기로 반격하는 기술은 그 한 예입니다. 겨루기에서 막기는 얼굴 부위 방어에 사용되고 지키기는 주로 몸통 부위를 수비하는 기법입니다.

피하는 것도 요령있게 해야

피하기는 재빠른 발딛거나 뒷몸의 움직임으로 상대 공격권을 벗어나는 방어법입니다. 태권도 겨루기에서 방어법은 막기 보다는 피하기가 훨씬 많이 쓰입니다. 그 이유는 막기는 자신의 반격 기회도 잃게 되는 반면 피하기는 방어와 동시에 공격을 가할 수 있는 이점을 주기 때문입니다. 피하기로 상대의 공격을 벗어나는 동시에 역습을 가하거나 상대의 헛발질을 유도한 후 허점을 노려 공격하는 받아차기는 태권도의 장기로 꼽힙니다. 막기는 상대 신체 부위와 부딪치게 되는 반면 피하기는 아무런 충돌이나 접촉이 생기지 않아 부상의 부담도 덜 수 있습니다. 피하기 기술의 핵심은 상대의 공격을 맞지 않을 정도로만 뒤로 물러나는 것입니다. 상대 발이 자기 몸을 거의 스칠 정도로 피함으로써 되받아차기의 거리를 확보하는 고도의 방어 기법이 피하기입니다. 발빠른 딛기와 몸동작을 활용하여 거리 판단과 조절을 능숙하게 하는 것이 피하기 방법입니다. 그 밖에도 상대의 공격에 뒤차기, 뒤후려차기로 받아치는 기술들은 피하기와 공격을 동시에 사용하는 복합기술입니다. 또 상대의 얼굴 공격에 대해 상체를 젖혀 피하며 몸통돌려차기로 응수하는 것도

피하기를 활용한 기법입니다.

상대와 붙는 것도 방어법

피하기는 뒤로 물러서서 상대 공격권을 벗어나는 방법이지만 꼭 뒤로 물러나라는 법은 없습니다. 뒤로 몸을 이동하여 상대 발을 닿지 않게 하는 것도 방어가 되지만 그 반대로 몸을 앞으로 움직여 상대와 붙는 것도 훌륭한 방어법이 됩니다. 만일 내가 뒤로 물러나는 것을 상대가 예상한다면 연이은 공격을 펼칠 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상대의 의표를 찌르는 방어법으로 순간적으로 앞으로 이동하여 거리를 좁히는 기술이 있습니다. 그런데 겨루기에서 방어법은 단순히 상대 공격을 피하거나 차단하는 데만 그치지 않고 자기의 공격 기회를 얻어내는 기법으로까지 발달되어 있습니다. 몸을 앞으로 옮길 붙을 때 그저 상대와 엉겨 붙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몸을 충돌시켜 상대가 균형을 잃고 주춤하게끔 만들어서 절호의 공격 기회를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공격할 때는 상대가 눈치채지 못하게

태권도 겨루기는 상대방이 혼돈을 일으키게 하는 전법이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발빠른 딛거나 거짓공격동작을 사용하여 자신의 공격 순간을 상대가 알지 못하게 혼란을 시킵니다. 그 이유는 상대가 나의 공격 순간이나 방법을 알아챌다면 받아차기로 역습을 가해 오기 때문입니다. 제자리에 서 가만히 있다가도 상대가 방심한 틈을 타서 느닷없이 나가며 찬다든지 또 자기 동작에서 교묘한 변화 기법을 사용하여 상대가 판단 착오를 일으키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몸통돌려차기로 차는 듯하다가 갑자기 얼굴돌려차기나 내려차기로 변화하거나 두발을 동시에 빠르게 차는 내려차기 등은 상대의 예상을 빗나가게 하여 그만큼 적중률이 높아집니다.

최적의 타이밍을 노려라.

태권도 겨루기에서 '타이밍 timing'이란 기회(찬스)의 시간적인 개념으로서 주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전쟁 영화를 보면 군인들이 적들이 가까이 접근하기를 기다려 대장의 "공격 개시!" 신호에 따라 일제히 사격하는 것이 종종 나옵니다. 가장 효과적인 공격시간의 선택이 전투의 승패를 결정할 만큼 영향을 끼칩니다. 겨루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절한 공격 타이밍을 잡아야 합니다. 상대가 방심을 하거나 허



뛰어뒤차기 받아차기를 성공시키는 순간 : 상대의 돌려차기 공격에 대해 뛰어뒤차기로 몸통을 적중시키는 멋진 장면. 상대가 공격해 오는 순간을 노렸다가 받아차기로 타이밍을 제대로 잡은 예입니다.

점을 노출할 때가 바로 그 순간입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공격 타이밍은 다음의 여러 가지에서 나옵니다. 첫째가 상대가 공격을 하려고 머뭇거리고 있는 순간에 이쪽에서 느닷없이 먼저 공격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가 상대가 공격을 해 오는 순간에 역습을 노리는 것입니다. 누구든 공격에 집중하다 보면 허점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어떠한 공격에 대해서도 반격법이 잘 발달되어 있는 것이 태권도 겨루기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상대가 차기를 한 다음 균형을 잡는 순간입니다. 어느 발로 공격하던 간에 차기 후에는 그 발로 디디면서 몸의 균형을 잡게 되어 있습니다. 그 순간이 바로 절호의 공격 기회입니다. 상대의 공격이 있는 다음 디디는 그 짧은 순간을 노려 역공하는 방법도 많이 사용됩니다. 그리고 엉거 붙은 (크런치) 상대가 방심하는 순간에 갑자기 내려차거나 나래차기를 한다든지 상대가 균형을 잃고 비틀거릴 때를 노려 연속 공격을 퍼붓는 것도 적절한 타이밍을 활용하는 예입니다.

두 발 다 쓸 수 있는 실력을 기른다.

겨루기를 하다 보면 잘 되는 기술, 또는 잘 차는 쪽 발만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기술의 활용 폭이 좁아지고 다양한 전술을 활용할 수가 없게 됩니다. 또한 상대가 자기의 특기를 파악하고 그에 대한 반격법을 세운다면 이쪽은 그만큼 불리한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어차피 겨루기는 기본차기의 응용법이니라 공격력은 당연히 기본차기로부터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겨루기를 하다 보면 상대의 공격 기술 내용이나 몸의 방향에 따라 앞발 뒷발 즉 오른 발, 왼발을 다 써야 하는 상황이 많이 생깁니다. 상대가

공격해 올 때 앞발로 돌려차거나 내려차기로 반격하는 것도 유용합니다. 상대와 절전 상황에서 두 발을 동원한 다양한 연결차기는 공격력을 훨씬 높여 줍니다. 두 발로 다 갖가지 차기 기술을 잘 쓰게 되면 겨루기에서 맞설 적수를 찾기 어렵게 될 것입니다.

꾸준한 연마로 실력을 기른다.

여러분들이 수련 중에 “태권도를 연마한다.”란 말을 들어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연마(鍊磨, 研磨)’란 ‘갈고 닦는다.’ 뜻을 지닌 한자말로서 아주 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마치 칼갈이꾼이 오랜 세월을 두고 다듬어야 훌륭한 보검을 만들듯이 기술도 꾸준히 갈고 닦여져야 빛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차기를 비롯한 갖가지 공방 기술들이 빠르게, 강하게, 정확하게, 활기차게 될 수 있도록 연마하는 것이 태권도의 수련 과정입니다. 항시 머릿속에는 겨루기 감각을 열어 두되 기술이 몸에 익숙해지게끔 거듭해서 연습해야 합니다. 겨루기 공방 상황에서 자동적이고 기계적인 대응 기술이 완전히 몸에 배일 정도로 연마하는 것입니다. 기본 훈련은 물론 맞춰겨루기나 실제겨루기를 통해 시행착오를 하나씩 고쳐 가다 보면 어느새 높은 수준에 도달되어 있을 것입니다.

겨루기 규칙을 최대한 활용한다.

겨루기를 하는 사람이면 의당 규칙을 따라야 하지만 그 중 득감점의 규칙을 이해하고 잘 활용하는 것도 전술의 일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겨루기에 나간 선수는 심판의 지시에 따라야 하는 데, 만일 ‘갈려!’라는 지시가 났는데도 상대를 공격하면 경고(경고 1회는 점수를 잃지 않으나 경고 2회는 1점 감점을 당합니다.)를 받는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엉거 붙었다거나 경기장 소 라인 근처에서 있을 때 갈려 선언이 나지 않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겨루기를 멈추고 원래 위치로 돌아가는 것은 무방비 상태에서 치명적인 공격을 당할 수 있는 크나큰 실수가 됩니다. 또 경기장에서 흔히 사용되는 전술적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상대가 뒷걸음질 쳐서 경기장 밖으로 나가서 경고를 받았다면 다시 상대를 밀어 붙여서 경기장밖에 내몰아 연속적인 경고를 받게 해서 상대가 감점을 받게 합니다. 또 공격 회수를 많이 하여 우세승을 얻어 내는 것도 규칙을 활용한 전술의 일부입니다. **태권**

겨울철 어린이 건강관리에 대하여

김상규/충북대학교 재활의학과 교수

어린이들은 어른에 비해 외부환경에 대한 민감도가 높기 때문에 계절에 따른 건강의 관리가 특별히 요구된다. 어린이들이 여름의 더위에 약하여 탈수나 열탕등의 합병증이 잘 생기듯이 겨울철의 열악한 환경이 어린이의 건강을 해치기 쉬운 것이다. 이런 면에서 겨울철은 특별히 건강관리를 위하여 부모나 운동 지도자들의 관리와 보호가 필요한 계절이다.

그래서 이번 스포츠 의학교실에서는 겨울철 어린이 건강에 대해서 다음 항목을 놓고 이야기하고자 한다.

- (1) 차가운 날씨 및 공해로 인한 운동의 위험성
- (2) 실내에서 운동을 해야 하는 경우 공기 오염이나 기타의 문제점
- (3) 운동의 부족으로 생길 수 있는 부작용
- (4) 전문적인 운동 선수들의 겨울철 몸만들기의 일반 원칙

1. 겨울철의 찬바람의 영향

겨울철에 찬바람을 마시며 조깅을 하는 것이 건강에 얼마나 유익할 것인가? 대부분 전문 운동 선수들은 운동계간에도 자신의 몸을 만들기 위해 피눈물나는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런데 겨울철의 건강 관리를 위해 몇가지 유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다. 겨울철은 외부 온도가 체온보다 월등히 낮기 때문에 몇가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특히 들이마시는 공기가 매우 차갑고 자극적이기

때문에 외부 환경에서의 무리한 운동은 호흡기를 자극하거나 말초조직에 무리를 줄 수 있다.

또한 근경련이나 대사의 비효율성은 물론 병판이나 외부환경의 문제로 사고가 많이 생길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천식기가 있는 소아 아동은 운동 유발성 천식 혹은 기관지 경련 등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찬공기를 마시면서 무리한 조깅이나 활동을 하는 것은 많은 주의를 요한다. 특히 공기의 오염이 심한 대도시에서는 이런 공해가 찬공기와 연계되어 더욱 큰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삼가는 것이 좋다.

대도시는 여름에도 물론 오존이나 질소화합물의 공해가 높지만 겨울에도 이런 공해로 인한 위험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자극을 받으며 무리하게 운동을 하는 것은 삼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겨울철 조깅이나 야외 운동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운동 전후의 체온의 변화를 고려하여 체온보호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운동전에는 충분한 준비운동을 통해 체온의 상승과 몸의 유연성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또한 노출되거나 심장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있는 근골격계를 방한복으로 보호해 주어야 한다.

2. 실내 운동의 주의점

실외에서의 찬 바람 때문에 실내운동이 많은 것이 겨울운동의 특징이다. 그러나 겨울철 실내 공기는 환

기부족으로 먼지나 곰팡이 균들이 많이 존재하고 또한 환경이 열악한 경우는 일산화탄소의 분포가 높을 때가 많다.

그러므로 실내는 청결하게 해야 하고 신선한 공기로 환기를 잘 시킨 상태에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실내의 불결한 공기와 곰팡이나 기타 기관지를 자극하는 먼지 등이 많이 발생하는 곳에서의 장기간 운동은 건강에 치명적일 수 있다.

3. 운동 부족으로 오는 부작용의 최소화

흔히 겨울철에는 외부 활동이 줄어들고 실내에서 있게 되는데 운동시설이 부족한 경우 대부분의 어린이들이 과도한 활동 부족을 겪게 된다. 이는 성장에도 지장을 주고, 비만이 생기기 쉬우며, 근육의 위약과 심폐기능의 저하 등을 유발한다.

부정기적으로라도 간단한 실내운동 혹은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즐길 수 있는 스키나 야외 운동 등을 적절히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실내에서도 에어로빅성 운동을 할 수 있으며 등장성, 등척성 운동이나 각기 다양한 종류의 유산소성 운동을 할 수 있고 이를 적절히 이용하면 효과적으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다.

특히 어린이들은 근육력의 성장속도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겨울 한 철에만도 몇센티미터씩 자라날 수 있기 때문에 척추 측만증과 같은 체형의 변형이 오거나 몸무게는 늘어나는데 비해 주요관절 주위의 근육의 약화로 관절통이나 관절의 변형 등이 올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

그리하여 겨울철에도 최소한의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록 환경을 마련해주는 것이 필요하고 유희와 결합인 공동참여 운동 등도 바람직하다.

4. 겨울철 운동-강도는 약하게, 양은 많게

일반적으로 겨울 운동은 여름이나 한창 시즌의 운동 방법과는 다른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운동의 강도와 양이 달라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전문적인 운동을 하는 아이들이라면 신경을 써야 하는데, 첫째 특징으로 운동의 강도는 약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겨울철 몸만들기 과정의 특징중 하나가 시즌이 나 이환기보다는 운동의 강도를 많이 낮추어서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자면 자각인지도 등을 달리하는 것이다. 한창 운동할 시기에 느꼈던 자각인지도 보다 는 한단계 낮은 강도로 운동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로는 반복횟수를 늘려서 운동의 양을 늘리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운동의 시간은 늘린다는 것이다. 대부분 시합이 있는 스포츠 시즌에는 운동의 강도를 강하게 횟수는 작게 하는 것이 원칙이고 반대로 동계훈련 기간에는 운동의 시간은 길게 하지만 운동의 강도는 작게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러한 일반적인 원칙을 흔히 기간화전략(periodization)이라고 한다(표 1). 그러나 이런 개념은 모든 종류의 운동에 무조건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여름철이 운동의 시즌으로 생각할때의 개념이고 운동 자체가 실내운동이 주를 이루고 동계운동이 주종인 경우는 여름과 겨울로 구별하는 것보다 시즌 중이나 아니면 비시즌중이냐로 구분하는 것이 더 적절한 것이다. **태권**

표 1 기간화전략(Periodization)

운동의 요소	봄과 가을(전이기)	여름(시즌중)	겨울(비시즌)
운동의 강도	중등도	최강	최소
운동의 반복횟수	중등도	최소	최다
운동의 량(Volume)	중등도	최소	최다

태극팔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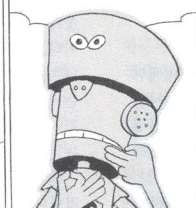


글·그림 조 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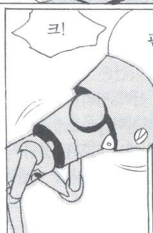


영!

관원이 점점
줄어든다고요?



도장 차린 초창기 때는
수백명이었는데
최근 몇년동안은 ...



크!

관장님 머리가 좀
나쁜것 아세요.

이눔ски 사부를
무시하다니!



봐라 아이큐가
140이라는 보증서도
있다.



아이큐만 높으면
필 해요.

머리를
쓸 줄 알아
야죠!



체육관이 도처에
널리 있는데

이 후미진
구석까지 걸어서
누가
오겠어요.



우리 태권도인의
대선배이신
방선생님의 존함이
생소하신 분을
위해

태권도 한마당 96

1996. 11. 29~12. 1 KBS 88체육관



잠시
방일환 선생님의
약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반도가
왜군의 군화발로 짓밟힐때
선생님께서 태권도인답게
조국의 독립을 위해



작품이 돌아치는 복만주 벌판에서 총을 든 왜병
오백여명과 생사의 대결을 벌여
왜병을 물리치셨으며 ...



아... 아니
그렇다면 전설속의
그 방일환 선생님이!



아! 모든
태권도인의 우상이신 방선생님이
아직도 생존해 계시다니 ...

판장님
아시는
분이에요?



조국의 광복과 더불어 선생님께서
계룡산에 은둔하시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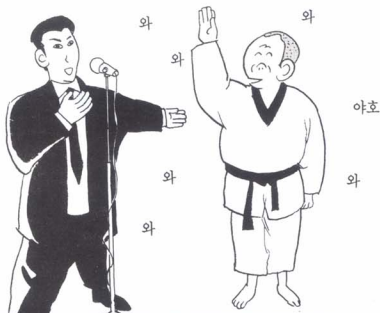


세상에는 그 모습을
한번도 드러내 보이지
않으셨으나 ...

우리 한민족 혼의 무도인 태권도가 이천년
시드니 올림픽 정식종목으로 채택됐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96 태권도 한마당 잔치에 태권도인의 큰 어른으로
참석하시게 된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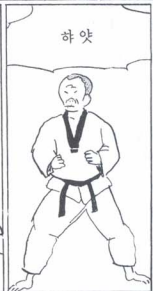


뜨거운
박수로
선생님을
맞이
합니다.



에 그러면
방일환 선생님의
손날격파를 보시겠습니다.

하얏



와 와
와

방 선생님

히야

우와



놀랍습니다.
놀라워 인생 미수를
맞이하신 선생님 주먹에
저런 파괴력이
있다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태권도입니다.

다음 순서는 88도장
어린이들의 태권
체조를
보시
겠습니다.



관장님 몇십년이나
연마하면
저 할아버지처럼 될 수
있죠?

평생이지 ...

유단자와 고단자

글·안찬수

4는 어떻게 태권도의 유단자가 되었는가.

유단자임에도 불구하고 유단자라는 생각보다는 무단자라는 생각에서 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까. 이 문제 아닌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으로 나의 짙막한 회고담을 시작해보겠다.

내가 태권도 유단자가 된 것은 군대생활을 통해서였다.

지금으로부터 약 십여 년 전 나는 양평 부근의 어느 포병부대에서 군대생활을 하고 있었다. 군번은 있지만 계급이 없기 때문에 “군인도 아니요 그렇다고 사람이나 하면 사람도 아닌” 훈련병때 나는 처음으로 태권도의 기본 품새와 격파를 익혔다.

4주간이었던 훈련기간 내내 나를 포함한 훈련병들은, 도복을 입고 빨간 띠를 허리에 짝 묶은 채 우렁찬 기합을 넣으면서 한 점 흐트러짐 없이 기본적인 품새를 완벽하게 익혀야 했을 뿐만 아니라 손날 격파로 자기 앞에 놓인 붉은 벽돌 두 장을 격파해서 군인의 기개를 보여주도록 단련을 받았다. 훈련 마지막날 있는 시범에는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부모님들과 형제 자매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자친구들이 뿔뿔히 떨어져서 면회를 오게 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우리들의 훈련을 담당하고 있던 교관과 조교들은 그 시범에서 실격되면 어떤 시련을 맞게 될런지에 대해서 거듭 강조해서 말했다. 실격자로 판정되면 두 주간의 보충교육을 더 받게 되어 있었다. 우리들 훈련병들은 그 시범에서 실격하지 않으려고, 쪽 땀을 흘리지 않는 앞까지 동작을 더 폼나게 하기 위해서 ‘다리 찢기’라고 불렀던 여러 가지 방법을 틈만 나면 실시했고 나무 등걸이나 시멘트 블록을 맨손으로 쳐서 손날을 딱딱하게 만들었다.

두 주가 지난 뒤에는 선배 기수들이 시범을 하고 우리 후배 기수들은 선배들의 제식, 집총, 태권도 시범들을 보았다. 그 선배 기수가운데 실격자들이 몇 명 나왔다.

나중에 자대도 함께 배치를 받아 군대생활 2년여를 끝까지 함께 하게 된 김영수, 그도 그런 선배기수 실격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그는 아주 평범한 군인이었다. 신체적인 조건이 남보다 더 낮다고 할 수는 없었지만 더 못할 것도 없는, 그리고 별로 두드러질 것도 없는 그런 청년이었던 것이다. 단지 그는 왼손잡이였다. 글씨 쓸 일이 그리 많지 않은 것은 아니었지만 무슨 글씨를 쓸 때만 오른손으로 쓰고, 그 나머지 일상적인 동작들

은 항상 왼손이 우선이었다. 통일된 행동의 미학을 추구하는 군대에서, 대부분 오른손잡이인 사회에서 왼손잡이란 것은 다수자 속의 소수자를 의미했다. 그는 교관이나 조교들에 의해 자주 눈에 띄었다. ‘앞으로 가’라는 구령에 맞춰 왼발을 먼저 내디뎌야 할 때 그는 오른발을 먼저 내딛는 식이었으니까. 남보다 2주를 더 단련을 받고 그도 마침내 훈련병 생활을 마치고 작대기 하나, 이등병 계급장을 가슴에 달고 군인이 되었고, 사람이 되었다.

훈련병 생활을 하면서 기본적인 품새와 격파를 익혔다고는 하지만 모두가 곧 유단자의 실력을 갖추게 된 것은 아니었다. 물론 사회에서 이미 유단자가 되어 입대한 이들도 있었다. 그러나 우리들 이등병의 태반은 무단자였다. 자대에 배치를 받은 뒤에는 훈련병 시절보다도 더 피나는 훈련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모두 동등한 입장에서 일정한 동작을 하나하나 반복해서 익히는 식이 아니라 이제는 고단자인 고참에게 가르침을 받는다는 식이었다. ‘치진아’들에게는 어김없이 혹독한 열차려가 실시되었다.

김영수와 나도 무단자로서 매일 ‘무단자 집합’ 소리에 연병장 한

구석에 집합을 해서 훈련을 받게 되었다. 하늘 같은 고참들이 즐비한 부대에서 무단자 이등병 생활은 고달픈 것이었다.

나는 처음에 포병 주특기를 받아 자대에 배치를 받았지만 말단 포대에서 행정병으로 주특기가 바뀌어 행정병으로 생활하게 되었다. 책상 물림이었던 나에게는 차라리 그게 잘된 일이었는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행정반의 갖가지 서류와 육군 행정법규를 뒤적이면서 매일 실시된 '무단자 집합'에 꼬박꼬박 참가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다. 자연스레 나는 열외자가 되어갔다. 그런데 문제는 무단자에게 가해진 벌칙이었다. 그것은 휴가나 외박에서 하루를 감하는 것이었다. 15일간의 휴가가 14일로 줄고, 2박 3일의 외박이 1박 2일의 외박이 되고 만다는 것은 끔찍한 일이다.

첫번째 심사 날이 왔다. 나는 기를 쓰고 품새와 대련을 했지만 당연히 실격 판정을 받았다. 그 뒤에도 나는 번번이 실격 판정을 받았다. 첫번째 심사에서 절반쯤이 합격하고, 또 다음 심사에서 절반쯤, 이런 식으로 무단자는 줄어 입대 한 지 일 년이 지나 상병을 달았을 땐 상병 가운데 무단자는 김영수와 나, 단지 두 사람뿐이었다. 이등병이나 일병들을 보기에 부끄러운 노릇이었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다. 나는 행정병으로 핑계라도 댈 수 있었지만 김영수는 별 핑계거리도 없었다. 그는 좀더 복잡해진 품새나 대련도 곧잘 했지만, 막상 판정관 앞에서는 그의 왼손잡이 특유의 동작이 튀어나와

실격 판정을 받았던 것이다. 그는 유단자급의 무단자였던 것이다.

상병 때의 정기휴가를 앞두고 또 심사를 받게 되었다.

"김상병, 이번엔 꼭 붙어버리자고!"

"그래, 안상병도 잘 해봐."

심사하는 날 우리 둘은 태권도 협회에서 직접 나온 판정관 눈에 쉽게 띄지 않도록 뒤쪽 구석에서 심사를 받았다. 그렇게 눈에 쉽게 띄지 않는 것이 좋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었다. 이른바 그런 것이 '군대 짬밥'이었다. 서당개 삼 년이면 풍월을 읊는다고 했다. 김상병이나 나는 주변의 이등병, 일병보다도 반의 반 박자 늦게 동작을 해가며 흑시 있을 실수를 미연에 막아나가면서 품새심사를 무사히 통과했다. "앗, 앓" 기합도 보통 때의 두 배로 크게 질러대면서 군인정신을 보여주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벌어졌다. 대련 시간이었다. 하필이면 김상병과 내가 한 조가 되어 대련을 하게 된 것이다. 군대의 대련은 사회의 도장에서의 대련과는 조금 다르다. 한마디로 군대에서의 대련은 '적을 무찌를 수 있는 군인정신'을 보여주어야 했던 것이다. 진짜 대련을 하지 않으면 안되었던 것이다.

김영수, 그와 나는 대련 자세로 잠시 서 있다가 몇 번의 헛기합을 넣으면서 헛발질을 해대었다. 하지만 둘 중 한 사람은 먼저 쓰러져야 했다. 나의 뇌리에서 '내가 먼저 쓰러져야 한다. 그는 그래도 나보다 2주나 고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스쳐지나갔다. 그 생각을

하면서 나는 또 헛발질을 했다. 그때였다. 심판관이 '그만' 하고 소리를 질렀다. 나는 판정관 쪽을 훑듯 쳐다보며 엉거주춤 올라갔던 발을 천천히 내렸다. 그러면서 앞에 섰던 김상병을 보니, 그가 씨익 웃으며 엉덩이를 털며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닌가. 분명 그는 나의 앞차기에 맞지도 않았는데...

두어 주일 뒤에 내 얼굴이 박혀 있는 단증이 나왔다. 그리고 그 단증을 군인수첩에 꽂고 나는 휴가를 다녀왔다. 물론 남들처럼 15일을 꼬박 채우면서. 그리고 '무단자 집합' 소리에 마음을 졸이지 않아도 되었다. 나도 유단자가 되었던 것이다.

하지만 내 가슴속 한켠에는 김영수, 그가 진정한 고단자라는 생각을 어찌지 못하였다. 아주 순간적인 찰나였지만 나보다 먼저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그 생각을 실천에 옮길 줄 아는 사람. 그는 진정한 고단자였던 것이다. 엉덩이 털면서 나를 향해 씨익 웃는 그가 지금도 나의 눈에 어른거린다.

추신 : 김영수는 병장이 되어서도 여전히 무단자로 남았지만 말년 휴가는 분대장이었던 그의 공로가 인정되어 남보다 3일이나 더 길게 다녀왔다는 것을 여기에 기록해둔다. **태권**

안 천수/시인

경남 창원에서 태어남. 서울대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했고 '95년 '문학동네'에 시 '꽃' 외 4편을 발표하면서 작품활동을 시작. 시집으로 '아름다운 지옥'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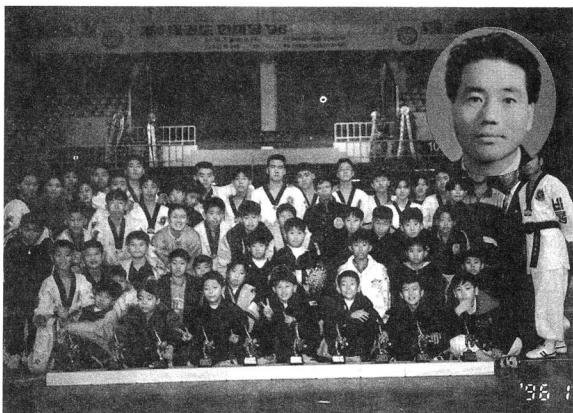
'96태권도 한마당서 11개 부문 수상 충남 금산 비룡태권도장

태권도인의 대축제인 태권도 한마당에 출전한 금산 비룡태권도장(관장 정현도) 선수단은 창작품새, 태권체조, 격파부문에서 총 11개 부문 우수상을 수상하며 전국에서 인정하는 우수도장으로 인정받았다.

비룡도장의 정현도 사범은 당진송악고교와 경남대학교 체육교육과 및 동대학원을 졸업한 석사 출신 지도자로 우리의 태권도가 종주국으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지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기술개발과 꾸준한 연구 및 창작에 더욱더 전진해야 한다는 신념아래, 현재 새로운 품새 및 호신술 개발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비룡도장 선수단은 '96태권도 한마당에 충남대표팀으로 출전, 태권체조에서 중등부(정성규 외 7명), 청장년부(김현호 외 7명), 여성부(윤수원 외 6명) 등 3개 부문에서 3년 연속 우수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룩하였으며 여성부 종합 격파부문에서 윤수원(충남전문대), 김미란(금산여고), 김미현(금산여고) 선수가 나란히 우수상을 수상하며 이 부문 4연패를 차지하였다.

또한 창작품새 부문에서 중등부 허재영 외 7명, 여성부 김미현 외 2명과 중등부 멀리뛰어차기에서 이찬영(금산동중), 김재승(금산중) 선수와 청장년부 발격과 부문에서 강민구(방송고) 선수가 각각 우수상을 수상하며 격파와 품새부문을 모두 휩쓰는 기염을 토



금산비룡도장 선수단과 정현도 관장(원내)

했다.

이들 선수단은 본 대회를 위해 토·일요일에도 쉬지 않고 꾸준히 강화훈련을 해왔으며, 내년엔 기필코 품새왕으로 선발되겠다는 각오를 보였다.

또한 96년 도지사기 시·군 대항대회에서 여자부 단체 준우승과 고등부 단체 3위에 힘입어 15개 시·군 중에서 종합 3위를 차지하였으며, 김미란 선수는 충남대표선수로 선발되어 제77회 전국체전에 출전하였다.

이들 선수단을 지도하고 있는 정현도 사범은 현재 충남협회 편집분과 차장과 상임심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경남대학교에 강사로 출강하고 있다. **태권**

제77회 전국체육대회

10월 8일 경기 첫 날

'마음을 열자, 꿈을 펼치자'라는 구호아래 지난 10월 8일 실내체육관에서 제77회 전국대회가 호반의 도시 춘천을 비롯, 강원도 4개 도시에서 올림픽의 영웅 황영조의 성화로 성대하게 막을 올렸다.

최근 무장 잠수함의 출현과 무장공비 침투로 대회 개최여부를 놓고 참가자들의 우려가 있었는데, 이를 불식시키고 대회식에 김영삼 대통령이 참석하여 성공적인 대회개최를 격려했다.

춘천 실내체육관에서 거행된 태권도 경기는 8일 11시에는 김운용 체육회장, 김성집 부회장, 이상균 태능 선수총장, 문운필 사무차장, 손민원 선수총 부총장 등이 태권도 경기장을 방문하였고 엄윤규 국기원 부원장도 경기장을 지켰다. 또한 11시30분경에는 Mr. bashir. Mabursi I.O.C 위원 내외 등 외국 귀빈들이 경기장을 방문하여 관심있게 경기를 관전해서 시드니 올림픽 경기종목으로서의 태권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을 실감케 했다.

경기장의 열기가 고조됨에 따라 어필하는 코치 감독이 서서히 늘어가는 중에도 대회를 8강까지 무사히 진행시켰다.

이날 경기를 마치고 강원도협회 주최로 열린 만찬에 참석한 이흥주 부회장은 체전 지원비로 일천만원 을 전달하기도 했다.

10월 10일 준결승과 결승, 마무리

열전을 펼치면서 한국 신기록이 쏟아지는 풍성한 기록잔치가 되었고 경기장 밖에서는 인형극, 농악, 판도마임 등의 행사가 끊임없이 열려 체전이 단순히 기록경쟁의 무대가 아니라 문화제전이라는 이미지를 심었다. 강원도 특산품인 오징어, 농산물 판매도 인기를 끌었으며 태권도 경기장에 마련된 기념품점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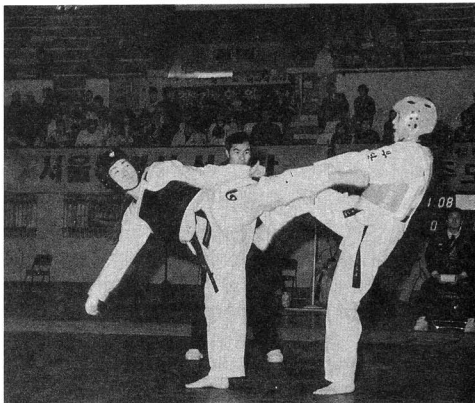
도 기념 메달과 체전 로고가 새겨진 T셔츠가 인기품목으로 팔렸다.

또한 강원도민들의 관심속에 자원봉사자들이 경기장을 찾는 관중과 선수 임원들에게 따뜻한 커피와 음료 등을 무료로 제공하며 훈훈한 정을 베풀었다.

경기장의 열기가 뜨거워지면서 15개 시도협회 임원들은 경기장을 지키며 승·패가 갈릴 때마다 신경전을 펼쳤는데 흥분한 나머지 욕설을 하는 임원들도 있었다. 심판진에서도 정확한 득점과 경고 기준으로 판정을 내리는 사명감이 아쉬움으로 남았다.

강원도 코치의 강력한 어필로 집행부가 이의 신청을 받아들여 전국체전 처음으로 판정이 반복되는 가운데 심판의 명예에 손상을 입히는 결과를 낳기도 했다. 그리고 전체 445경기에서 13% 가량이 우세승으로 판정됨으로써 판정시비를 일으키는 문제점을 남겼다.

(대한태권도협회 기록분과 부위원장 신충현)



나는 태권도인임을 언제나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최 성 호/강서 경찰서장 총경

도(道)와 태권도

이 회승 감수 민중 에센스 국어 사전에 도(道)란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 종교상으로 근본이 되는 뜻, 깊이 깨달은 지경, 기예나 방술(方術)을 행하는 방법이라고 설명되었고, 태권(跆拳道)은 우리나라 고유의 호신무술의 하나(손으로 치고 발로 차고 함), 태권도는 무도(武道)로서 태권을 일컫는 말 이라고 적혀있다.

1972.12.1 대한태권도협회 발행 태권도 교본(품새편) 14쪽에는 태권도의 정의로서 태권도는 하나의 행동철학이다.

태권도란 "인간 생존의식의 구체적 표현인 동시에 정신적 육구를 구체화 하려는 체육적 활동이다"라고 기술되어 있다.

국어사전식 의미는 호신술을 무도로서 한차원 높여서 설명하였으나 평생 심오한 수련을 뜻하는 도(道)로서의 의미가 미약한 감이

있고, 태권도 교본에 나타난 정의, 즉 행동철학, 체육적 활동은 태권도를 수련해 보지 않은 사람은 뜻을 빨리 알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광범위하다.

필자의 천직 '경찰' 과 태권도와의 조화

40여년간 태권도인으로서는 살아온 필자는 태권도가 스포츠기술, 나아가서 스포츠정신 이상의 심오한 도의 경지를 향하여 나갈 때, 수련자 모두가 정신적으로 혼연일체가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태권도가 국력의 기틀이 될 수 있음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1959년 5월 육군 일선 모든 사단에 태권도 교육대가 일제히 창설되었을때 당시 제12사단 공병대대 행정과 일등병이었던 나는 자나깨나 교육대에 가고 싶어 미칠 지경이었다. 그러나 과선임자인 김 병장이 길을 막고 있었다.

나는 교육명령을 사단에 상신하는 공병대대 작전과 박일병의 힘을 입어 작전과에서 행정과장 모르게 상신한 결과 교육명령이 났는데, 김병장은 과장에게 취소시켜야 한다고 또 반대하고 나섰다.

그 이튿날 새벽 사단장 교육명령이 났을때 가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확신을 갖고 배낭을 챙겨 교육대로 가서 등록했다. 이때의 용기로 태권도인이 되었고, 이는 항공보안 무술경찰관으로서 전세계를 돌아다녔던 36년간의 경찰생활에 큰 힘이 되었다.

나는 1961년부터 64년까지 무술 기동대 활동을 했다. 평상시 근무중 다중범죄 발생시 출동하여 진압 체포조로서의 임무를 수행한 것이다.

또 검도 선수 생활을 했는데 이는 태권도가 경찰무도로 채택되기 전이다. 군에서 태권도사범을 역임했기 때문에 검도선수로 선발되어 5년간 서울 시경대표 검도 선

수단으로 활동했다.

또 대한항공기의 하이재킹 방지 무술경찰관으로 선발되어 8년간 근무하면서 세계각국 많은 나라를 시찰한 것이 70년대의 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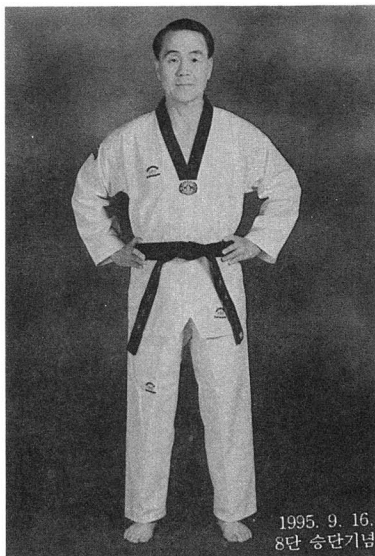
1983년도 미국 워싱턴 교외에 있는 FBI 국립학교에서 250명 동기생에게 태권도 시범 및 교육지도를 했던 경험도 있다.

주 시카고 대한민국 총영사관 근무시 치안담당 영사로 근무하면서 시카고 시내 흑인들만이 살고 있는 남부지역에서 가게를 갖고 있는 교포상점 1500개 업소를 폭동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4년간 흑인 경찰서장 15명을 찾아다니면서 교민보호 협조를 요청한 결과 적극적인 보호를 받아 피해를 크게 줄였다. 이에 상우협의회와 시카고 한인회에서 정부에 국무총리 표창을 상신하여 96년 5월 정부로부터 표창을 받기도 했다.

나의 태권도 수련기

태권도가 좋아서 시작한 나는 시간이 있을 때마다 태권도를 수련해 왔다. 바쁜 경찰직무로 인하

여 시간대기가 어려울 때도 많았지만 65~71년까지는 남대문 앞에 있던 서울시경 옥상에 땀을 걸



어놓고 점심을 굶으면서까지 발로 차고 주먹으로 쳤다. 충북도경 근무시나, 김포공항 근무시 항시 무도를 수련했고 미국에 영사로 가 있으면서도 계속했고 기간 중에 재미한국태권도사범 도장심사에 많이 참석했다.

95년 9월 8단 승단 심사시는 58세의 최고령자로서 당당히 도

복을 입고 심사에 응하여 합격했다.

내가 수련한 품세는 40년간 모두 66가지나 되었는데, 아무리 철저히 익혀 놓아도 잠시만 하지 않으면 자주 잊어 버렸다. 특히 1972년도에 대한태권도 협회에서 제정한 새로운 품세 25가지는 철저히 수련하였는데도 구형과 혼동될때가 있어 종종 잊어버리는데 그때마다 오랫동안 국기원 시범단장을 역임했던 김영직 관장의 지도를 받았다.

95.12.21 강서경찰서 장으로 부임하여서는 경찰서 무도장에서 수련하고 있다.

태권을 도로서 삼고 40년간 수련하다보니 마음과 몸이 튼튼해져서 지금도 젊음이 넘치고 또한 혜택받음이 무궁무진함을 실감하고 있다. 앞으

로도 생명이 다할때까지 수련할 결심이다.

태권도에 마음을 둔 수련자 모두는 태권가족이므로 한데 뭉치면 밝고 명랑한 사회를 만들고 나라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굳게 믿는다. **태권**

선화의 수련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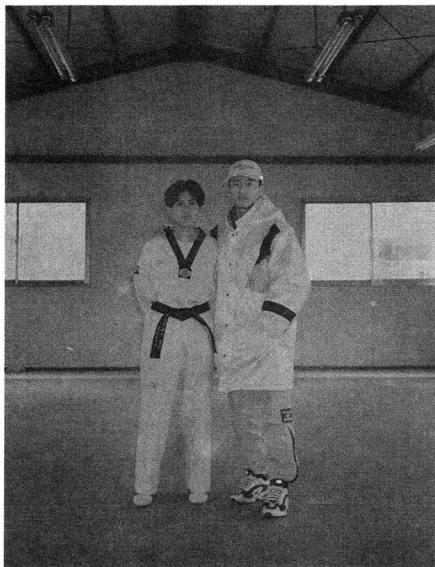
조 선 화/목포상고 2학년

안녕하십니까?
저는 목포상고
2학년에 재학중인 조
선화라고 합니다.

제가 태권도를 알게
된때는 중학교 1년말.
친구의 삼촌께서 태권
도 사범이셨기에 그곳
에 놀러갔었어요. 발
레를 전공했던 저에게
는 기합을 넣고 상대
방을 발로 차는 것이
너무나도 신기해 보였
습니다.

형식적이고 인형처
럼 음악에 맞추어 춤
만 추는 것 보단 훨씬
즐겁고 멋있게 보였습니다. 그 뒤
발레를 그만두고 태권도를 시작하
게 됐지요.

처음에는 기합소리도 개미처럼
작아 야단도 맞았어요. 하지만 발
차기를 하나씩 배울때마다 관장님
께 가능성이 많다고 칭찬을 받았



코치님과 함께

어요.

태어나 처음 받아본 칭찬이라
너무 기뻐요. 언니·오빠들 모
두 장학생인 우리 집에선 전 문제
아였거든요.

넌 늘 왜 그러냐는 야단만 맞았
던 저에게 그 말씀은 '제야의 종소

리'와 같았습니다. 방
학때도 오전부터 저녁
까지 체육관에서 살다
시피 했어요.

그것이 저에겐 즐
거움이자 유일한 낙이
였어요. 승단심사에
합격하고 중 2때 도
선발전이 저에겐 첫
시합이었어요.

목포시합도 아니고
전남시합! 저에겐 너
무나도 큰 시합이라
떨렸어요. 그런데 준
우승을 했습니다.

저보다 관장님은
더욱 기뻐하셨어요.

처음으로 땀흘려 노력했던 일, 은
메달 탔던 일이 저에겐 꿈만 같았
어요.

고입을 앞두고 목포상고엔 태권
도부가 창설되었습니다. 입학조건
은 전남권 시합 경험자이자 1단
이상의 유단자였습니다.

전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전문적으로 운동을 배우게 되다니...

더욱 광범위한 태권도의 세계에 가슴떨렸던 것이 벌써 1년이 넘었습니다.

2월 도대표 선발전에서 조미례 선수에게 진 후 내년에 꼭 도대표가 되고 말겠다는 굳은 결심으로 2학년에 올라와 죽도록 열심히 했습니다.

태권도만큼은 누구에게 밀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덕분에 웰터급이었던 제가 밴터급으로 시합을 나가게 되었어요.

당당히 1위를 했는데, 괜히 눈물이 나더라구요.

자신감과 더 큰 꿈을 가지게 되었어요. 한때대에 가고픈 욕망도 있었습니다. 그 꿈이 저에겐 즐거움이었어요.

피멍은 상처도 아니고 깨끗한 적도 많았지요. 안되는건 노력했어요. 제가 노력한만큼 코치선생님께서 더 열성적으로 지도해 주셨고 올해에는 꼭 무언가 이룰거라 다짐했었습니다. 여름이 시작될때 발등에 혹이 생겨 수술을 하게 되어 한달동안 쉬게 되었습니다. 그 기간동안에 얼마나 뛰고 싶고 겨루기 하고 발차기를 하고 싶었는지...

운동시간때 "이 발차기는 이렇



지금은 당당히 3단에
합격해 체육관을 다니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은 저에게
아직도 불만이 많으시지만
이제 정말 제가 사랑하는
태권도를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게..." 혼자서 코치님 말씀을 따라하는 저를 코치선생님께서 이해해 주시고 "빨리 나아서 겨루기 한번 하자" 격려해 주셨습니다.

그 얼마후 집안사정으로 인해 제가 운동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밤새도록 울고 또 울었습니다. 저보다 더 안쓰러워 하신 분은 코치님이었어요.

올해에 기대가 컸다고 격려해 주셨지만 언제나 마음만 아픕니다. 그 뒤 집안반대로 동네 체육관도 못나가게 되어 전 방황을 했답니다.

밤늦게 돌아다니고 성적은 하강에 하강을 거듭했고 어쩌다 집에 있으면 TV만 뚫어져라 쳐다만 보고 집에서는 밥맛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3달동안 집에서 놀았고 반항아라 찍힐정도였습니다. 학

교에 가면 체육관 근처를 서성거리기 일쑤였고 그렇게 7월이 되었고 벌써 3단 볼때가 되었습니다. 3단 따서 뭘하나 심사등록비도 없는데. 포기하고 상심하던때 코치 선생님께서 절 부르셨습니다. 애길 나누다보니 학교에서 승단심사가 있고 제가 심사보길 원하셨습니다.

그 뒤에 체육관을 다시 찾았고 심사등록비는 관장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말씀에 드디어 심사 2주를 남겨놓고 품새, 발차기 연습을 수업후 저녁늦게까지 했습니다.

지금은 당당히 3단에 합격해 체육관을 다니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은 저에게 아직도 불만이 많으시지만 이제 정말 제가 사랑하는 태권도를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이제 국가대표는 아니더라도 여사범이 되고 싶습니다. 물론 이 시대에 맞게 지식 또한 충분히 갖추어 태권도인으로써 앞으로의 길을 개척해 나가겠습니다.

김민표 코치님, 장시영 관장님 은혜에 꼭 보답하여 부끄럽지 않은 태권도인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언젠가 부모님도 이해하시겠지요. 앞으로 제가 할 일이기도 하구요. **태권**

깜짝 놀라실 거예요!

양 주 회/감전초등학교 6학년

저는 멀리 항구도시인 부산 감전초등학교 6학년 5반에 재학 중인 양주희입니다.

저는 지금 며칠 후 공인심사를 받을 수련생으로써 저의 체육관과 관장님 그리고 제가 느낀 국기 태권도를 얼마전 관장님께서 저의 수련생에게 나누어준 태권도지를 보고 태권도 가족마당에 이 글을 꼭 실어 불려고 며칠간 고심끝에 아무도 몰래 띄웁니다. 부모님과 의논끝에 오빠가 다니는 백호체육관에 입관한지 벌써 1년이 다되어 갑니다.

처음 체육관에 입관하여 수련할 때는 걱정과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매사에 당당하고 자신감이 넘칩니다. 저의 관장님은 정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태권도를 사랑하는 사람중에 한 분인것 같습니다. 왜냐면요, 관장님께서서는 태권도복을 입으시고 저희들을 지도하며 수련에 앞서 항상 하루도 빠짐없이 예의교육을 시킵니다. 예를 들자면 태권도는 발기술과 주먹기술도 중요하지만 인간이 지켜야할 기본적인 도덕과 윤리를 먼저 교육시키며, 참된 인간사에 인성교육을 첫째 목적으로



지도하며, 아직도 머릿속에 기억되는 말쑤는 태권도복의 하얀마음은 우리 백의민족의 상징이며, 배달민족의 혼이 가득 담긴 꽃이며, 처음의 하얀 백띠는 태권도인으로 가장 자랑스럽고 검은 띠는 가장 명예스럽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관장님께서서는 태권도를 사랑하다보니 결혼도 태권도인과 하였습니 다. 사모님께서도 지도자 교육을 받으신 분입니다.

저는 처음에는 여자가 태권도를 배운다는 것이 조금은 썩괴하고 부끄러웠지만 지금은 정말로 우리의 민족의 숨결이 숨쉬는 국기 태권도를 배운다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기분 좋은 일인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요즈음 '98 방콕 아시안게임에 우리 태권도가 정식 종목에 채택되느냐 앞뒤느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2000년 시드니 올림픽 정식 종목에 채택되었듯이 꼭 채택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글을 쓰는 순간 수련할 때는 호랑이 같이 무섭고 수련이 끝나면 아빠와 삼촌같이 자상한 관장님의 얼굴이 떠오

릅니다. 지금 태권도를 잘하지는 못하지만 얼마후 공인품 심사에 실력을 열심히 발휘하여 꼭 합격하여 관장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고, 관장님의 말씀처럼 명예스러운 검은띠를 매고 싶습니다. 검은띠를 취득하더라도 관장님의 가르침대로 좀더 겸손하고 양보하는 미덕과 예절바른 어린이가 되도록 다짐하며, 태권도 정신이 온 국민에게 심어지는 날 우리나라는 정말 아름답고 풍요로운 사회가 될 것이라.

그리고 저의 글이 채택되어 태권도지에 실리어 우리 박수환 관장님께서 보시고 깜짝 놀랄 표정을 상상하면서 힘차게 체육관으로 향합니다. 태권

아이들 EQ(감성지수) 개발할 수 있다

낙관성, 도덕성, 인내심 및 지구력, 대인관계능력 등 정서지능을 구성하는 요소들에 대한 측정을 통해 EQ측정도 시도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서울대 교육연구소 문용린 교수(교육학)팀이 유아용 EQ측정법을 개발했다. <도표 참조> 그렇다면 EQ는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문교수는 정서 조절 및 표현의 체험을 해야 하며 연습과 훈련을 받아야 한다고 조언한다. 문교수가 제안하는 「EQ 개발법」을 소개한다.

첫째 자녀들에게 부모 및 형제 자매 등 가까운 사람들의 표정, 감정, 속마음을 읽는 연습을 시킨다.

둘째 화, 질투, 충동, 조바심 등이 일어날 때 그런 감정을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좋은지 구체적인 예를 들어가면서 서로 얘기하고 연습을 해본다.

셋째 동화, 소설, 영화속에 나타난 관심있는 인물 및 주인공의 정서처리 능력과 방법에 대해 분석해보고 자신이라면 어떻게 했을지 생각해 한다.

넷째 스스로 정서표현·조절·활용의 경험을 개발하고 반성하도록 유도한다. 이와 함께 감정조절에서 가장 중요한 「분노를 통제하는 방법」도 제시하고 있다. 화가 나면 ▲크게 심호흡 ▲물을 마시거나 음악을 크게 트는 등 다른 행동을 한다 ▲내가 화를 내는 것이 정당한가 자문해본다 ▲화를 내면

문제가 해결되거나 사정이 달라질 수 있는지 생각해 보는 것 등으로

통제할 것을 권한다. **태권**
(경향신문 참조)

〈EQ검사(유아용) 질문〉

◇다음중 자신과 더 가깝다고 생각하는 번호에 ○표 하세요

- 나는 내 기분이나 감정이 어떤지 정확하게 알 수 있다
① 항상 그렇다 ② 가끔 그런편 ③ 그렇지 않다
- 나는 내가 화났는지, 짜증이 났는지 구별할 수 있다
① 항상 그렇다 ② 가끔 그런편 ③ 그렇지 않다
- 나는 우울한 기분이 들 때 즐거워질 수 있는 나만의 방법을 사용한다
① 항상 그렇다 ② 가끔 그런편 ③ 그렇지 않다
- 선생님께 칭찬받고 좋아하는 친구를 보면 나는
① 즐겁다 ② 새이 난다 ③ 아무렇지도 않다
- 놀이터에서 친구도 없이 혼자 가만히 있는 아이를 보면 나는
① 슬프다 ② 화가 난다 ③ 아무렇지도 않다
- 내가 열심히 한 숙제가 없어져 속상할 때 나는
① 속상하지만 빨리 잊고 숙제를 다시 시작할 수 있다
② 잃어버린 숙제가 자꾸 생각나서 다시 하기 싫어진다
- 친구와 내가 똑같이 잘못했는데 선생님이 나만 야단치실 때 나는
① 나도 잘못했으므로 선생님의 야단을 받아들인다
② 나만 야단치는 선생님이 밉고 화가 난다
- 악기나 운동을 배우는데 잘 되지 않아서 화가 날 때 나는
① 잘하는 내모습을 상상하며 더 열심히 연습한다
② 내게 맞지 않으므로 빨리 그만두고 싶다고 생각한다
- 나는 어른들의 표정을 보면 나를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알 수 있다
① 그렇다 ② 아니다
- 좋아하는 만화영화를 보고 있는데 엄마가 청소를 도와달라고 한다
① TV를 끄고 도와드린다 ② 만화영화를 계속 본다

◇채점·분석하는 법=1~5번 문항은 ①번 2점, ②번 1점, ③번 0점, 6~10번 문항은 ①번 1점, ②번 0점으로 계산한다. 13~15점 매우 높으면, 10~12점 높으면, 7~9점 보통, 4~6점 낮으면, 0~3점 매우 낮으면

■ ■ ■ ■ ■

안양 관양초등자모회 강명숙 외 7명
충남협회 윤수원 외 6명
이화여대 조은경 외 7명

계명대 남중회의 4명

멀리뛰어차기

▲ 중등부

세아체육관 차운재
대성중학교 전병두
평원중학교 박민열
금메달체육관 천민교
금산 비룡도장 김재승
금산 비룡도장 이찬영

▲ 청장년부

세계태권도선교회 김성문
평화체육관 김성규
타이곤체육관 최진표
명화체육관 임창규
경희대 조덕상

높이뛰어차기

▲ 중등부

능곡 상록체육관 이상인
평원중학교 김규일
정곡체육관 배형민

▲ 청장년부

윌드체육관 이정호
북아현체육관 박철웅
신흥체육관 정춘기
금메달체육관 신성우
경희대 전수용
경희대 김영진

종합격파

▲ 중등부

윌드체육관 유영민
원주 효성체육관 양병석
금메달체육관 김희남
강남구협회 신선미
명화체육관 정태환
강남구협회 김민정
세계태권도선교회 김선교

▲ 청장년부

체육선교신학교 박용찬
용인대 김성진
징스체육관 정재환
세계태권도선교회 김희도
경희대 이현준

▲ 여성부

명화체육관 배선옥
금산 비룡도장 윤수원
금산 비룡도장 김미현
금산 비룡도장 김미란
경희대 정선미

손날격파

▲ 청장년부

옥산체육관 김일환
세계태권도선교회 이성수
한국태권도고수회 김호진
세계태권도선교회(주)건모식품 문영봉

주먹격파

▲ 청장년부

세계태권도선교회 김희삼
성산체육관 이필호
중앙체육관 김하일
체육선교신학교 김형태
장원 종합체육관 정재훈

발 격파

▲ 청장년부

한송 태권도체육관 김종민
동부체육관 원구연
지성 경희도장 홍영기
북아현체육관 박재천
문경체육관 전정진
장원 종합체육관 최안민
세계태권도선교회 한평재
금산 비룡도장 강민구

* 해외참가 입상자 *

일반품새

Phua Seng Boon 의 3명 (Singapore)
Pournima D. Chandekar 의 3명 (India)
Rago 의 2명 (India)
손나자 의 명 (Kazakhstan)
Han Evgeni 의 2명 (Uzbekistan)

창작품새

Quek Boon Seng, Eddie 의 7명 (Singapore)
Neo Eng Hong 의 4명 (Singapore)
David Reeven 의 4명 (Canada)
Amber Turier 의 2명 (Australia)
Ajay 의 3명 (India)

호 신 술

손나자 의 4명 (Sakhalin)
Lim Keng Leong 의 2명 (Singapore)

손날격파

Chong Perng (Singapore)
Young Kuk Yae (Singapore)

주먹격파

Chan Peng Huat (Singapore)
Boo Peng Lim Steven (Singapore)
리 청 룡 (China)
김 성 준 (China)
Ikromov (Uzbekistan)
이 춘 식 (Sakhalin)

발 격파

Paolo De Leberali(Canada)
Sopan S. Katke(India)
안 알렉세이(Sakhalin)

종합격파

Neo Eng Hong(Singapore)
Ong Koon Yew, Jason
(Singapore)
Then Hui Jun(Singapore)
India(Prasad)
Selva(India)

멀리뛰어차기

Bijay Kumar(India)

높이뛰어차기

Madhu(India)
Ajay(India)
Bondar Tchouk(Sakhalin)
Alexei(Sakhalin)

태권체조

Sangeotha 외 3명(India)

1996년도 우수선수 선발대회

1996.11.14~16(3일간)

국기원
(남자부)

▲ 핀급

- 1: 손우락(서울체고)
- 2: 김광호(풍성고)
- 3: 박희강(한체대)
- 3: 김주현(선인고)

▲ 플라이급

- 1: 최만용(한체대)
- 2: 김의철(문성고)
- 3: 이기철(경희대)
- 3: 진승태(진로)

▲ 밴텀급

- 1: 정충민(한체대)
- 2: 홍기상(송곡고)
- 3: 박기호(동아대)
- 3: 이동철(동성고)

▲ 페더급

- 1: 이임수(동아대)
- 2: 유용진(동아대)
- 3: 김중운(영천시청)
- 3: 강남원(인천체고)

▲ 라이트급

- 1: 김동현(경희대)
- 2: 김정수(경희대)
- 3: 황경범(성균관대)
- 3: 김병국(국군체육부대)

▲ 웰터급

- 1: 황동기(리라공고)
- 2: 양원철(진로)
- 3: 박남석(부평기술고)
- 3: 이상훈(경희대)

▲ 미들급

- 1: 강동국(국군체육부대)
- 2: 김석균(인천북공고)
- 3: 김동민(한체대)
- 3: 윤귀상(서울체고)

▲ 헤비급

- 1: 김정규(국군체육부대)
- 2: 문대성(동아대)
- 3: 방원철(한체대)
- 3: 이영우(부평기술고)
(여자부)

▲ 핀급

- 1: 이정운(용인대)
- 2: 박정희(김제북고)
- 3: 안정아(대원여중)
- 3: 최민아(대원여중)

▲ 플라이급

- 1: 김보인(경희대)
- 2: 이순영(용인대)
- 3: 심혜영(리라공고)
- 3: 윤송희(한체대)

▲ 밴텀급

- 1: 황은숙(인천시청)
- 2: 이선영(한체대)
- 3: 김이래(김제북고)
- 3: 김병희(용인대)

▲ 페더급

- 1: 정재은(한림여실고)
- 2: 윤명숙(인천시청)
- 3: 김지호(송곡고)
- 3: 전기숙(성신여대)

▲ 라이트급

- 1: 강혜은(상명대)
- 2: 신동선(성신여대)
- 3: 민보영(배성여상)
- 3: 장지원(경성여실고)

▲ 웰터급

- 1: 조향미(인천시청)
- 2: 김수현(리라공고)
- 3: 남보라(리라공고)
- 3: 김소연(상명대)

▲ 미들급

- 1: 우연정(대전세일고)
- 2: 김미란(고양중고)
- 3: 한은진(조선대)
- 3: 서영하(효원고)

▲ 헤비급

- 1: 박정숙(용인대)
- 2: 신경현(인천시청)
- 3: 김운경(상명대)
- 3: 권지희(리라공고)

제19회 회장기타기 전국대학 대항태권도선수권대회

1996.11.26~27(2일간)

국기원
(남자부)

▲ 핀급

- 1: 박동중(충남대)
- 2: 박희강(한국체육대)
- 3: 김상우(용인대)
- 3: 박희환(동아대)

▲ 플라이급

- 1 : 이기철(경희대)
- 2 : 김창식(한국체육대)
- 3 : 정재필(동아대)

▲ 밴텀급

- 1 : 김선웅(용인대)
- 2 : 윤희식(경희대)
- 3 : 김친규(한국체육대)

▲ 페더급

- 1 : 김윤식(충남대)
- 2 : 이두건(경희대)
- 3 : 이임수(동아대)
- 3 : 정기원(경희대)

▲ 라이트급

- 1 : 김남웅(용인대)
- 2 : 이명진(한국체육대)
- 3 : 김동현(경희대)
- 3 : 송제현(제명대)

▲ 웰터급

- 1 : 김동민(한국체육대)
- 2 : 정동혁(용인대)
- 3 : 전현우(제명대)
- 3 : 이동주(동아대)

▲ 미들급

- 1 : 이동완(한국체육대)
- 2 : 김민우(동아대)
- 3 : 이진영(용인대)
- 3 : 김태국(충남대)

▲ 헤비급

- 1 : 빙원철(한국체육대)
 - 2 : 문용철(한국체육대)
 - 3 : 지상규(청주대)
 - 3 : 심윤섭(용인대)
- (여자부)

▲ 핀급

- 1 : 이정운(용인대)
- 2 : 주윤숙(성신여자대)
- 3 : 김수연(용인대)

▲ 플라이급

- 1 : 윤송희(한국체육대)
- 2 : 최재숙(용인대)

3 : 양소희(한국체육대)

3 : 서효정(오산전문대)

▲ 밴텀급

- 1 : 김병희(용인대)
- 2 : 박현기(한국체육대)
- 3 : 조미라(성신여자대)

▲ 페더급

- 1 : 진용순(한국체육대)
- 2 : 이지은(경희대)
- 3 : 오은하(용인대)
- 3 : 차현남(오산전문대)

▲ 라이트급

- 1 : 신동선(성신여자대)
- 2 : 이해경(한국체육대)
- 3 : 함진희(성신여자대)

▲ 웰터급

- 1 : 김옥경(성신여자대)
- 2 : 신현순(용인대)
- 3 : 박선혜(용인대)
- 3 : 조미례(한국체육대)

▲ 미들급

- 1 : 강혜진(성신여자대)
- 2 : 박영미(용인대)
- 3 : 이희영(용인대)

▲ 헤비급

- 1 : 정명숙(경희대)
 - 3 : 박정숙(용인대)
- (단체성적)

▲ 남자부

- 우승 : 한국체육대
준우승 : 용인대
3위 : 충남대

감투상 : 경희대

장려상 : 호서대

▲ 여자부

- 우승 : 성신여자대
준우승 : 용인대
3위 : 한국체육대

감투상 : 경희대

장려상 : 오산전문대
(개인성적)

▲ 최우수선수상

빙원철(한국체육대, 헤비급)
신동선(성신여자대, 라이트급)

▲ 우수선수상

김남웅(용인대, 라이트급)
김병희(용인대, 밴텀급)

▲ 감투상

김태국(충남대, 미들급)
이지은(경희대, 페더급)

▲ 장려상

김민우(동아대, 미들급)
차현남(오산전문대 페더급)

▲ 지도상

장태운(충남대)
조임형(용인대)

제22회 회장기 전국초등학교
대회

1996.10.25~26(2일간)

국기원

(남자부)

▲ 핀급

- 1 : 김민욱(경기구운)
- 2 : 한천석(제주신촌)
- 3 : 김경수(전북전주북)
- 3 : 김민욱(경기복사)

▲ 플라이급

- 1 : 이민호(천안구성)
- 2 : 주영한(천안구성)
- 3 : 박진(경기이매)
- 3 : 이범석(부천약대)

▲ 밴텀급

- 1 : 이정재(경기포곡)
- 2 : 김영환(부천약대)
- 3 : 이동혁(경기금빛)
- 3 : 강경진(경기신산)

▲ 페더급

- 1 : 최현하(경기구운)
- 2 : 김천권(제주신촌)
- 3 : 김명진(전남여천서)
- 3 : 권세원(부천신흥)

▲ 라이트급

- 1 : 강승민(전남여천서)
- 2 : 김수환(경기신산)
- 3 : 차동주(안양부림)
- 3 : 이중철(충남창기)

▲ 라이트웰터급

- 1 : 채명균(경기포곡)
- 2 : 전진구(대구다사)
- 3 : 윤달호(제주하귀)
- 3 : 김성진(경기마장)

▲ 웰터급

- 1 : 송명섭(부천신흥)
- 2 : 이인휘(안양부림)
- 3 : 강준석(전북삼천남)
- 3 : 공명훈(경기광명북)

▲ 라이트미들급

- 1 : 김성규(강원근화)
- 2 : 김효빈(제주하귀)
- 3 : 최대장(서울가락)
- 3 : 이상준(경기태장)

▲ 미들급

- 1 : 성승현(경기마장)
- 2 : 이선중(경기대월)
- 3 : 오주석(경기구운)
- 3 : 구효준(서울남부)

▲ 라이트헤비급

- 1 : 김명언(제주신촌)
- 2 : 백인옥(성남제2)
- 3 : 박경덕(경기도창)
- 3 : 김윤구(경기덕소)

▲ 헤비급

- 1 : 김두리(경기금성)
 - 2 : 윤주영(대구화원)
 - 3 : 장성덕(경기구운)
 - 3 : 최양규(안양비산)
- (여자부)

▲ 핀급

- 1 : 김수양(경기설봉)
- 2 : 함보민(강원조양)
- 3 : 박미라(경기대일)
- 3 : 이하나(경기성남)

▲ 플라이급

- 1 : 황경선(경기양정)
- 2 : 정수진(안양석수)
- 3 : 김경아(경기포곡)
- 3 : 김민경(경기수진)

▲ 밴텀급

- 1 : 정미선(경기성남)
- 2 : 정혜진(안양석수)
- 3 : 정애경(전북송광)
- 3 : 최혜영(경기천현)

▲ 페더급

- 1 : 김새롬(경기구운)
- 2 : 서희정(제주삼양)
- 3 : 김윤정(경기신일)
- 3 : 위선미(경기천현)

▲ 라이트급

- 1 : 임양은(경기덕소)
- 2 : 이인수(경기법원)
- 3 : 장진이(경기소사)
- 4 : 어영진(경기수진)

▲ 라이트웰터급

- 1 : 변진영(서울난우)
- 2 : 이성혜(대구다사)
- 3 : 이미경(안양석수)
- 4 : 이민애(전북송광)

▲ 웰터급

- 1 : 최재애(경기덕소)
- 2 : 손준향(경기울진)
- 3 : 이미아(서울신곡)
- 3 : 손혜민(강원우산)

▲ 라이트미들급

- 1 : 김보배(강원소양)
- 2 : 김선옥(서울쌍문)
- 3 : 이명옥(전북송광)
- 3 : 김선운(서울등촌)

▲ 미들급

- 1 : 전은경(경기덕소)
- 2 : 양정임(경기광명북)
- 3 : 정윤주(경기중원)
- 3 : 김하림(경기이천)

▲ 라이트헤비급

- 1 : 유은옥(전북송광)
- 2 : 김아름(강원속초)
- 3 : 김기혜(경기천현)
- 3 : 양지은(서울미성)

▲ 헤비급

- 1 : 정경자(대구다사)
- 2 : 노은경(경기성남)
- 3 : 나은경(강원우산)
- 3 : 김수현(전북송광)

(품새종합순위)

종합 1위 : 경기천현

종합 2위 : 경기도창

종합 3위 : 경기신일

종합 4위 : 경기신산

종합 5위 : 서울신정

▲ 남자 최우수선수상

김민욱(경기구운)

▲ 남자 최우수지도자상

정운기(경기구운)

▲ 여자 최우수선수상

임양은(경기덕소)

▲ 여자 최우수지도자상

서창연(경기덕소)

제77회 전국체전 태권도 경기

1996. 10. 8~12(5일간)

강원도 춘천실내체육관

- 1 : 강원도
- 2 : 서울
- 3 : 인천
- 4 : 충청북도
- 5 : 전라북도
- 6 : 광주
- 7 : 경기도
- 8 : 경상남도
- 9 : 대전, 전라남도
- 11 : 부산
- 12 : 대구
- 13 : 경상북도
- 14 : 제주도
- 15 : 충청남도

97년 3월부터 바뀝니다!

태권도가족 여러분! 97년 3월부터 태권도지가 월간으로 나옵니다.

태권도발전 대토론회, 연구개발특별위원회 설립, (가칭)태권도성전 건립추진 위 창립 등등 태권도계는 지난 한 해를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이제 그 변화와 발전의 모습을 보다 신속하고 알차게 여러분께 전달하기 위해, 계간 태권도에서 월간 태권도로 간행주기를 달리하며 그 내용과 모습을 더욱 신선하고 실속있게 변화시키고자 합니다.

먼저, 독자란을 신설하여 태권도 가족 여러분의 기탄없는 의견을 싣고자 합니다. 평소에 갖고 계시던 생각과 건의사항을 주저없이 보내주십시오. 여러분의 의견 하나 하나는 태권도 발전을 위한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월간 「태권도」의 제작을 총담당하게 될 고두현 편집위원장을 소개합니다.

고 두 현

(1935년 5월 2일생)

1958	한국해양대학 항해과 졸
1960	서울신문사 입사 체육부 기자 차장, 주간스포츠 부장, 체육부장(국장급)
1995	국장급 기자로 정년퇴임
1996.10~	대한태권도협회 연구개발특별위원회 위원
1997.1 현재	월간 「태권도」 편집장
1978	한국신문협회상 수상
1989	체육훈장 기사상 수훈
1994	이산체육기자상 수상



지난 9월 태권도발전 대토론회에서 사회를 맡아 토론회를 진행한 고두현 편집위원장

저서 스포츠의 영웅들, 한국의 올림픽 출전 반세기, 고두현의 스코어카드, 소설 역도산(상·하), 베를린의 월계관(손기정 전기)



(가칭) 태권도 성전

1996년 12월 26



건립추진위원회 창립총회

서울올림픽파크텔



지난 12월 26일 올림픽파크텔 올림피아홀에서 있었던 (가칭)태권도성전 건립추진위원회 창립총회에 참석한 추진위원들.

태권도한마당 '96



지난 96년 11월 29일부터 3일간
KBS 88체육관에서 열린
태권도한마당 '96 행사 개막식에서
이필곤 대한태권도협회 회장이
선수대표에게 선전을 당부하고 있다.

발격파부문에 참가한 캐나다 대표가
6장의 송판을 완벽하게 격파하는 모습



대회에 참가한 여성들이 경쾌한 음악에
맞춰 태권체조를 선보이고 있다.

제77회 전국체전



지난 10월 8일부터 12일까지 강원도 춘천실내체육관에서 있는 전국체전 태권도경기에서 우승팀인 강원대 대표 선수들이 환하게 웃고 있다.

전국체전 선수단 환영연에서
선수들을 격려하고 있는
이필곤 대한태권도협회 회장



'96 우수선수선발대회



96년 11월 14일부터 3일간 국기원에서 있었던 우수선수선발대회에서 우승한 헤비급 김정규(국군체육부대) 선수와 웰터급 조향미(인천시청) 선수

베트남 시범단



임원 4명, 단원 16명으로
구성되어 96년 11월 10일부터
19일까지 베트남, 방콕에서
시범을 가진 시범단(단장 하정조).

군 태권도 지도자 표창식

12월 20일 국방부
태권도 지도자 표창식과
태권도 지도 심사위원
관계회의에 참석해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이흥주 대한태권도
협회 상임부회장



국기원 정보시스템 가동식

(관련기사 태권도소식 28p)